

5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



posco  
포스코교육재단

5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



새천년관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됩시다.

이사장 박태준  
1990. 4. 8





포스코교육재단 설립 50주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보국의 건학이념을 내걸고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의 모범을 만들어온 포스코교육재단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다양한 교육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 교육의 훌륭한 모범을 만들고 재단 산하 각급학교를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켜 온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포스코와 교육당국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포항시, 광양시, 그리고 성원해주신 지역사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것은 그저 지난날의 어려움과 영광을 추억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않았던 그 과정을 헤치고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프로세스는 오늘의 최선이고 내일의 개선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신우일신(一新又日新)의 자세로 교육 방법,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야 합니다. 재정자립화를 통해 좀 더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재단 운영 환경을 이룩해 나가며,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에 매진하는 미래 사학의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4차 산업혁명적 사고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혁신 마인드셋으로 무장하고, 관행과 반복적인 업무방식을 탈피해 혁신적인 교육성과를 위해 다 함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의 성공을 넘어 더 큰 내일을 열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집대성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임무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또 다른 미래 50년, 흔들림 없이 교육만을 생각하고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들을 육성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포스코교육재단 설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글로벌 일류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 아래 세계적인 인재와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년 1월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박성호

## CONTENTS



발간사	06
-----	----

### 재단사

<b>I. 사학의 새 지평을 열다</b>	<b>22</b>
1. 재단 설립의 배경	23
2.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	26
3. 학원단지 조성	27
4. 포항, 광양지역 유·초·중·고교의 개교	30
5. 포항공대 개교	45
6. 재단 분리	46
7.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운영	47
8. 노후시설의 대대적 보수	48
9. 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	49
10.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50
<b>II. 최고의 교육을 지향하다</b>	<b>52</b>
1. 우수 교사 유치	53
2. 연구풍토를 조성하다	54
3. 선진교육문화 창출	56
4. 교육연구원 설립 운영	57
5. 특별교육 시설 건립	58
6.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60
7. 우수 교재 개발	73
8. 재단 비전 선포	74
9. 전 교원 상담교사화	76
10. APEC 회원국 교육장관 및 대표단 재단 학교 방문	78
<b>III. 재단의 재정자립도 개선</b>	<b>80</b>
1. 포스코에 대한 재정의존도 축소 과제 안아	81
2.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수혜	81
3. 정부 보조금 수령 확대에 따라 교육 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 기준 적용	82
4. 포스코 주택단지 개방에 따른 비직원자녀 교육비 지원 요청	83
5.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	84
6.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통합	84
7.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단 재정자립화 추진	86

<b>IV. 포스코교육재단의 위상과 교육성과</b>	<b>90</b>
1.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91
2. 지방 역류 모델 제시	92
3. 기업시민 POSCO와 함께 하는 포스코교육재단	92

### 학교사

<b>유치원</b>	
포항제철유치원	102
광양제철유치원	114
<b>초등학교</b>	
포항제철초등학교	128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142
광양제철초등학교	156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70
<b>중학교</b>	
포항제철중학교	184
광양제철중학교	198
<b>고등학교</b>	
포항제철고등학교	212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228
광양제철고등학교	244
인천포스코고등학교	260

### Appendix

1. 법인 조직	276
2. 운동부 현황	278
3. 임원 및 학교장 현황	283
4. 편찬후기	299

#### 알려두기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는 1971년 제철정학회 설립에서부터 2020학년도 말까지 50년 간의 재단 및 산하 학교의 발전과정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재단사와 학교사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사는 단위 학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재단 명 표기는 '포스코교육재단'으로 통일했으며, 포스코는 시기별 사용한 명칭과 무관하게 '포스코'로 통일해 기입했다.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병기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연도는 네 자릿수로 표기했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랐으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그 표기를 준용했다. 경어와 존칭은 생략했다.

## 기업시민 POSCO의 경영철학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포스코교육재단이 되겠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  
포스코교육재단 각급학교는 지난 50년 동안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서 한국교육의 모범을 만들어온  
포스코교육재단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기업시민 포스코의 경영철학 속에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안목을 갖고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일류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 광양, 인천지역에 1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현재 포항지역 6개 학교(유치원1,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2), 광양지역에 5개 학교(유치원1,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 고등학교 1개를 운영하는 등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1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주택단지 내에 별도 재단으로 분리된 포스텍(포항공대)까지 들어서 있어 대단위 학교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광양에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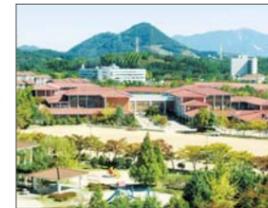
포항제철중학교



광양제철초등학교



포항제철초등학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광양제철유치원



포항제철유치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 | 학교 현황

### 포항지역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 포항제철중학교  
포항제철초등학교 /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 포항제철유치원

### 광양지역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 광양제철중학교 / 광양제철초등학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 광양제철유치원

### 인천지역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 | 학급, 학생, 교원 수 현황

(2021년 1월 기준)

구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b>포항지역</b>	<b>209</b>	<b>5,489</b>	<b>368</b>
포철고	36	1,069	77
포철공고	29	536	81
포철중	58	1,449	100
포철초	31	879	41
포철지초	43	1,290	55
포철유	12	266	14
<b>광양지역</b>	<b>79</b>	<b>2,061</b>	<b>143</b>
광철고	28	756	61
광철중	14	401	30
광철초	12	286	18
광철남초	18	473	25
광철유	7	145	9
<b>인천포스코고</b>	<b>24</b>	<b>631</b>	<b>55</b>
<b>합계</b>	<b>312</b>	<b>8,181</b>	<b>566</b>

# 포스코교육재단 비전은 '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성, 창의, 인성, 적성·진로, 문화예술, 스포츠, 세계시민의식 7개의 교육목표 속에서 보다 넓은 안목을 갖추고 지구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광철초 관현악부 유럽 순회 공연 (2018.8)

## | 비전 : 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

포스코교육재단은 비전을 “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로 정하고 지식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 되는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세계 명문학교가 전인교육을 위해 지향하고 있는 특징적인 기본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5대 기본 교육목표 △지성 △인성 △시민의식 △스포츠 △문화·예술을 선정하고 여기에 포스코교육재단 전체가 지향하는 △창의 △적성·진로 2대 중점 관리 목표를 추가한 7대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학교별 비전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슬기롭고 바르게 자라나는 행복한 배움의 터전', 중학교는 '개인의 적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성장의 터전', 고등학교는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행복한 도약의 터전'으로 정하였습니다. 학교 급별 교육목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 인성, 중학교는 지성, 인성, 적성/진로, 문화예술, 고등학교는 지성, 적성/진로, 스포츠, 세계시민의식으로 정해 비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

- 국제화 시대에 맞는 폭넓은 시야와 도전정신 함양
- 국내외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 다양한 문화와 지식에 대한 폭넓은 수용 및 이해

### 일류 시민

- 성숙한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춘 모범적 리더 육성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인식 및 창의적 의사표현 능력
- 사회 참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각자의 적성·소질을 토대로 사회발전에 기여

### 행복한 학교

- 글로벌 일류시민의 자질을 배양하며, 각자의 끼를 찾고 꿈을 실현해나가는 곳

# 포스코교육재단은 유·초·중·고 13년간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발견한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고등학교까지 13년 간 연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성, 독서, 창의성, 영어, 수학, 과학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수학·과학·예체능 분야에서 각종 권위 있는 국내 대회 석권은 물론,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세계유소년축구대회 우승, 국제관악연주대회 대상, 세계줄넘기선수권대회 우승, 국제올림피아드 수상, 세계 로봇경기대회 1위, 국제수학경시대회 대상 등 국제무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유치원 야외 놀이수업



2012 세계유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포항제철초등학교 축구부



광양제철중학교 창작로봇 제작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발표회

# 한눈에 보는 포스코교육재단 역사



우리의 어제가 오늘이 되었고  
우리의 오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 재단사

- I. 사학의 새 지평을 열다
- II. 최고의 교육을 지향하다
- III. 재단의 재정자립도 개선
- IV. 포스코교육재단의 위상과 교육성과

# I

## 사학의 새 지평을 열다

1. 재단 설립의 배경
2.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
3. 학원단지 조성
4. 포항, 광양지역 유·초·중·고교의 개교
5. 포항공대 개교
6. 재단 분리
7.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운영
8. 노후시설의 대대적 보수
9. 마이스터고 개교
10.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 1. 재단 설립의 배경

### 포스코의 탄생

포스코교육재단의 설립배경은 포스코의 성장과정 및 창업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포스코의 건설이 경제·산업분야의 도전이었다면, 포스코교육재단의 설립은 사회·교육 분야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당시,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94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1961년 군사혁명으로 새로이 출범한 혁명정부는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10월 3일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을 거행했고 대한중석 박태준 사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수차례 좌절과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종합제철은 무산위기까지 몰리게 된다. 다행히 대일 청구권자금사용이란 이른바 ‘하와이 구상’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햇빛을 보았다. 당시 포스코의 초기 건설과정은 대통령이 건설현장을 열세 번이나 찾을 만큼 절박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실패한다면 영일만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우향우 정신’이 정체성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 4월 1일 영일만 공사현장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포스코의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건국 이래 최대의 대역사였고 건설역정은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포스코 전경

### 직원 주택 단지 조성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직원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유입인구를 감당할 주택과 학교시설이 태부족이었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포항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주택과 학교시설이 절대 부족하였다. 1968년 당시 포항의 주택 충족률은 60%에도 못 미쳐 초기 직원들은 시내 여인숙을 빌려 합숙을 하는 형편이었고, 초등학교 교실은 2부제 수업으로도 모자랐다.

1968년 9월 박태준 사장은 야산이었던 효자지구를 직접 답사하여 20만평을 매입하고 주택단지로 선정하여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포스코 건설초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수인력의 확보였다. 창립초기 포스코 사원들은 포항지방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느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건설현장을 지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을 포함한 후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일류학교의 서울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야말로 사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고 안정조업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관건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현실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박태준 사장은 포스코의 건설과 병행하여 사원들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훌륭한 교육시설을 함께 건립하였다.

### 제철장학회 설립

1970년 11월 5일, 포스코 제1회의실에서 장학회 설립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설립 이사회에서는 먼저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로 결정하고, 제철장학회 정관을 축조·심의하여 확정하였다. 설립 이사회 당일,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소재 YWCA 회관 내에 있었던 포스코사무실에 법인 본부를 설치하고, 제철장학회 설립 관련 업무를 전담시켰다.

1971년 1월 27일 제철장학회를 설립함으로써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971년 9월 15일 첫 교육 사업으로 포항 효자제철유치원이 개원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로는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어 유아교육 관련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회, 자연, 언어, 예능 등 보육과목과 그 이외에도 노작교육을 통한 창의와 협동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979년 3월 8일 포항시 인덕동에 인덕제철유치원도 개원하였다.



제철장학회 사무실이 있었던 서울 YWCA회관 전경

이후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각급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포스코 제1기 사업이 1973년 조기에 완공되고 제2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원들의 수가 급격히 팽창하여 제철장학회로서는 직원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당시 법규로는 장학회는 유치원밖에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제철학원의 설립

주택단지에는 제철장학회가 유치한 공립 지곡국민학교와 지곡중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공립학교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1976년 8월 27일 제철장학회는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포스코 제4기 설비가 준공되고 조강 850만 톤 생산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고용 인력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고 직원자녀 교육문제 해결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976년 11월 16일 고등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의 전신인 '제철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박태준 사장은 설립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제철학원의 기반조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제철학원의 설립은 일차적으로 직원자녀 교육문제를 해결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다음으로 우수 교육기관의 서울 편중현상에 따른 인구집중을 해소할 수 있으며, 끝으로 포스코의 창업정신인 '제철보국'을 교육분야에서도 실현한다는데 목적이 있었다.

박태준 설립이사장이 추진한 사원복지를 위한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과 단지 내 각급학교 설립으

자료 출처 : 『4반세기 제철 대역사의 완성』 (포항제철, 1992)

## 포스코교육재단 기여도

포스코 우수인력 유치 기반 제공 - 직원자녀 교육문제 해결이 포스코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음

### 스탠포드대 사례연구

낙후지역인 포항에 초일류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유치가 필수였음. 그래서 제철소가 건설되기 전에 주거·교육시설 건설을 시작함

### 하버드대-서울대 공동연구

포스코의 성공 요인 중 중요한 것이 원만한 노사관계이며, 이를 위해 창립 초기부터 국내 최고의 주택단지과 학교를 건립해 생애직장의 이념을 완성하였음

### 미쓰비시 연구소 종합보고서

직원 자녀 교육문제 해결이 포스코의 성공 요인 중 하나임. 포항·광양제철소 건설에 우선하여 종업원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하고 학교 건립

### 노무라증권 조사보고서

인구 5만의 도시인 포항에 우수한 종업원을 유치하기 위해 주택단지와 함께 유·초·중·고를 설립함

• 포스텍 설립 당시 주택단지 내 전국 명문인 유·초·중·고등학교의 존재는 해외 우수 교수 유치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음 (백성기 포스텍 총장, 2008.11)

로 직원자녀 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는 스탠포드대학 사례연구나 하버드-서울대 공동연구 등에서 포스코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쓰비시 연구소, 노무라증권 조사보고서에도 주택단지 건설과 직원자녀 교육문제의 동시해결을 포스코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 2.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

건학이념은 설립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육목표이다. 건학이념은 설립이사장의 교육관과 교육사상의 바탕 위에서 설정되었다. 또한 포스코 창업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설립이사장이 생각한 건학이념의 기본 틀은 '자주와 창의'이다.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적인 덕목이 추가되어 구성되어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의 이론모형은 1핵과 3이념, 6개념으로 조합된 황금률이다.

설립자의 건학정신인 1핵은 '교육보국'으로 정했다. 3이념은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으로 두었고, 6개념은 문화, 생활, 지성, 인격, 협동, 봉사로서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교육목표이다. 이처럼 3이념을 근거로 1핵과 6개념을 정리했다. 자주인은 밝은 눈을 가지고, 도덕인은 냉철한 머리를 가지며, 창의인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자주인은 주체와 사명감을, 도덕인은 지성과 인격을, 창의인은 개척과 봉사정신을 겸비하도록 교육목표를 정하였다.

건학이념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포스코의 창업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우선 민족기업인 포스코의 창업정신의 1핵에 해당하는 것이 '제철보국'이다. 이에 대비되는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의 1핵도 '교육보국'으로 설정했다. 포스코 창업정신인 사명감은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자주로, 책임감은 도덕으로, 희생정신과 공인정신은 창의로 표현되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 속에는 교육학자들이 21세기교육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덕목을 모두 수렴하고 있다.

## 3. 학원단지 조성

### 포항지역 학원단지 조성

포스코는 창립 이후 직원들의 근무 안정성을 위한 복지후생 중 특히 직원자녀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1978년 3월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직원자녀의 중학교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 영일군 연일면 지곡동 산 40번지에 공립 지곡중학교를 유치하였다. 9월에는 정부의 산학협동 정책에 호응하고 제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립 포항공업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사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포항지역 학교단지 종합 건립 공사 착공식 (1976.11)

그러나 공립 지곡중학교 및 포항공업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많은 직원 자녀들이 대도시로 옮겨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79년 3월, 공립 지곡중학교를 사립화하여 제반시설을 최신화하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주택단지 내에 이전하여 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 시설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직원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 종합건설 계획을 세웠다. 제철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설립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교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직원 자녀들의 교육문제 해결과 우수 기능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학원 종합건설계획은 약 23만8,000㎡의 부지 위에 단계별로 총공사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1982년까지 종합 준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교실 당 50명 전후의 많은 학생을 수용했던 공립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와 인문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40명 이내로 하는 파격적인 계획이었다. 모든 시설을 문교부 시설 기준 이상으로 하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전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최신 시설의 복지회관, 실습실, 도서실, 체육관, 강당, 종합운동장 등 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이었다.

### 광양지역 학원단지 조성

1981년 11월 4일, 정부는 전남 광양군 곽약면 일대를 제2제철소 건설부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광양제철소 건설과 함께 사원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구비되었으나 숙제로 남은 것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였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1984년 2월 6일, 광양지역 직원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광양지역 학교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계획에는 현대식 설비를 갖춘 교사를 건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완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포스코교육재단의 설립 취지인 직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철소 직원들이 마음 놓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태금면 금호도에 264만4,464㎡를 확보하고 주택단지 조성 작업에 들어갔다. 제철학원에서도 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할 학교를 세우



광양지역 주택 및 학원단지 전경

기 위해 1984년 4월, 광양지역 학교 설립 계획을 입안하였다.

학교 건립에 따른 공사 관리와 각종 행사 지원, 교사 준공에 따른 각 교실의 내부시설, 학교 단지 내의 시설 관리 및 포항과의 업무 연락, 각급학교의 개교 추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1월,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연락소를 개설하였다.

광양지역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포스코교육재단은 우선 학교 부지를 포스코로부터 출연 받아 198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이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국내 최고의 시설로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건설 계획을 세웠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 학교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오지였던 금호도는 광양제철소 직원들에게는 안락한 생활의 터전으로, 자녀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꾸어 나가는 배움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았다.

## 4. 포항·광양지역 유·초·중·고교의 개교

### 포항지역

#### · 효자제철유치원

포스코는 건설부지 확보사업과 아울러 사원 복지후생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직원들의 주거는 안정되었으나, 자녀 교육시설과 장학 수혜 정책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적령기 아동들을 두고 있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유아 교육시설 건립을 희망하였으며, 그 뜻을 경영층에 건의하였다. 박태준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1971년 7월 26일 제철장학회에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주택단지 내에 사립 유치원 설립을 지시하였다. 당시 주택단지 내의 학부모들은 유치원 조기 개원을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기 중인 1971년 9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9월 16일부터 1학년 28명으로 원아 보육에 들어갔다. 보육과목은 건강, 사회, 자연, 언어 및 예능이었다. 주당 15시간 수업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심신 단련과 성장 발육을 도모하며, 노작교육을 통한 창의와 협동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1976년 11월16일, 제철장학회로부터 유치원 경영권을 넘겨받은 제철학원은 1980년 9월 1일, 제철유치원을 효자제철유치원으로 개칭하였다.

#### · 인덕제철유치원

포스코의 단계적 시설 확장으로 550만 톤 규모의 3기 설비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1977년에서 1978년까지 포스코는 1,511세대의 주택을 효자지역에, 216세대를 인덕지역에 건축하였다. 자연히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수도 늘어났다. 제철소에 인접한 인덕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직원 자녀들 중 유치원 취학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추세였다. 더욱이 인덕지역에 거주하는 원아들은 5km 정도 떨어진 효자제철유치원까지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덕지역에 별도의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2월 25일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3월 8일 경북 포항시 인덕동 110번지에 3학년, 정원 120명의 인덕제철유치원을 개원하였다. 개원 이후 1995학년도까지 2,000여명의 유아들의 요람이었던 인덕제철유치원은 인덕 지구 주택 철거에 따라 1996년 3월 1일 폐원되었다.

#### · 지곡제철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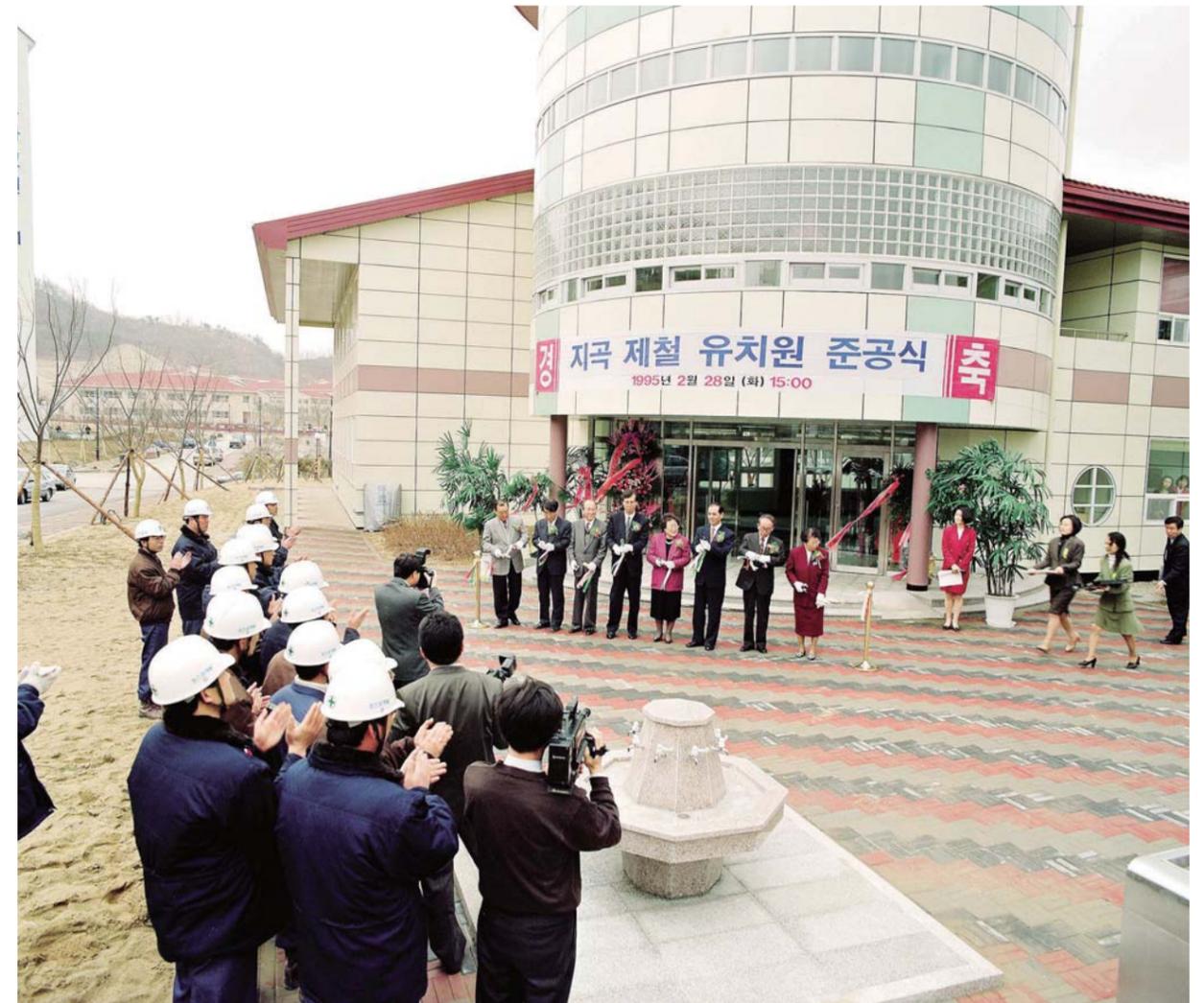
1995년 포스코는 창설 초기 건설한 포항시 인덕동, 지곡동의 낡고 좁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곡동 자연부락에 신 주택단지 그린아파트를 개발하여 주민을 이주시켰다. 또한, 명문학교로 성장한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교육기관에 자녀를 취학시키기 위해 단지 밖에 거주하고 있던 직원들



효자제철유치원 전경 (1971.8)



인덕제철유치원 전경 (1979.3)



지곡제철유치원 준공 (1995.2.28)

도 대거 신 주택단지로서 옮겨 왔다. 지곡동 주택단지는 1차로 1995년 1,288세대가 입주하고, 2차로 1996년 234세대, 1998년 2,130세대가 입주할 대단위 단지였다. 그곳에 거주할 원아들이 다닐 효자제철유치원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이었다. 더욱이 1998년 이후에는 직원의 신 주택단지 거주 비율이 63% 정도로 예상되었고,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생수의 70~79%가 신 주택단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효자제철유치원 외에 별도의 신 단지 유치원이 필요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입주 직원들의 자녀 교육열을 반영하여 1995년 3월 1일 지곡제철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4월 7일 8학급 규모로 개원하였다.

· 포항제철동초등학교 · 포항제철서초등학교

포항의 주택단지 유입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취학아동도 급증하게 되었다. 당시 직원자녀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효자초등학교에 다녔다. 사원들의 민원이 겹치면서 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교육시설은 불가피한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제철장학회에서는 공립국민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건물을 신축 해주며 학교운영과 관련된 교육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1974년 3월 1일 공립 지곡국민학교가 인가되었고, 3월 5일 개교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개교 당시의 학급규모는 8학급 338명이었으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교가 발전하자 직원자녀들의 대거 유입이 이루어졌다. 결국

44학급 2,800명으로 학급당 인원도 60명 이상인 다인수 다학급으로 전락하여 1, 2년생들은 교실부족으로 2부제 수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래의 교육목적과는 동떨어진 콩나물시루교실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박태준 이사장은 과밀학급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해소방안 연구와 사립초등학교 설립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국내 지방 도시로는 유일하게 사립초등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기존 공립국민학교를 인수하여 사립화 하였다. 당초 지곡초등학교 인수를 시 기존의 72개 학급을 1개의 초등학교로 사립화를 시도했으나 문교부 규정상 도시지역에는 32개 학급 이상 사립학교 신청이 불가하였으므로 학급당 40명씩 36개 학급규모의 2개 학교를 건립토록 감독관청과 합의를 하였다. 1985년 12월부터 신축교사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1985년 11월 5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으로 포항시 지곡동 166-4번지에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포항시 효자동 253-1번지에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설립승인을 받았다. 공립지곡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의 부지 3만1,663㎡에 포항제철동초등학교를 신축하고 개교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효자동 253-1번지의 부지 3만503㎡에 포항제철서초등학교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1986년 9월 30일 준공하였다.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우주과학관, 해양과학관, 어학실, 전산실, 과학실, 도서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갖추고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착공 (1985.12.16)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개교 (1987.3.5)

1986년 11월 17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각 36학급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1987년 3월 5일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립초등학교 개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1995년부터 지곡동 자연 부락에 신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4,000여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자 이곳에 입주할 직원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초등학교 설립이 논의되었다. 지곡동에는 1987년 설립한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이 두 학교로서는 신단지에 입주하는 직원자녀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1996년 12월 17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638번지 3만2,509㎡의 부지에 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틸스터드(Steel-stud)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건식 공법에 따른 건축이었다. 1997년 10월 6일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36학급, 학급당 40명의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1998년 3월 2일, 지곡동 그린아파트에 거주하는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재학생 1,09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받아들였고, 다음날 신입생 235명의 입학식을 치렀다. 본관동과 운동장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개교식은 4월 7일 가졌다.

· 포항제철중학교

1974년 공립 지곡초등학교를 유치한 후 주택단지 내의 교육연계 시설의 일환으로 중학교 설립이 논의되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1976년 8월 12일 포항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포스코 및 연관 철강공단의 직원 자녀와 인근 주택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곡동 주택단지 내에 공립 지곡중학교 유치 계획을 세워 당국에 신청하였다. 1977년 12월 30일 지곡중학교 설립 인가가 났고, 1978년 3월 1일 신입생 2학급, 교사 7명, 남녀공학으로 개교하였다. 1978년 3학급이던 것이 이듬해에는 7학급으로 늘어났고, 1984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22학급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개교 (1998.4.7)



공립 지곡중학교 인수 (1980.3.12)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막대한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국고 지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절대적인 운영비 부족을 감안할 때 포스코 직원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립 지곡중학교는 유치 당시의 기대와 소망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립 중학교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사립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1979년 12월 17일 포스코 제1회의실에서 포스코교육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방재정법 제57조4항에 의거 공립 지곡중학교를 인수금액 1억500여만 원에 재산매입 방식으로 인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사회 의결의는 1978년 12월 20일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 학교단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자녀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시설을 한곳에 집중시켜 단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1979년 3월 13일 지곡중학교 사립화 승인을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6월 13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관리국장실에서 지곡중학교를 사립화 할 것을 쌍방 합의하고 10월 16일 지방자치법 19조 6항에 의거, 지곡중학교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공립중학교 폐지 및 사립중학교 설립 계획과 재산 처분, 허가 신청 등 제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12월 29일 문교부로부터 각 학년 4학급 전체 12학급 수용인원 600명으로 사립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포스코로부터 21만7,856㎡ 규모의 부지를 출연 받아 2만8,370㎡를 학교 부지로 편성하여 3,911㎡의 3층 신축 교사를 준공하였다. 공립유치 2년만인 1980년 3월 1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인수하여 3월 12일 개교식을 거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81년 3월 1일 포항제철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 포항제철고등학교

1979년 12월 학원단지 조성을 안건으로 한 포스코교육재단 정기 이사회 의결의 내용에는 인문 고등학교의 설립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박태준 이사장은 1980년 8월 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1981년 3월까지 '인문 고등학교를 개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신축 교사 준공 및 이전 (1995.2.28)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인문 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효자 주택단지 건설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면서 단지 내에 공립 초등학교, 공립 중학교를 유치, 개교하였지만 박태준 이사장이 구상하고 있었던 교육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다. 교육 현장에 기대하는 박태준 이사장의 교육 형태는 대단히 진보적이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구상은 곧 포스코 직원들의 한결같은 기대였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신설이 추진되었고, 이미 인수한 지곡중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일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계획으로는 1982년에 가서야 신축 교사를 준공할 예정이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중학교 병설 개교를 타진해 봤지만 고등학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포항시 득량동에 있던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1980년 9월 5일 지곡동 418번지 새 교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므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구교사를 신설 인문 고등학교 교사로 잠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세워 1980년 10월 10일, 교육법 시행령 제55조 및 학교설립 인가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사립 포항제철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다. 1980년 11월 26일, 각 학년 3학급, 전체 9학급으로 학급당 40명씩 360명을 정원으로 한 문교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인수 (1978.9.1)

설립 인가가 났다. 이듬해인 1981년 3월 6일 개교식을 가짐으로써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5년 2월 28일 포항제철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구 교사에서 현재의 신 교사로 이전하였다.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한적한 시골 항구에 불과했던 포항이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하면서 포항지역 주민들은 공업 고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경북도교육위원회를 수차 방문하여 우수한 기능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립 공업 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9년 11월 22일, 설립 인가를 받아 1970년 3월 12일 포항공업고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포항공업고등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당시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입주 업체의 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를 시찰하면서 포항공고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포스코는 1975년 제철과를 2학급으로, 1977년 3학급으로 증설 모집했고, 교과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현장 실습 확대 등 특성화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설비 확장에 따라 고도의 전문 기술 인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비례하여 인력 확보 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항구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자급체제 구축을 위해 포항공고를 인수하여 사립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특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1978년 3월 포항공업고등학교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자체 인력 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공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사립화 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5월 31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사립화를 감독관청에 건의하였다. 이어서 공고 발전계획과 교육시설 확충 각서를 문교부에 제출하고 9월 1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화 인계인수식을 가졌다. 인수식장에서 박태준 이사장은 '포항제철공고를 철강 및 금속 기능 인력에 관련한 세계에서 제일가는 특성화공고로 육성' 하겠다고 천명했다. 1979년 신입생모집부터 특차로 전국 권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 전교생들은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고, 졸업 후 군 입대 면제혜택도 받았다. 당시의 현안사항이던 제철보국의 우수 기능인력 양성학교로 변신하면서 전국명문 공고로 명성을 날렸다.

**광양지역**

· 광양제철유치원

1981년 광양제철소 1기 설비공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원들이 광양으로 이주했다. 포스코에서



광양제철유치원 전경

는 포항제철소 초기 건설 당시처럼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인 주택건설이 현안 문제로 떠올랐고, 직원자녀들의 교육문제 해결 또한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포스코에서는 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1981년 광양제철소 사원 주택단지를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완공하였다. 주택이 마련되자 자녀 교육이 문제였다. 특히 미취학 원아들이 다닐 유아교육 시설이 인근에는 없었다. 이미 효자제철유치원을 재단의 출발점으로 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태준 이사장은 광양지역에서도 유아교육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금도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였다. 병설 유치원 설립이라는 응급조치를 해놓고 광양지역 학원단지 구성계획에 따라 1984년 4월 9일, 최신 설비를 구비한 4학급 규모의 유치원 건립공사를 시작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1984년 12월 22일 광양제철유치원 설립 승인 신청을 광양군 교육청에 제출하여 11월 30일자로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1985년 1월 16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 VTR시설, 전산실 등 첨단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1985년 3월 5일, 유치반 20명, 원아반 30명으로 광양제철유치원을 개원하였다.

· 광양제철남유치원

조강연산 810만 톤 규모의 광양제철소 3기설비가 착공된 1988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금호 주택단지로서는 직원 가족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단지 내의 주택을 구하지 못해



광양제철남유치원 ·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개교 (1989.3.8)

인근의 광영·광양·순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던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 주택단지의 건설이 시급해졌다. 포스코에서는 광양제철소 인근 금당동에 1988년 721세대, 1989년 132세대의 연립주택을 조성하였다. 주거문제와 연계되는 것이 직원자녀들의 교육시설이었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1988년 5월 20일 광양군 교육청에 가칭 금당 유치원 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6월 13일 승인을 받았다. 유치원의 위치는 광양군 태금면 금호리 624번지로 모든 원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신 주택단지 중앙부였다. 유치원 건립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인 12월 22일 가칭 금당유치원을 광양제철남유치원으로 광양군교육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89년 1월 25일 8학급 240명 정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1989년 3월 8일 5학급으로 개원식을 가졌다.

· 광양제철초등학교

1981년 11월 4일 광양만 일대가 제2제철소 부지로 최종 확정되자 포스코는 12월 1일 광양 현장에 건설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라 금호도 일대에는 사원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포스코 교육재단에서는 주택단지 내에 직원 자녀를 위한 사립 초등학교 시설을 유치하고자 1984년 2월 23일 광양군 교육청에 학교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광양군 교육청은 공립 금도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으며, 1985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억제한다는 내용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승인을 유보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제철 기술 인력의 조기 정착, 교육 및 장학 지원을 통한 타기업체 대비 임금 체계의 우위 확보, 타기업체 여건과 상이한 주택단지 내의 직원 거주, 주택단지 내의 동일 수준의 스쿨타운 조성, 교육의 선진화로 지역사회 교육발전 기여 등을 강조하여 1984년 3월 31일 초등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재신청하였다. 그러나 광양군 교육청은 승인에 앞서 기존 금도 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보상 계획안을 요구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과 포스코는 광양군 교육청의 보상 요구액을 검토한 후 금도초등학교 학구 내 자연부락 이주민 자녀들을 수용할 교실 증축을 지원하며, 교육시설 및 비품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1984년 7월 7일 6학급 규모의 사립 초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12월 10일 전남도교육위원회로부터 학급당 40명, 전



광양제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개교 (1985.3.5)

학년 7학급, 1985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사립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85년 1월 31일 학교부지 3만8,080㎡ 위에 일반교실 1개동(12실)과 특별교실(6실)을 포함한 현대식 설비를 갖춘 건물 본 공사가 준공되었고, 아동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 기교재가 갖추어졌다. 3월 5일 개교식과 신입생 입학식을 치렀다.

·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광양제철소 3기 설비 건설 사업은 1989년 10월 착공, 1991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강 수요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날로 심화되는 국내 철강재 부족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대 공산권 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1988년 조기 착공하였다. 3기 설비 건설에 착수하자 직원들이 서울, 포항 등지에서 전입해 오면서 주거 시설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양제철소 초기 건설 당시 조성한 금호동 주택으로는 더 이상의 유입 인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주택 개발은 금당동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금당동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1985년 개교한 광양제철초등학교만으로는 더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1988년 5월 29일 광양군 교육청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6월 1일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624-11번지에 학교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다. 총 부지 3만5,956㎡, 교사4,747㎡, 운동장 1만950㎡, 체육놀이장 2,492㎡, 연건평 9,017㎡ 규모로 총공사비 31억5,261만원이 투입되는 공사였다. 학교 준공을 앞둔 1989년 1월 26일 감독관청으로부터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3월 8일 개교식 및 입학식을 치렀다.

· 광양제철중학교

당초 1988년 4월 준공 예정이었던 광양제철소 1기설비가 6개월 앞당겨 1987년 10월 준공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포스코는 제철소 조업대비 요원을 조기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이들을 위한 주택 건립을 서둘렀다. 1기설비의 조기 준공으로 중학교 설립 또한 앞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포스코로부터 출연 받아 이미 확보한 중학교 건립 부지에 학교 건축 공사를 조기 착공하고, 준공 전까지는 초등학교 잉여 교실을 이용하여 1985년 3월 초등학교와

동시 개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주택단지를 단일 학구로 조정한 이유는 초등학교와 연계된 학교 운영으로 직원 자녀를 100%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1984년 11월 25일 전남도교위는 학년 당 1학급씩 3학급 규모의 중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월 14일 감독관청으로부터 학급당 40명, 전 학년 120명, 1985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광양제철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85년 3월 5일 개교 당시 입학생이 남학생 1명뿐이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더 흥미로운 일은 1명의 학생을 위해 9명의 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학생 1명에 교사 9명으로 개교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한 사람의 교육이라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설립이사장의 투철한 교육철학의 반영이었다. 당시 커다란 교실에서 교사와 1:1수업을 받은 이 학생은 몹시 불편해했다고 한다. 친구가



광양제철중학교 교사 준공 및 광양제철고등학교 개교 (1986.3.3)

없다는 점이 그렇고 수업시간에 한 눈을 팔 수 없는 개인지도 형태였으니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당초 계획한 아파트단지 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단일 학군으로 일반 주민 자녀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교 후 공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입 사원의 입주가 증가되어 학생 수는 점차 늘어났다.

· 광양제철고등학교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금호동 주택 단지에 1986년까지 756동, 1991년까지 4,538세대의 사원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단지 내 거주 아파트 증가는 바로 초·중·고 취학 자녀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학원단지 내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설립하여 1985년 3월 5일 개교 및 입학식을 가진 데 이어 광양제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광양제철고등학교 개교 (1986.3.3)

당시의 지역적 여건을 보아도 학생 통학이 가능한 인근 면소재지인 태금·골약·왕곡 등지엔 중학교는 있었으나 고등학교는 없었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서 21.4km 거리의 광양읍에 농고와 여고가 있었다. 순천시까지는 37.4km로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경제적·교육적·시간적 손실이 너무 컸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1985년 1월 22일 포스코 제1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양제철고등학교 설립 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광양제철소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직원 자녀 중 중·고생의 취학 추이를 살펴볼 때, 고등학교 준공 전 1986년, 1987년 2년 간은 중학교 잉여 교실을 이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1987년 중에 고등학교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광양제철고등학교 설립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985년 1월 26일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문교부에 광양제철고등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3월 5일 학교 설립 인가 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 1985년 12월 30일 문교부의 광양제철고등학교 설립 인가가 났다. 이로써 광양제철소 학원단지에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 연계 시설이 모두 완공되었다.

## 5. 포항공대 개교

포항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은 1980년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박태준 설립이사장은 고도 산업사회의 진전과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사적 전환기를 맞아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고급 두뇌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을 시찰하면서 학교, 산업체, 연구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 또한 미시건 대학을 제외한 MIT, 스탠포드, 칼텍, 코넬, 버클리 등 이름난 공과대학들은 모두 사립으로 대부분 기업인들이 설립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특히 칼텍은 학생 수 대비 교수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다.

설립이사장은 한국대학의 교육부실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해서 대학을 운영한다는 점,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과다, 산학연에 대한 연계부실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았다. 박태준 설립이사장이 포항공과대학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저간의 배경이다. 1985년 2월, 대학설립추진반이 발족되었고 당시 포스코 이대공(전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상무이사가 건설 본부장을 맡았다. 완벽한 시설과 개교준비를 마치기까지 불과 2년밖에 여유가 없었다. 당초



포항공대 개교 (1986.3.3)

주택단지를 대학부지로 전환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했고 관련관청들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승인받고 해명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예정부지도 37만평으로 축소되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김호길 학장과 이대공 본부장은 미국 등 해외주재 과학자들과의 간담회를 열며 총 439명을 만나 개교 시까지 68명의 교수를 초빙했다. 마스터플랜 대로 건설공사와 신입생 유치 등 급물살을 탔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대학교 개교를 짧은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었다. 이것 또한 포스코 특유의 글로벌 기업다운 저력을 보여준 기적이었다. 이처럼 포항공대의 개교와 발전은 사립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 우리나라 대학의 미답의 지평을 열었다.

## 6. 재단 분리

당시 포스코교육재단은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제를 갖춘 대단위 사학재단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포항공대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가 추구하는 보통교육과는 설립취지가 다른 특수한 교육목표, 운영의 전문성, 국가 과학기술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이하 학교와는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1995년 9월 21일 가칭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 설립이 사회에서 고교이하 14개 학교를 운영할 새로운 법인인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을 신설하여 경영을 분리키로 의결하였다. 또한 포항공대는 기존 법인에 존속시키게 되었다. 1995년 11월 29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이하 14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1996년 3월 1일부로 '포철교육재단'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교육의 국제개방, 당시 새로이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등 급변하는 새로운 교육사조에 부응하고 사학의 자주성,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기도 하였다. 2002년 9월 1일 포철교육재단은 '포스코교육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 전경

## 7.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운영

정부는 고교 다양성과 사학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를 검토하고 2002년부터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의 6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2010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광양제철고등학교가 2011년 기숙사를 완공하고 포항제철고등학교도 2012년에 기숙사를 완공하면서 신입생 모집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입생 선발자율권 외에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 특성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는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대학입시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포스코 패밀리사 임직원 자녀의 교육복지 증진과 송도국제도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포스코교육재단의 세 번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탄생하였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재지정 여부는 5년 단위로 해당 교육청이 평가하여 교육부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지난 2019년 재단 3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재지정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다음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2024년까지 5년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실시단이 포항제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립형사립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05.6.24)

## 8. 노후시설의 대대적 보수

포스코교육재단 각급학교는 설립 초기 최신 시설과 국내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교육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문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게 됐다. 재단은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 후 2007년 8월 3일 포스코에 재단 주요 시설 투자 추정 소요액(171억 원)을 보고했으며, 당시 이구택 회장은 POS-A.C.에 재단 시설 상태 점검 및 투자 소요 조



새롭게 단장한 심기관

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POS-A.C.는 학교 건물 평균 19년 사용으로 인해 내용연수 경과, 냉난방 시설 미비, 옥외 경사면 붕괴 등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며, 투자 소요는 1단계 230억 원, 2단계 217억 원 등 총 447억 원이라고 보고했고, 2007년 10월 17일 포스코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시설 보수비 450억 원 출연을 심의, 승인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 개·보수는 재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재단 각급학교 구성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노후시설 특별 보수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161억 원이 소요됐으며, 2단계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224억 원이 소요됐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 변경, 공사 범위 조정, 장비 규격 및 수량 조정 등의 노력으로 공사비 65억 원을 절감해 실제 공사비는 385억 원을 집행했다. 주요 공사 내용은 ▲냉난방 시설(84억 원) ▲화장실 리모델링(51억 원) ▲창호, 도장, 바닥재(59억 원) ▲특별실, 인조 잔디구장 설치(48억 원) ▲방수, 운동장, 법면, 도로 포장(30억 원) ▲소방, 전기 취약시설 보완 및 노후 비품 교체(16억 원) ▲과학실·시청각실·어학실·주방 개조(17억 원) ▲심기관 재건(29억 원) ▲실내 야구연습장 보수 및 옥외 시설물 보완 등 (32억 원) ▲설계비·감리비(19억 원)이다. 공사는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 2월 노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교육재단 각급학교는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게 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졌다.

## 9. 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였던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최고의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제5차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선정됐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최고의 전문 기술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고교로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했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2012년까지 마이스터고등학교 인재상 설정 및 학교운영모델을 정립함으로써 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모집 학과는 철강기술과, 철강생산자동화설비과, 철강전자제어시스템과의 3개학과 180명이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세계적인 스마트 스쿨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2012년 3월 27일 포스코IC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내·외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2012년 7월 스마트 교수-학습 환경, 스마트 인프라, 철강 마이스터고 특성화 교육, 창의와 협력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상세 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2013년 2월까지 총 사업비는 36억여 원을 투입해 스마트 러



포철공고 스마트스쿨 준공 (2013.3.6)

닝 환경 및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및 통합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처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포스코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철강분야로 특성화한 학과로 개편하고, 포스코 및 포스코 패밀리사에 부합하는 철강제조, 철강가공, 철강공정설비 메인テナンス 영마이스터 육성 및 철강 산업 인재육성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실습동, 교실동, 기숙사 리모델링 및 첨단기자재 확충 등 대규모 H/W적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산학겸임교사 초빙, 교재개발, 학생교육활동 등 S/W적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2013년 3월 4일 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에 이어, 3월 6일 포스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학습 환경인 '스마트 스쿨 준공식'을 거행했다. 21세기의 새로운 교육환경인 스마트스쿨 구축으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 사회가 지향하는 안전한 학교, 참여와 소통, 정보 공유를 통한 개방적·도덕적·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로 탈바꿈하게 됐다.

## 10.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2011년 11월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패밀리사 임직원 자녀의 교육복지 증진과 송도국제도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포스코교육재단 측에 학교 운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도국제도시는 채드워 국제학교,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연세대 등 글로벌 명문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40년 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갖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들어서면 한층 더 교육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1년 12월 15일 인천시청에서 이대공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동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다음해인 2012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포스코교육재단,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며 학교 설립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12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시장, 인천교육감, 포스코교육재단 이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2013.12.11)

사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NSIC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12월 15일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약당사자간의 역할과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4월 10일 포스코건설은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설립 안을 이사회 의결하고, 5월 15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학교설립 계획서를 신청하여 6월 26일 학교설립계획서 승인을 받았다.

2013년 12월 11일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포스코건설 부회장, 인천시교육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D6-5/6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7) 건립부지에서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1년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5년 3월 1일 드디어 포스코교육재단의 세 번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및 입학식을 가졌다. 개교 추진반장을 맡았던 안중진 교장이 초대 학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첫 입학생은 포스코 임직원 자녀와 인천광역시 단위 학생모집을 통해 243명을 선발했다. 학교는 부지 면적 25,000㎡, 연면적 15,984㎡의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일반 학교에 비해 1.5배 큰 규모로 지어졌다. 또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맞게 교과동과 체육관 등 현대화된 교육시설이 갖춰지고, 자기주도형 학습을 위해 1인 1좌석 도서관이 마련됐다.



## 2. 연구풍토를 조성하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국내 최고 사학재단을 지향한 만큼 일반 사학은 물론 공립학교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운 선진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 중 하나가 교원연구위원회의 운영이었다. 인사이동이 적은 사학의 조직체와 개인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자극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연구위원회는 1992년 7월 20일 법인의 상설연구자문기관으로 각급학교 교원들로 구성되어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의 제2의 도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교육정책, 교육제도개발,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재개발, 학교경영평가 등을 연구 개발했다. 1999년까지 연구위원회는 40여 건의 연구를 수행했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18개 주제는 일반화 과정을 거쳐 각급학교현장에 적용되었다. 특히 청결, 윤리, 환경교육은 5개 초등학교가 주당 1시간씩 정규수업으로 진행하였고 가정과의 연계지도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4개교가 한국일보가 주최한 '아름다운 학교'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한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현장연구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대회가 있지만 참여교사의 대부분은 공립교사로 연구의 목적 또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들이 현장연구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현장분위기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연구풍토는 미흡할 수밖에 없

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학교원들의 매너리즘을 타개하기 위한 연구대회는 첫 회인 1991년에 호응도가 높아 현장연구계획서 77편이 제출되었다. 199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연구대회가 개최되어 당초의 목표였던 교원들의 연구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현장연구풍토조성은 선진사학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사립학교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정체성(停滯性)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사학재단이 소속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조직이나 대회에 참여하게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1999년까지 총 292편이 제출되었고 연구계획서가 통과된 것은 198편이다. 편당 연구보조비로 30만원을 지급했으며 입상자편수는 총 141편에 달한다.

2014년 7월에는 교사들의 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복한 학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상담 사례, 수업사례에 재단 산하 각급학교 22명(초10, 중6, 고6)의 교사가 자신이



2015 행복한 학교 컨퍼런스 (2015.12.18)



제1회 교원현장연구대회 시상식(1993.9.9)



교직원 혼불교육 (1993.)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상담 및 우수 교육사례를 발표했으며, 재단 산하 초·중·고 교원들이 참석하여 동료교사들의 교육 노하우를 관심 있게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교원들의 연수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을 위한 법인 기본연수가 있었다. 신입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직원과 포스코의 창업정신, 재단설립과 전학이념이 강조되었다. 또한, '혼 불' 교육으로 불리는 특별연수가 있었다.

### 3. 선진교육문화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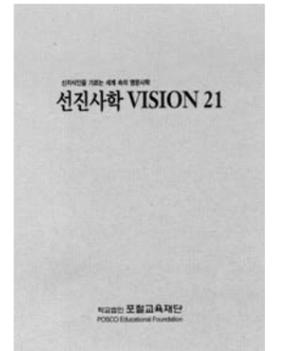
1998년 4월 14일 포스코교육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이대공 포스코 전 부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그동안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해 왔으나 포스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에만 전념키로 하였다. 또한 당시 유·초·중고등학교 1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사학재단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

1999년 5월 포스코교육재단은 '선진사학 비전21'을 선포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포스코교육재단이 추구해야 할 교육이념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추진 팀이 구성되었고, 7명의 교원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5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보고서를



선진사학 비전21 추진 선포식 (199.8.19)

작성했다. 국내외 유명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고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같은 해 8월 19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재단 산하 전 교원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사학비전21'의 선포식을 거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학교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학교문화와 교직원태도의 개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학생중심 교육풍토조성 및 학습 붕괴현상 예방 등 학교 책임 경영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들이었다. 특히 1학교 1특성화과제는 '선진사학비전21' 사업이 추구하는 가장 중점적인 과제였다. 소질계발교육, 진로교육, 유초중등의 연계교육, 동아리활동 등 학교별 특성을 살려가는 교육이 실현되면 포스코교육재단의 교육은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진사학비전21' 계획은 포스코교육재단의 미래상을 그려놓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동기부여와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법도 창의적인 발상과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이 계획은 2002년 과제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일반화 과정을 거쳐 종료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계속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여 계획을 보완하기도 하여 교육적 기대효과가 기대이상으로 컸다.



선진사학 비전21 책자

### 4. 교육연구원 설립 운영

어느 조직이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포석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도 새로운 세기를 향한 교육정책 개발과 제도를 개선하여 재단의 생존전략으로 '선진사학 비전21'을 내걸었다. 따라서 이런 선진사학비전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관리할 '교육연구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발족시킨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산하기구로 교육발전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상설 교육연구원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교원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분과별로 교육 연구활동을 추진해 왔고 재단 자체로 현장연구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위원회와 현장연구대회의 업무기능은 '선진사학비전21' 계획과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선진사학비전21'이 교육현장에 접목된 후 1999년 12월 6일 교원연구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교육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출범하였다. 교육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1인과 연구위원 3인으로 하고 1단계는 재단 산하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

였다. 연구원장은 김진원(당시 포항제철서초등학교장)이 겸임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우선 학교별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심의하여 학교교육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중점지도 요소를 추출했다. 재단 부문은 지식기반 조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최고 수준의 교원정책이란 목표 아래 경영지표관리, 소인수학급운영, 사이버스쿨운영, 영어교육환경 최적화, 특수학급 설치 운영, 교원급여제도 개선, 신 인사제도운영 등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학교 부문으로는 학교 문화와 교직원태도 쇄신, 특성 있는 학교운영, 학생중심 교육풍토라는 목표아래 교육백서 발간, 교수학습활동중심의 교원조직 운영, 학교 및 교원평가제 도입, 1학교 1특성화, 진로탐색교육 등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교사 부문은 투철한 교직원 확립,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연찬활동 강화, 문화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이란 목표아래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현장연구 활성화, 자율 장학제, 각종 연수제도 운영 등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학생 부문은 학습의 개별화, 민주시민 자질 향상, 다양한 체험활동,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영어 컴퓨터 교육, 토론문화 형성, 정직성과 세계성 함양교육 등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학부모 부문은 교육가족의 유대강화, 학습사회의 적응, PTA 활동 강화, 학부모자원 인력뱅크 운영, 평생학습자 양성 등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였다. 사회공동체 부문은 5대사회과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른바 환경파괴, 안전 불감증, 잘못된 장묘문화, 성비불균형, 지역감정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그 밖의 주요 과제로는 영어, 컴퓨터교육의 강화였다. 또한 학부모자원인력을 파악하여 학교교육에 투입하였다.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8개의 창의성 수업선도반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선진사학비전21'은 포스코교육재단의 고유한 학풍과 교육문화를 크게 선양하면서도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 5. 특별교육 시설 건립

포스코는 1980년 2월에 직원 가족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혜택을 수용하고 각급학교 시청각교육을 통한 산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까지 연주할 수 있는 888석의 대형 음악당을 개관하였다. 음악당이 건립됨에 따라 각급학교의 졸업식을 거행하고 학예발표회와 작품전시회, 각종 집회활동의 장소로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영화감상회, 음악발표회 등을 통해 한마음, 한 가족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으며 이것은 곧 학교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극장식 강당시설로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여 학원으로서도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형



교서관 전경 (1984)

적인 '스쿨 타운'의 역할을 다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유도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함양하기 위한 장소로 '교서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교서관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탐구와 폭넓은 독서를 통해 자아의 인격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종합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서공간이고 평생교육의 필수적인 문화공간으로 1982년 1월 30일 개관하였다. 교서관은 3만2천 여 권의 장서와 666석의 열람석을 갖춘 학교종합도서관으로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기본시설이었다. 또한 교서관은 각종 자료수집과 정보센터역할을 다했다. 교서관은 완전 개가식으로 운영되었으며 1983년에는 개관 후 10만 명 째 대출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심기관 개관(1982.10.31)

1982년 10월 31일 준공하게 된 체조전용체육관인 심기관이 개관하였다. 연건평이 935평이고 전용면적만 232평으로 국내에서도 유례가 드문 체조전용 실내 체육관이었다. 심기관 개관도 설립이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체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격조건에 가장 알맞은 운동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이사장은 동양권의 일본선수들이 세계 체조계를 석권한 점을 강조했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라 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심기관을 건설하였다. 이를 위해 우수 코치를 영입하고 완벽한 체조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전국 규모의 체조대회(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배)를 개최하기도 했다.

1982년 10월 31일 준공하게 된 체조전용체육관인 심기관이 개관하였다. 연건평이 935평이고 전용면적만 232평으로 국내에서도 유례가 드문 체조전용 실내 체육관이었다. 심기관 개관도 설립이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체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격조건에 가장 알맞은 운동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이사장은 동양권의 일본선수들이 세계 체조계를 석권한 점을 강조했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라 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심기관을 건설하였다. 이를 위해 우수 코치를 영입하고 완벽한 체조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전국 규모의 체조대회(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배)를 개최하기도 했다.

## 6.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학교 1특성화

포스코교육재단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였다. 각급학교별로 특성화된 주제를 선정하고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른바 '1학교 1특성화' 교육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특기교육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재단 산하 학교는 각급학교별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콘텐츠와 수요를 감안하여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였다. 각 학교가 선정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들은 당해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특기신장교육에 기여하고 교육계의 현안인 사교육비 경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교별 특기교육은 각급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일신하고 주체적인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즐거운 학교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1학교 1특성화' 교육의 결실로 학생들이 전국 주요 학력대회와 각종 경시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인 R&E(Research & Education)는 고교-대학 연계교육프로그램으로 포스텍 교수 등의 지도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광양제철고등학교는 특성화 주제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로 학습 플래너를 적용하고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대입진학에서 큰 성과를 냈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다기능 최고 기능인 육성'이란 특성화 주제로 컴퓨터, 로봇 등 다기능 교육에서 전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포항제철중학교와 광양제철중학교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란 주제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타고난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재단 산하 초등학교도 각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포항제철동초등학교는 '창의적 과학교육'으로 과학탐구대회, 과학논술교실 등을 개최하였다. 포항제철서초등학교는 '국제이해교육'으로 미국 일본 등 국제간 자매학교 교류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으며,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수학캠프 및 수학담당교사 연수를 통해 '수학교육'의



포철지곡 초사이언스페어 행사



포철공고 로봇동아리



포철고 과학특강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고 자타가 인정하는 수학 명문학교로 도약하였다. 광양제철초등학교도 차별화된 '독서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한국의 얼을 심는 교육'이란 이색적인 주제를 정한 광양제철남초등학교는 차예절, 민속놀이대회, 국악발표회 등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아울러 포항제철유치원에서는 리듬체조, 줄넘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광양제철유치원은 흙으로 접시와 컵, 액자 만들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인 습성과 도예솜씨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1학교 1특성화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마다 학부모와 지역민들을 초청해 특기적성 연합발표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5대 사회과제의 교육적 해결

포스코교육재단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병폐와 잘못된 관행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들은 '모든 사회문제는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0년 재단은 초등학교 교재로 개발한 『깨끗한 생활』을 발간하여 재단 산하 초등학교에 정규 커리큘럼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확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한질씩 배포해 활용토록 했다. 1992년 환경교재인 『엄마 지구가 죽어간데요』를 발간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환경보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활동은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대단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교육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가꾸는 일에 항상 앞장서왔다.

1998년 10월 28일 열린 포스코교육재단 학교장 간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제들을 선정해 포스코교육재단이 앞장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서 선정된 이른바 '5대 사회과제'는 환경파괴, 안전 불감증, 잘못된 장묘문화, 성비불균형, 지역감정 등이다. 이사장이 직접 5대 사회과제 해결 추진위원장을 맡아 과제 전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학교장들도 각 부문별로 추진본부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각 추진과제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책임자들을 위촉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다. 아울러 재단 산하 각급학교의 중견교사들로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자체로도 별도의 추진 팀을 조직해 능률적인 추진을 도모했다.

2000년부터 5대 사회과제추진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성비불균형 과제를 '저출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출생성비가 107.7로 정상수준에 근접한(정상 출산성비)반면 합계출산율은 1.08로 OECD 국가 중 최저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3%로 고령화 사회에 속해 저출산 고령화가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잘못된 장묘문화 과제는 초등학교에서 환경파괴 과제에 통합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적 접근 세미나 (1999.11.24)



재단에서 발간한 5대 사회과제 관련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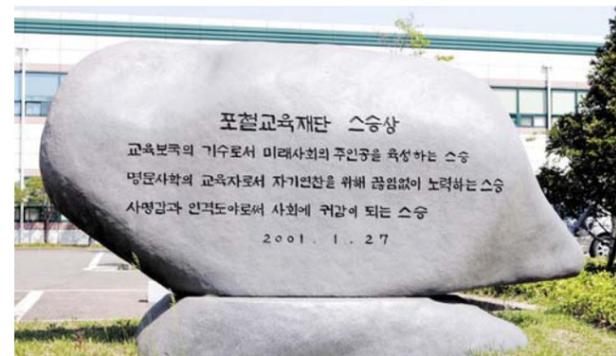
포철초 5대 사회과제 작품전시회 (2009.09.11)

교에서는 장기기증교육을 포함해 운영하도록 조정하였다. 2009년에는 5대사회과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롤링 플랜(Rolling Plan)을 통해 5대사회과제 영역을 환경과괴, 안전 불감증, 생명 존중, 저 출산, 지역감정으로 재설정하고 유·초·중·고 연계지도 가이드 북을 발간하였다.

### 스승존경운동 전개

1998년 이대공 이사장이 취임할 무렵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문에 '우리는 존지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붙이게 하고 교사를 존지나 받는 범죄인이나 개혁대상으로 몰아갔다. 이사장은 이때 교사는 개혁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각계각층에서도 가장 청렴한 곳이 학교라는 사실을 부각하며 역으로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더욱 신바람 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일은 바로 학부모와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각급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스승존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냈다. 스승존경운동이 사회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이런 스승존경운동은 2000년에 이르러 '올해의 포스코교육인상'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매년 재단 산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이 제도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고 사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2001년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존경운동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교사들의 실천덕목을 담은 '포스코교육재단 스승상 및 사도현장'을 제정해 큰 비석의 앞뒤로 새겼다. 스승상은 교육보국의 기수로, 자기연찬을 통해 사명감과 인격도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되는 스승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사도현장에서도 훌륭한 스승상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스승존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단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마다 '선생님' 주제로 글쓰기 공모대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포항, 광양 등 지역사회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년 이상 계속되었다. 아울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최우수 공모 작품을 단행본으로 엮어 『스승존경 하늘같이』(295면)를 발간하기도 했다.



포철교육재단 스승상 비



포철교육재단 사도현장 비

### 유·초·중·고 13년간 연계교육

포스코교육재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발견한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고등학교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재단 각급학교가 뛰어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이처럼 재단 차원에서 13년 간 연계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창의성, 인성, 독서, 수학, 과학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 · 창의성교육

포스코교육재단은 2001년부터 POSEF 창의학습 모형을 개발해 본격적인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POSEF 창의학습 모형은 2001년 재단 교육연구원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한 후 산하 각급학교에 방침을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DESK 모형을 적용한 창의학습과 테마체험학습, 프로젝트학습, 놀이집중학습, 토론학습이다. 2002년에는 체계적인 창의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창의가 보여요』, 2006년에는 『창의학습의 길잡이』를 발간하였다. 2009년에는 체계적인 창의성 교육을 위해 창의성교육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초등 창의교재 개발을 위해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교사 9명으로 구성된 창의교재 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1년 여간 연구개발 끝에 2011년 3월 초등 창의교재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용 교재 6권을 비롯해 교사용 지도서 6권 등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등 창의교재는 그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인정 승인(11.8. 8)을 취득하고 2011년 9월부터 출판사와 연계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였다. 11월에는 단위학교 최초로 개발한 창의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전국 학교에 공개하였으며, 그날 행사에는 멀리 제주도,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교사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창의·인성담당 장학사, 연구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서 출간 (2011)

· 인성교육

포스코교육재단은 2003년 인성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성교육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성교육의 제 요인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포스코교육재단 유·초·중·고 연계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였다. 효도, 예절, 질서, 정직, 청결,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을 기본 인성교육 내용으로 하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효도, 예절, 질서, 정직, 청결, 공동체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민주시민의식,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였다. 인성교육의 범주와 주요 내용은 실천위주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 체험중심의 예절, 효행, 자율 봉사활동, 내면화를 위한 훈화, 영상 매체 및 자료집 활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급, 학생회, 학교 행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성취감 부여를 위해 발표, 시상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며 재단 각급학교 졸업식에서 인성 우수학생에게 재단 최고상인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포철고의 경우는 고3 수험생 신분에도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준 학생이 인성 우수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은 1991년 인성교육과 생활환경 교육 지도 자료인 『바른가정교육』, 『깨끗한 생활』 교재를 발간해 지도를 해 왔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보문고와 출판 계약을 맺어 일반 서점에서 판매했다. 또한, 교육부에 인정도서 승인을 받아 1993년에는 500여개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선택하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2007년에는 재단 산하 각급학교에서 지도해 온 인성교육 자료를 엮은 『주체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육성』을 발간해 전국 교육기관에 무료 배부하기도 했으며, 관련자료 모두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독서교육

포스코교육재단은 어릴 적부터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2002년 12월 '독서교육 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4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 600권을 선정하는 등 독서 활성화 추진계획(Book! Book! Read Books 600!)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하고 있지만 포스코교육재단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어서 교육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재단 산하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00권의 권장도서를 읽도록 하고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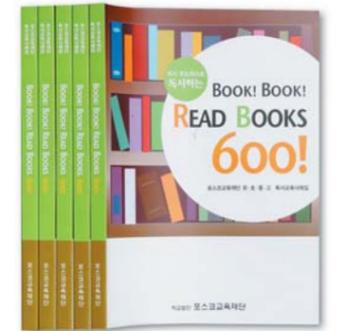


광철초 지리산 청학동 인성체험수련 (2004.07.13)



재단 포항지역 초등학교 독서골든벨 (2004.11.19)

개인의 독서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경우 독서수첩, 초,중,고의 경우엔 독서기록장을 작성하였으며, 학년별 권장도서 50권을 완독하였을 경우에는 독서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또한, 아침독서시간 및 독서주간을 운영하였으며, 독서골든벨, 독서토론, 독서 감상화 그리기, 동화구연대회, 달빛독서캠프, 문화관 탐방,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독서사례집

또한, 보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2008년 각급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독서사례집 『Book! Book! Read Books 600!』을 발간했다. 이론 위주가 아닌 현장의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교육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성과를 전국의 모든 학교와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독서교육사례집을 PDF파일로 만들어 포항제철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어느 학교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학, 과학교육

포스코교육재단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재단 산하 전 학교에 수



포스텍 생명과학연구소 청정실에서 마이크로칩을 만들고 있는 노벨꿈나무 과학캠프 참가 학생들 (2008.7.23)

학부를 편성, 체계적인 지도를 하였다. 특히 창의성 도구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수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토론식 수학수업 등 학생들의 창의성 및 사고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결과, 포스코교육재단 각급학교는 그동안 국내외 주요 수학경시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며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이러한 교육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공계 학문의 기초가 되는 수학교육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러시아의 저명 수학 교수를 직접 초빙해 초·중·고등학교 수학 우수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또한, 별도의 소인수 수학 영재반을 구성해 러시아 수학교수가 특별 지도 하였으며, 해마다 방학 중 수학캠프를 운영해 그동안 학생들이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 흥미와 창의적 사고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내 최고의 수학명문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한 나라의 과학 수준은 국력의 척도가 된다고 보고 과학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09년 5월 포스코교육재단 12개 각급학교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한 『노벨꿈나무가 자라는 학교』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이 책에 실려 있는 과학교육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포항·광양교육청, 포항·광양지역 초등학교, 전국 사립 초등학교 등지에 530부를 무료 배포했다. 이 책에는 일선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과학교육 프로그램과 적용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창



러시아 수학교수와 함께하는 광양지역 초등학교 수학캠프 (2009.7.23)

의적인 과학교육 실현에 고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은 과학 영재학생을 위한 과학캠프를 운영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 방학마다 6일간 포스텍과 공동으로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과학캠프를 벤치마킹한 “포스텍 교수와 함께하는 노벨꿈나무 과학캠프”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 다양한 예체능교육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산하 학교교육에 대한 기본체제를 전인교육에 두고 있고 특히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예능교육 지원에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심성발달과 예술성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산하 유치중고등학교의 학교별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왔다. 학교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예술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역을 비롯하여 연극과 동화구연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예능활동은 전인교육에 필요한 활동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체육교육도 모든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와 체육특기부 운영으로 이원화하여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각 급 학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여 육성해왔다. 조기에 우수선수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으로 장차 한국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로 육성되었다.

특히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우수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한국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각급학교별로 운동부 운영 실태를 보면 축구부는 포항제철초등학교와 포항제철중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야구부는 포항제철중학교과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체조부는 포항제철초등학교와 포항제철중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세계 유소년축구대회 4강, 2012년 세계 유소년 축구(Danone Nations Cup World Final) 우승,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 권혁, 강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06년과 2010년 아시안게임 체조에서 김수면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로 활동했거나 현재 축구 국가대표인 선수로는 이동국, 황희찬, 지동원, 김영광 등이 있다. 또한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음악출넘기는 2007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출



2012 세계유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포철초 축구부 (2012.9.9)



아시아음악출넘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포철초 음악출넘기부 (2007.2.16)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획득한 권혁, 강민호 선수를 환영하는 포철공고 후배들 (2008.9.2)

넘기선수권대회 우승과 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7회 세계줄넘기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 졸업식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바꿔

오래 전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학교의 졸업식이 눈물바다를 이뤘다면, 이후 밀가루 뒤집어씌우기, 옷과 모자 찢기, 교복 벗기기 같은 추태가 벌어져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포스코교육재단은 2000년부터 엄숙, 눈물, 난장판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나라 졸업식을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는 축제의 장으로 바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해방 이후 계속되어 온 엄숙한 분위기의 졸업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포스코교육재단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으로 꾸며 교육당국의 모범사례로 선정되고 여러 학교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였다. 축포가 터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졸업식은 축하연주, 댄스, 난타공연, 추억의 뉴스발표, 사제 어울림마당, 희망의 풍선 날리기, 행가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졸업생들이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재단 각급학교는 틀에 박힌 학교문화에서 벗어나 새롭고 참신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 형식의 광철남초 졸업식 (2006.2.16)

## 7. 우수 교재 개발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아동들의 청결과 정리정돈하는 습관, 자연에 대한 사랑과 환경보전정신, 올바른 예절과 행동양식 등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행 합일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989년 재단 산하 초등학교 교사 186명 전원이 참여하여 1년여에 걸쳐 초등학생용 청결, 윤리교재인 『깨끗한 생활』 등 13종을 개발하였다. 특히 『바른 가정교육』은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보면서 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였다.



재단에서 발간한 주요 교재들

1990년 9월 1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국내 언론기관인 보도진 2백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KBS와 MBC TV에서는 저녁 9시 뉴스를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교재 발간의 의미를 보도했다. 중앙일간지 등 36개의 신문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다루었다.



재단에서 국내 최초로 청결·환경 및 윤리 교재를 발간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태준 설립이사장과 내빈들 (1990.9.19)

1993년 12월에는 전국 5백여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재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올바른 인성교육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어서 초등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학습교재인 『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를 4만부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각종 사회단체 등 전국교육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함께 하나씩 실천해갈 수 있는 내용을 생활영역별로 그림과 함께 아주 재미있고 쉽게 꾸며 놓은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다. 1992년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용 영어교재도 개발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현행 영어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활동중심으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1995년에는 2년여에 걸쳐 『어린이 한자』교재도 개발하였다. 『어린이 한자』 교재는 김인정 교재로 채택되었고 대한교과서에서 출간하여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2010년에는 두 번째 한자 교재 『한자도 배우고 급수도 따고』를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교사 9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이 1년여 간의 연구 개발 끝에 초등 창의 교재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서』를 발간하여 매주 1시간씩 정규 교과시간에 창의성 수업을 진행했다. 2011년 11월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수업을 전국에 공개하기도 했다. 초등 창의교재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 승인을 받았으며, 출판사와 연계해 전국 학교에 보급되었다. 그 외에도 2014년에는 포스코교육재단 인성교육프로그램집인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발간하였다.



재단 비전 선포식 (2013.9.10)

## 8. 재단 비전 선포

디지털시대,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국내외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은 창의 융합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스코교육재단은 2019년 5월부터 세계적인 컨설팅그룹인 보스턴컨설팅 그룹(BCG)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프로젝트를 추

진하였다. 4개월여 간의 프로젝트 업무를 마치고 9월 10일 재단 체육관에서 이사장, 교직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에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글로벌 안목을 갖고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글로벌 일류 시민'으로 정의했다. 또한 '행복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 진로를 파악해 즐겁게 공부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저절로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교이며, 교사들에게는 참된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 임직원들은 재단과 학교 발전의 기여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세계 명문학교가 전인 교육을 위해 지향하고 있는 특징적인 기본교육 목표를 벤치마킹해 5대 기본 교육목표로 △지성 △인성 △시민의식 △스포츠 △문화·예술을 선정하고 여기에 포스코교육

재단 전체가 지향하는 △창의 △적성·진로 2대 중점 관리 목표를 추가한 7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급학교별 비전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슬기롭고 바르게 자라나는 행복한 배움의 터전”, 중학교는 “개인의 적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성장의 터전”, 고등학교는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행복한 도약의 터전”으로 정했다. 학교 급별 교육목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 인성, 중학교는 지성, 인성, 적성/진로, 문화 예술, 고등학교는 지성, 적성/진로, 스포츠, 세계시민의식으로 정했다. 특히, 국내 학생들의 부족한 소양 중 하나가 ‘시민의식(Citizenship)’인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책임, 참여의식을 배양해 나가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시민의식을 학교 차원에서 미래 비전으로 정해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 9. 전 교원 상담 교사화

포스코교육재단은 2013년 9월 ‘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과제로 ‘전 교원의 상담교사화’를 추진하였다. 전 교원 상담 교사화란, 교사가 상담 역량을 길러 학생들을 보다 더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끼를 찾아주고 꿈을 키우게 하며, 적성·진로를 파악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2014년 1월 포스코교육재단은 한국교원대와 ‘전 교원의 상담 교사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4명의 교수가 참여해 각급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의 기초이론, 학부모 상담, 진로 상담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2월에는 전 교사 대상으로 ‘상담교사 자격 인증제’ 시험을 치렀다. 당시 재단 산하 유치원 교사 23명, 초등학교 교사 132명, 중학교 교사 155명, 고등학교 교사 218명 등 전 교원 528명이 응시하였으며, 306명(58%)이 상담



전 교원 상담교사화 상호협력력을 위한 한국교원대와의 MOU 체결 (2014.1.14)



상담자격을 취득한 포철지조 교사들 (2014.3.13)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까지 전 교원 100% 상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150회(1회당 30분 이상·학생당 년 5~6회)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 기록 관리도 추진하였다.

또한, '행복한 학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상담사례와 토론교육, 학생활동중심 수업사례를 22명(초10, 중6, 고6)의 교사가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단은 교사들의 충분한 상담 시간 확보를 위해 교무행정사를 배치, 업무 매뉴얼화를 통한 업무 간소화 등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나가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매년 학교장 추천 및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올해의 상담 명인', '상담 우수교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상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 및 실행을 위해 가이드북도 발간하였다.

## 10. APEC 회원국 교육장관 및 대표단 재단 학교 방문

2012년 5월 21~23일 경주에서 열린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기간에 21개 회원국 교육장관 및 대표단 등이 포스코교육재단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 APEC 교육장관회의의 마지막 날인 23일 21개 회원국 장관 및 대표단이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으며, 국내외 학생 및 학자 등으로 구성된 APEC 교육행사 참가자 50여명이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를 방문했다. APEC 회원국 장관 및 대표단은 먼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영상 시청 및 학교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실습동으로 이동해 학생들의 실제 수업을 참관했다. 방문단은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학교 운영모델과 교육시스템 등을 보기 위해 각 3팀으로 나뉘어져 제철모형실,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공작실, 전산구조실의 수업 시연 등을 직접 참관했다. 또한,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를 방문한 APEC 교육행사 참가자 50여명은 먼저 학교 현관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창의성교육 및 특기적성교육을 보기 위해 특별실로 이동해 창의 수업, 태권도 수업, 국악 수업 등을 참관하고 1학년 수업과 음악줄넘기 공연 등을 참관했다.

한편, 포철서초는 행사기간 동안 APEC 교육장관회의의 부대 행사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참가학교로 선정돼 행사 관계자 및 참가자들에게 학교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박람회의 개막식 공연을 맡아 '전통과 현대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APEC 방문단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태권무, 사물놀이, 창작

동요 등을 무대에 올렸다. 교육 분야 최고의 회의인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에서는 개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APEC 21개 회원국이 참가해 지식보격차 해소 및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문제 등을 협의했다.



APEC 회원국 교육장관 및 대표단 포철공고 방문 (2012.5.23)



APEC 교육행사 참가자 포철지초 방문 (2012.5.23)

# III

## 재단의 재정자립도 개선

1. 포스코에 대한 재정의존도 축소 과제 안아
2.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수혜
3. 정부 보조금 수령 확대에 따라 교육 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 기준 적용
4. 포스코 주택단지 개방에 따른 비직원자녀 교육비 지원 요청
5.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
6.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통합
7.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단 재정자립화 추진

## 1. 포스코에 대한 재정의존도 축소 과제 안아

포스코가 국영기업일 때 포스코교육재단의 재정운영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포스코교육재단의 필요경비 전액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코의 민영화 이후에는 해외주주들의 입김이 드세졌고 학교출연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늘어났다. 포스코 기업공개 이후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일종의 기부 행위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9년 4월 30일 포스코 출연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영화대비 기부출연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있을 수 있으니 포스코교육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바로 재단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해외주주의 입김은 예상되었던 바이지만 국내 일부 사외이사까지 회사 이익금의 학교출연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교육재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비유되었고 언제까지 이런 누수현상이 계속될 것인가를 놓고 매년 포스코 출연이사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2006년 2월 7일 포스코 출연이사회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의 교육비 부족분에 대해 출연하는 현행 지원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며, 재단의 자생능력을 최대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처럼 급변하는 포스코의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재단은 재정자립도를 고민하게 되었고 다각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 2.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수혜

포스코교육재단은 정부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았고 포스코 출연금으로 운영하였지만 이런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로 자생의 길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3단계에 걸쳐 그 해법을 모색했다. 그 첫 단계로 교육당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하게 되자 2001년 11월 20일 의무교육에 따른 수업료결손금 보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경북과 전남교육청으로부터 2002년부터 3년간 35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 금액은 의무교육에 대한 중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이었다. 정부보조금 수령의 첫 단추를 꿰 셈이었다. 다음 2단계로 포스코교육재단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일반 사학재단들이 받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이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및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수령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단과 교육청과의 재정결함보조금 실무 협의 때 ‘부자 재단’이라는 이미지가 걸림돌이 돼 포스코 기업공개 이후 경영 변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서울시교육청 등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교육청 관계자를 설득해 결국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게 됐다. 양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는 의무교육, 공고는 산업인력 양성의 명목으로 2005년부터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나, 처음부터 타 사립학교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전액을 지원받지 않았고, 2~4년에 걸쳐 단계별로 확대해 공립 기준 교직원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100%를 지원 받았다.

### 3. 정부 보조금 수령 확대에 따라 교육 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 기준 적용

포스코교육재단은 재정결함보조금 수령으로 재단 및 학교 운영도 교육청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포스코 지원만으로 운영될 때는 교육청 운영 기준과 달라도 문제가 없었으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재단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교육청의 감독이 강화됐고 교육청 운영기준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해인 2006년 1월부터는 직원 직급 및 급여체제도 공립 기준으로 전환했다.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직원 급여체계를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직원 직급 및 급여체계 전환’에 대한 용역을 의뢰, 직원 개인별 공립 기준 직급, 호봉을 책정하고 공무원 인사, 급여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전 직원 대상 설명회와 동의를 얻어 시행했다. 아울러 교육부 전산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재단과 학교의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자체 ERP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인사·학사업무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2010년부터 예산·회계·자산관리 등 재무업무를 처리하는 에듀파인(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을 정부지원금 수혜학교는 의무 사용토록 법제화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개통된 종합 업무포털인 업무관리시스템(메일/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전 학교가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및 구매 시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

### 4. 포스코 주택단지 개방에 따른 비직원자녀 교육비 지원 요청

2009년 포항 주택단지의 전면 개방으로 인해 비직원 자녀가 늘어나 전체 학생의 43%나 됐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설명해 2010년 포항 3개 초등학교의 비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 60%를 지원 받았으며, 전라남도교육청도 2011년부터 광양 2개 초등학교 비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 50% 지원을 확정했다.

이처럼 포스코교육재단 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납입금 징수 없이 포스코 주택단지 학구내 포스코 직원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립학교의 역할을 대행함에 따라 비직원자녀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을 확대하고 직원자녀에 대해서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포항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0년 비직원자녀 비율은 60%, 2011년 비직원자녀 비율의 80%, 2012년부터는 비직원자녀 비율의 100%를 지원 받았다. 또한 2014년부터는 직원자녀에 대해서도 20%, 2019년부터는 50%, 2020년부터는 75%를 지원 받았다.

광양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비직원자녀의 경우 2011년 50%, 2012년부터는 100%를 지원 받았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직원자녀에 대해서도 20%, 2019년부터는 50%, 2020년부터는 75%를 지원받았다. 아울러 목적사업보조금 수혜도 확대하였다.

#### 재단 학생·교원수 변화

연도별 학생 / 교원수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학생수	10,634	10,013	9,544	9,023	8,643	8,491	8,462	8,486	8,404	8,262	8,181
교원수	576	549	539	531	533	555	571	582	576	579	566

연도별 직원자녀 비율

연도	'05년		'10년		'15년		'19년		'20년	
	전체	직원자녀	전체	직원자녀	전체	직원자녀	전체	직원자녀	전체	직원자녀
전체	13,725	10,926 (80%)	10,634	6,941 (65%)	8,491	4,692 (55%)	8,262	3,501 (42%)	8,181	3,380 (41%)
포항	7,934	5,633 (71%)	6,387	3,417 (53%)	5,536	2,675 (48%)	5,407	2,078 (38%)	5,489	2,079 (38%)
광양	5,791	5,293 (91%)	4,247	3,424 (83%)	2,955	2,017 (68%)	2,199	1,214 (55%)	2,061	1,130 (55%)
인천	-	-	-	-	239	96 (40%)	656	209 (32%)	631	171 (27%)

재단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강당,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각종 목적지정사업 보조금 수혜도 적극 추진 하였다. 이처럼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 기업공개 이후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교육당국의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포스코 의존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갔다.

## 5.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

2009년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매년 포스코로부터 출연금을 기부 받아 10개가 넘는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운영형태로 적합하지 않아 재단의 재정자립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특히, 재단 내 학교들의 직원자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의 역할을 대행하는 상황에 따라 2015년 이후로는 포스코 이사회로부터 포스코교육재단의 재정자립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5년 포스코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 요청으로 2015년 11월 포스코경영연구소는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재단의 설립목적 재검점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담은 '포스코교육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2016년 5월 포스코 이사회에 보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해인 2017년 포스코교육재단과 포스코가 함께 재단 재정자립화 TFT를 구성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 및 학교 체제 재편,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조직 축소 등 운영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혁신 방안을 강구하였다.

## 6.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통합

국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이후 저출산 여파로 매년 16~20만 명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폐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주택단지 내 초등 학생수는 2005년 6,426명에서 2015년 2,521명으로 10년 사이 6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포스코 신입사원 감소와 직원 고령화에 따른 취학 학생 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한 취학자녀 가정의 단지 내 유입이 어려운 것도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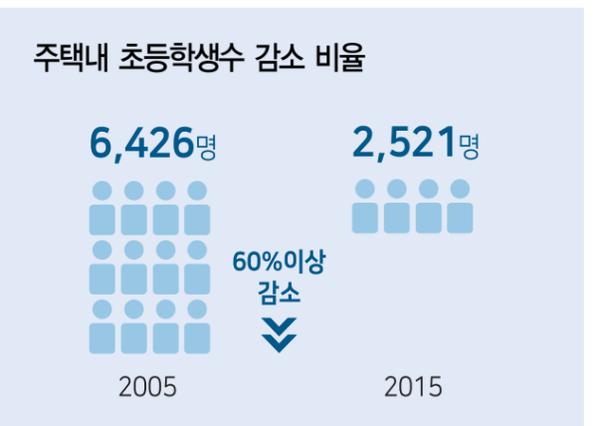


포철동·서초 통합 추진 협의회

이와 같은 상황에 2015년 포스코 이사회에서 포스코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재단 자립도 제고 요구와 아울러,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향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같은 학구 내에 위치하며 학교간 거리가 가까운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의 통폐합 등 자구노력 이행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2016년 5월 10일과 12일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통합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24%의 찬성으로 학부모 2/3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합 추진이 부결되었다.

이후 재단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 및 교육청 지원금을 통한 시설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효과 등을 들어 지속적인 학부모를 설득 전에 나섰다. 2016년 12월 13일 학부모 요청에 따라 학교 통합추진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찬성 82.8%



를 획득하여 학교 통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곧바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통합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2월에 포항제철서초등학교를 폐교 및 통합이 승인되었다.

이후 재단 이사회를 통해 기존 두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교명이 필요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학교인 포항제철동초등학교의 교명을 '포항제철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해 4월 재단 이사회를 통해 교명 변경 추진을 의결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 교명 변경 신청을 추진하여, 2학기부터 포항제철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교명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통합 학교인 포철동초의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1학교 2캠퍼스 체제로 운영하였으며, 2018년 3월에 실질적인 학교 통합이 성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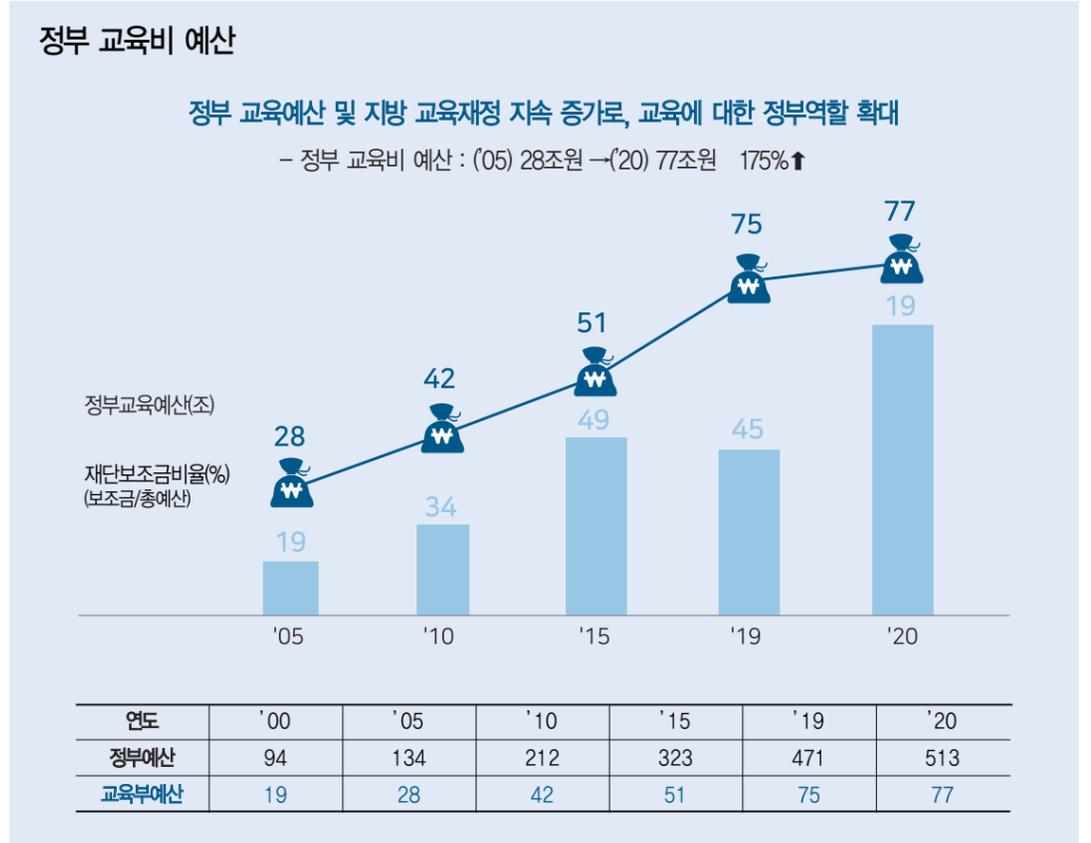


포철서초 폐교 인가서

포철서초 교명변경 인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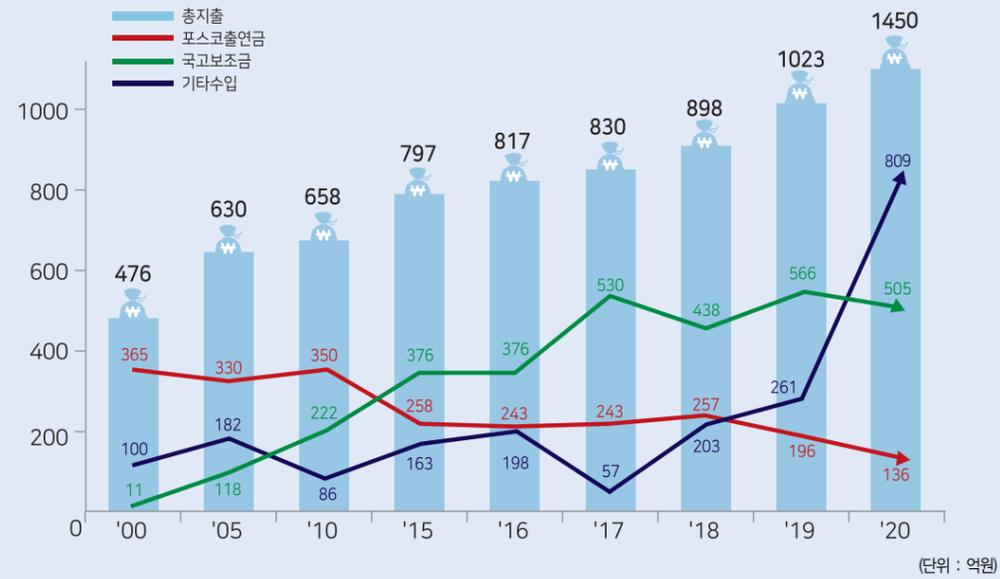
## 7.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단 재정자립화 추진

포스코는 설립 초기 공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포항, 광양지역에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우수 직원 유치와 직원자녀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교육재단을 설립 운영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을 이루며 과거 미약했던 국가 교육재정은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교육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거의 모든 사학재단 역시 그 운영의 대부분을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국내외 산업 환경은 1997년 IMF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부침이 계속되어 왔다. 그나마 영향이 덜했던 철강 산업마저 글로벌 M&A, 중국 철강사의 질적, 양적 급성장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구조적 공급과잉과 장기적 저성장 하에 극한적인 글로벌 경쟁 체제에 접어들었고, 포스코 또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과 수익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다.



재정자립화 추진 전 교직원 설명회 (2019.11.21)

### 재단 재정운영 규모



구분	'00	'05	'10	'15	'16	'17	'18	'19	'20
총지출	476	630	658	797	817	830	898	1023	1,450
포스코 그룹 출연금	365	330	350	258	243	243	257	196	136
국고보조금	11	118	222	376	376	530	438	566	505
기타수입	100	182	86	163	198	57	203	261	809

※'15년 이후 인천포스코고 포함

①인력 슬림화, ②특색프로그램 효율화, ③운동부 운영효율화, ④자사고 운영효율화, ⑤특별수당 축소 등의 5대 과제를 검토하였고, 재단차원의 정부지원금 확보 등 수입확대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단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교직원 대표가 참여한 5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포항, 광양, 인천지역별 전 교직원 대상 설명회, 학교별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화 추진에 대한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의 재정자립화는 단순히 포스코의 출연금 축소를 떠나, 매년 포스코의 출연금을 기부 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운영 형태로 적합하지 않아 환경변화에 맞는 보다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선 순환적 재단운영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재단 학교의 내실을 꾀한 경영합리화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포스코의 경영환경 변화는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외부 전문 컨설팅 결과, 재단의 재정자립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재단 내 직원자녀가 지속 감소하면서 공립학교 역할을 대행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포스코 사외이사로부터 재정자립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포스코교육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포스코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재단 재정자립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9년 9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출연금을 지속 감축하는 방향이 최종 결정되었다. 2019년 180억 원, 2020년 120억 원, 2021년에는 70억 원으로 급감하는 출연금에 맞추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재단 및 각급학교 교직원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감소된 예산규모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 추진방안을 설정해나가는 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정자립화 방안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지출 축소 / 수입확대 / 구조개선의 3개 실행영역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지출축소를 위해 학교와 함께

# IV

## 포스코교육재단의 위상과 교육성과

- 1.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 2. 지방 역류 모델 제시
- 3. 기업시민 POSCO와 함께 하는 포스코교육재단

## 1.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재단 각급학교는 지역 교육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대학 진학 및 각종 경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지역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재단 각급학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계와 전국 주요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전남지역 교원 연수 때 견학 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인성·독서·창의성교육과 수준별 이동수업 등은 교육력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로 제공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 각급학교가 위치한 포항 효곡동과 광양 금호동은 포항·광양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자녀교육이 안정됨에 따라 포스코와 패밀리사 직원이 단신 부임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때문이다. 효곡동과 금호동의 세대당 인구는 각각 3.45명과 3.37명으로, 전국 평균(2.88명)과 경북·전남 평균(2.64명)을 훨씬 상회한다. 이로 인한 지역의 경제발전 효과가 연간 1227억2700만 원인 것으로 2008년 10월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과 광양이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선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유·초·중·고등학교 13년간의 연계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탁월한 교육실적을 거두며 우리나라 교육의 모범을 만들어왔다.

A14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제27158호 동아일보

### 구미시 “포항제철고 같은 명문사립고 설립하자”

#### 교육환경개선안 시의회 제출

경북 구미시에 명문 사립고를 설립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미지역 각계 전문가들의 모임인 '구미미래연구회'는 18일 '포항제철고를 모델로 하는 명문 사립고를 설립하자'는 성명을 내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산업도시 구미에 명문 고교가 없어 우수한 초중학생이 대구 등지로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정주(定住)여건이 나빠져 지역 내 대기업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녀를 데려오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연구회는 성명서에서 “구미시가 구상하는 강원 황성의 민족사관고 모델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

다. “포항제철고의 경우 전국적인 명문교이면서도 포항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또 “구미에는 경북외국어고가 있지만 모집정원이 150명으로 적은 데다 자연제일이 없는 점 등으로 지역 중학생들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우선 구미의

초중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교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올해 7월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 받아 민족사관고 같은 명문고 설립을 구상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구회 임은기(53·금오공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회장은 “구미시가 '1등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호 기자 boriam@donga.com

## 2. 지방 역류 모델 제시

박태준 설립이사장은 포항과 광양이라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유·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지방화 시대를 선구적으로 개척했다. 설립이사장의 이러한 시도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실제로 교육 지방화의 성공 모델이 된 포스코교육재단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된다면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게 될 것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환경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수도권 또는 대도시 인구의 '지방 역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조기 해외유학 수요를 재단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흡수한다는 계획이었다.

## 3. 기업시민 POSCO와 함께 하는 포스코교육재단

### 교육나눔 일환 지역거점 '공동 교육과정' 강좌 운영

포스코교육재단은 With POSCO 실현을 위해 교육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포항제철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학교 간 긴밀한 협력과 협조 속에서 함께 교육성장을 꾀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공동교육과정은 학년 지정 또는 무학년제로 운영하였으며, 일반고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전문교과 및 심화교과목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교과 선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진로, 직업 연계 교과목 등을 개설하여 포항지역 내 인근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교육재단은 수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입시경향 파악에 어려



포철고 공동 교육과정 강좌 운영

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다 폭넓은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시 비결 등 그동안 쌓아온 포스코교육재단의 입시 노하우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무료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하기도 했다.

### 한인 자녀, 해외입양인 초청, 한국문화 체험의 장 열어

포스코교육재단은 2013년부터 매년 포항제철치곡초등학교에서 해외입양인 초청 행사를 갖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미국 내 한국계 입양인들에게 모국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단은 명예교사증을 받아 1일 명예 교사로 참여해 포철지초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며 교류의 기회를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성을 배우도록 하고 입양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포항제철초등학교와 포항제철유치원은 오uckland 한국학교 학생을 초청해 모국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수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한인 자녀 학생들에게는 모국의 학교생활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단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에게는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재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헌 활동

재단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자신의 소중한 재능을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



포스코 창립 50주년기념 특별 음악회를 개최한 재단 유소년오케스트라 (2018.10.25)

다. 2018년 10월 25일에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개교 당시 53인조 브라스밴드로 발족하여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광양제철초등학교 관악합주단은 매년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여름·겨울 방학 캠프, 작은 음악회, 지역행사 협조, 현충일 추념식 행사 지원, 유럽 순회 연주 행사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예술성 향상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정규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적 스킨십을 통해 자기개발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협동심과 인내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기 연주와 나눔 연주 등 지역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배려와 나눔, 사회참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우수 교육노하우 지역 및 전국 학교에 공유

포스코교육재단은 다양한 선진교육의 노하우를 지역 및 전국 학교에 공유하고 있다. 1992년에는 환경학습교재인 『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각종 사회단체 등 전국 교육기관에 무료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용 영어 교재도 개발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또한, 러시아 수학교수가 지도하는 방학 중 수학캠프, 영어캠프, 체조 캠프 등에 지역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년에는 재단 산하 각급학교에서 지도해 온 인성교육 자료를 엮은 『주체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육성』을 발간해 전국 교육기관에 무료 배부하고 관련자료 모두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독서사례집 『Book! Book! Read Books 600!』을 PDF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해 어느 학교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단위학교 최초로 개발한 창의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전국 학교에 공개하기도 했다.



광양지역 초등 수학캠프 (2015.1.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포철중 영어캠프 (2009.1.13)



인천포스코고 금강송공원



포철지초 맨발걷기 활동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글로벌 시민교육

· **금강송 식재를 통해 주민에게 숲이 있는 공원 제공**

인천포스코고등학교는 학교 옆 부지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교목인 금강송을 식재하여 금강송 공원을 건립하였다. 금강송은 울진군으로부터 개교 첫해인 2015년에 155주를 2016년에 175주를 2017년 253주를 총 583주를 기증 받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식재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금강송에 자신의 꿈을 적어 매달았다. 20년 후 모교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꿈과 함께 성장한 나무를 바라보도록 기획된 행사였으며,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는 숲이 있는 공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시설 개방**

포스코교육재단 각급학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급학교의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운동장가에 황톳길을 만들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과 야간 조명시설까지 별도로 설치, 마련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공유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재단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지역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에서 누구나 돌발적인 사고에 직면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자는데 취지를 두었다.

·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과 글로벌 시민교육 캠페인 진행**

포스코교육재단은 2012년 7월 10일 재단 내 화상회의실에서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과 함께 한 글로벌 시민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단 산하 12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성금 3천1,374,200원을 '기아대책' 에 전달했다. 성금은 그 해 8월 재단 소속 교사 및 포항제철중·고등학교, 광양제철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해 우물기증식과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사용되는 등 제3세계 기아지역의 수자원 개발에 쓰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2009년에도 각급학교 학생들이 모은 성금 3천 여 만원을 '기아대책'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기아대책과 함께 재단 산하 학생을 대상으로 포스코에서 후원한 긴급 구호 차량 '희망스쿨버스' 를 활용한 '글로벌시민교육-제3세계 기아대책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기아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굶주린 이웃들의 현황과 아동노동, 환경파괴에 따른 물 부족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와 드림노트 만들기, 인형극 관람, 희망의 메시지 쓰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식수를 구하러 2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다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처럼 물통 옮기는 체험을 비롯해, 진흙구기 만들기 등을 체험해보며,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을 함께 돕자는 마음으로 기아대책에 나눠준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에 동전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 **초등 철강교과서 개발, 철강협회를 통해 초등학교 전파**

포스코교육재단은 2020년 11월 재단 산하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로 집필위원을 구성해 초등 철강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철강협회(회장 최정우)의 지원으로 추진된 철강교과서 개발 프로젝트는 2020년 4월 28일 교재 개발을 위한 편찬위원회 출범과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집필위원 5명(위원장 김헌수), 철강협회, 포스코, RIST, 현대제철 소속 편집위원 6명과 한정환(금속학회장, 인하대), 이준호(고려대), 이향근(서울교대) 교수 등의 전문가 감수 참여로 진행되었다.

철강교과서는 생각 깨우기(도입), 생각 펼치기(토론), 생각 다지기(정리) 순으로 9개 단원 52쪽으로 만들어졌으며, 초등 사회, 실과, 과학교과 등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구성은 크게 3장으로, 1장 '인류역사와 함께 한 철' 단원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함께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였고, 2장 '지구 환경에 이로운 철' 단원은 얇고 단단한 철, 슬래그 활용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3장 '아름답고 신기한 철' 단원은 철로 된 예술작품소개, AI시대 제철소, 철의 미래를 다루었다.

만화, 퀴즈 등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속에 모두 담지 못한 내용은 QR코드로 검색하여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심화학습을 하고, 실험이나 만들기 영역은 실험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강교과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용이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9시간 정도 적용하게 된다. 철강협회에서는 우선 2021년부터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4개 초등학교 5,6학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철강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시도 지자체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 철강교과서 개발 편찬위원회

글로벌 일류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

## 학교사

### 유치원

포항제철유치원    광양제철유치원

### 초등학교

포항제철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광양제철초등학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 중학교

포항제철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 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 Pohang Jecheol Kindergarten

포항제철유치원





# I. 설립 및 개원

포항제철유치원(설립 당시 지곡제철유치원)은 포항시 지곡동 포스코의 신 주택단지 건립계획에 따라 조성되었고 원아 장기수용 능력을 검토하여 1995년 3월 1일 8학급 규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곡동(479-2번지) 9,256㎡의 부지에 세운 유치원은 철골조 건물로서 포스코에서 생산된 강재를 건축자재로 이용하였다. 4월 7일 2학급의 원아와 함께 개원식 및 제1회 입학식을 가졌으며, 초대 원장은 효자제철유치원의 김영설 원장이 겸임했다. 이후 1999년 6월 24일 6학급을 증축 준공, 증설 인가를 받아 신단지에서 2Km 남짓 떨어진 효자제철유치원으로 통학하던 원아들을 모두 수용하여 1999년 9월 1일 14학급 규모의 현대적인 유치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곡제철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 (1995.4.7)



지곡제철유치원 준공식(1995.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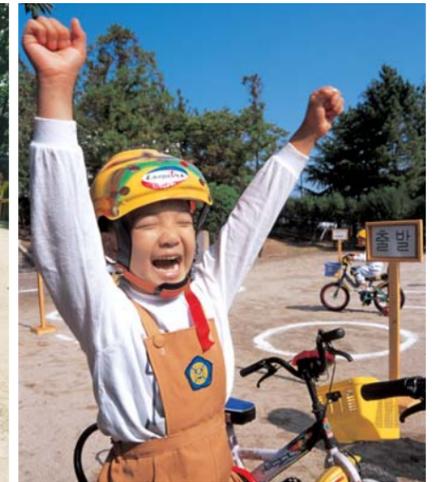
# II. 주요 발자취

## 1.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효자·지곡제철유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면허제도’라는 독특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1999년 6월 30일 ‘지역사회를 고려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효자제철유치원이 연구시범운영보고회를 가진 이후 2000년부터 효자·지곡제철유치원이 함께 특성화 교육으로 지정하여 발전시킨 이 프로그램은 연간 교통안전 교육내용을 자전거 타기 활동과 통합하여 교통안전이 내면화되도록 돕는 것으로써 그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 지역사회는 물론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어린이 교통안전면허 시험장



자전거 면허시험을 통과하고 기뻐하는 어린이

## 2. 효자·지곡제철유치원의 통합

1980년대 중·후반 520명에 이르렀던 효자제철유치원의 원생은 저출산 및 포스코 직원 감축 등과 맞물려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47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결과 포스코교육재단 제1호 학교로 1971년 9월 15일 개원 이래 총 8,5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효자제철유치원은 35년 만에 안타깝게 폐원되었고, 지곡제철유치원은 효자제철유치원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기자재, 교재 교구를 수용하여 2006년부터 포항제철유치원으로 원명을 변경하고, 포항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효자제철유치원 토지와 건물은 포스코에 매각하여 포스코 직장보육시설로 변경되었다.

### 3. 교육환경의 선진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건물을 타원모양으로 설계하였으며, 건물 한 가운데 마련된 'O' 모양 정원,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돕는 많은 투명창과 유리벽, 교육 주제 관련 자료들과 어린이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면 게시벽, 지체부자유자를 배려한 경사로, 안전을 고려한 미닫이문 등 모든 구성원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하였다. 방송을 위한 최신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과 공연을 위한 조명, 식물환등기, 높이조절 스크린, 그림자극 유리 막, 원내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다양한 시청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개원 당시에 최신 기종 컴퓨터를 구비한 전산교육실을 마련, 원아당 주 1회, 1시간 수업을 실시하였다. 볼풀장과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육놀이기구를 구비하여 체계적인 체육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유아들의 심신발달과 성장을 위한 체육장, 놀이터, 둘레길, 잔디밭을 조성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 4.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접목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성·자율성·다양성·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영향으로 교육에서 개성, 창의성, 감성, 사회적 관계능력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외국의 유아교육과정이 아주 빠르게 도입, 현장에 적용되었고,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교육프로그램이 공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2001년부터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기존 교육과정에 접목하게 되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어린이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그룹을 통한 연구, 일상에서 프로젝트로의 발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등을 통해 실현하는 어린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5. 종일반, 만3세반, 만4세반 운영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도입 등으로 학부모들의 호감과 신뢰가 높아지고, 맞벌이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4세반과 종일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2008년부



게임집 만들기 놀이수업



야외 놀이수업



중정(하늘공원) 놀이수업

터 중일반, 2010년부터는 만4세반, 2012년에는 만3세반을 신설하였다.

### 6. 통합적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도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및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협력능력, 창의력, 감성능력, 인지적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수준 누리교육과정에서 2019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포항제철유치원은 어린이가 경험하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놀이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유치원 실내·실외 환경에서 변화 가능한 통합적 놀이를 지원하며, 놀이과정에서 관찰한 어린이의 개별 특성을 과정 중심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 III. 주요 교육 활동

### 1. 어린이 중심 연구활동 및 프로젝트수업

2001년 도입된 레지오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 및 발전시켜 왔다. 특히 어린이의 일상을 중시하며 놀이시간 동안 어린이가 공동체 안에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놀이와 일상에서 발견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탐구하고, 토의·토론 과정을 거치며, 공동·소그룹·개인 연구활동을 통해 수행과정 평가 및 지식 공유, 결과 발표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수업은 포항제철유치원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 2. 공동 프로젝트 발표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한 과정 및 결과물들을 소개하는 공동 프로젝트 결과 발표(어린이 전시회)는 2006년 11월 2일에 처음 시작되어 포항제철유치원



누에 관찰수업



설치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린이들

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들에 의해 계획, 진행, 소개되는 이 행사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협력 체제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빛과 시간, 수(數), 도시, 글자, 자연, 남자와 여자, 평화, 삶, 우리도시 포항, 감사, 우리가 좋아하는 순간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 3. 연령별 건강지킴이 활동

건강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조, 산책, 기구놀이, 전통놀이를 포함한 연간 신체활동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걷기운동을 강화하여 신체 및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으며, 만3세는 '나는 달리기왕', 만4세 '나는 홀라후프왕', 만5세는 '나는 줄넘기왕' 등 연령에 적합한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4. 우리는 안전지킴이 활동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연령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캠페인 일환으로 실시되는 거북이마라톤 대회는 유치원 주변을 돌며 도보교육 안전수칙 익히기, 교통 표지판에 흥미 갖기, 지역 주민들에게 '천천히, 한 번 더, 조심조심' 구호 홍보 등으로 유아기 안전의식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의식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학급 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일상속의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 5. 나눔 중심 인성교육 활동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With A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 나눔, 교사 나눔, 가정, 지역사회, 지구촌과 함께하는 나눔이 있다. 재능기부 공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방문, 행복 나눔 바자회, 아나바다 장터, PTA학부모 자원봉사의 날 운영, NGO와 함께하는 나눔 교육 참여, 고통 받는 지구촌 가족 돕기 나눔 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등 나눔 중심의 인성교육과 아울러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6. 몸과 마음을 키우는 자연놀이 도입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자연놀이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였다.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하여 실외 유치원 둘레길, 잔디밭, 모래놀이터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자연환경에서 풍부한 색감, 다양한 촉감, 변화에 대한 민감성, 생명존중, 창의적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넓은 운동장, 모험놀이터, 복합놀이기구, 둘레길 등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유아기 신체 성장을 돕는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 공간에서도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놀이실을 새롭게 갖추었다.

## IV. 주요 교육성과

포항제철유치원은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초교육 기관으로서 교육과정 모범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선도적 역할과 유아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2015년 경북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공모전 우수상, 2016년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경북 최우수상 및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및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유공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V. 기타 현황

원훈	성실한 어린이, 명량한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교표	 <p>1971년 개원과 동시에 제정하였다. 하늘색 바탕에 무궁화 꽃이 있고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제철유치원'에서 따온 3개의 'ㅈ'을 울타리로 하여 가운데에 '유치원'의 첫 글자인 '유'자가 놓여 있다. '유'의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린이가 두 팔을 높이 들어,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p>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15,541명(2021년 1월)
주요 연혁	<p>1995. 02. 28. 유치원 준공식, 설립 인가                  1995. 04. 07. 지곡제철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                  2006. 03. 01. 포항제철유치원 원명 변경                  2015. 11. 12. 경북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16. 09. 01. 유치원 조리실 준공 및 오픈식                  2016. 12. 12.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6. 12. 12.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경북 최우수상 수상                  2017. 12. 31.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유공 교육부장관상 수상</p>

# Gwangyang Jecheol Kindergarten

## 광양제철유치원





## I. 설립 및 개원

포스코교육재단은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공립 금도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개원토록 하여 1985년 2월 말까지 주택단지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잠정 조치하였다. 1985년 신학기부터 사립으로 운영키로 하고, 1984년 4월 9일 4학급 규모의 유치원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1985년 1월 16일 광양교육청으로부터 2학급 설립인가를 받았다. 광양제철유치원 초대 원장으로 광양제철초등학교 전권 교장을 겸임 발령하였으며, 1985년 3월 5일, 박태준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또한 1988년 6월 1일 광양제철남유치원을 금당동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의 중앙부 13,497㎡의 부지에 착공하였다.

1989년 2월 1일, 초대 원장에 광양제철초등학교 이강희 교장이 광양제철남유치원 원장으로 겸임 발령받았다. 1989년 3월 8일, 정명식 포스코 사장, 광양시 교육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남유치원 개원식을 가졌으며, 다음날인 3월 9일 입학식을 치렀다.



광양제철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1985.3)



광양제철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1985.3)



## II. 주요 발자취

### 1. 시설 확장

광양제철소의 시설 확장에 따라 원아수도 증가하였다. 기존 광양제철유치원 원사가 협소하여 1986년 3월 14일 본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부지면적 9,914㎡ 4개의 교실과 특별실을 추가하여 1987년 1월 31일 완공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 이르러 주택단지가 확장됨에 따라 다시 유치원 시설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4월 16일 목련연립 사이에 제2유치원 교사를 착공하였으며, 1988년 1월 31일 총면적 82,482㎡, 건물면적 1,673㎡의 6학급 규모의 2교사를 준공하였다. 또한, 1988년 6월 1일 광양제철남유치원을 금당동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의 중앙부 13,497㎡ 부지에 착공하였다.



## 2. 해양과학실, 과학놀이실 완공

원아들이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대한 탐구심과 바다를 이해하고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1987년 3월 해양과학관을 완공하였다. 해양과학실에는 갖가지 바다 관련 자료들이 11개 코너에 걸쳐 진열되었다.

제2교사 개원과 함께 문을 연 과학놀이실은 해양과학실의 과학적 특수성을 이어받되 해양과학관과 차별화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 탐구와 놀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울놀이·기어놀이·바람놀이·탄성놀이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연주놀이·구성놀이·블록작업장 등을 설치하였다.

## 3. 광양제철유치원 제2교사 폐원

2005년 2월 주택단지 원아 감소로 인하여 광양제철유치원 2교사와 1교사를 통합하여 2005학년도에 3학급을 운영하였다.

2교사의 옛 건물은 현재 주택단지 주민의 편의시설인 '러닝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 4. 광양제철유치원과 광양제철남유치원 통합

2006년 2월 15일 제21회 75명 원아들의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총 졸업생 5,054명을 배출했던 광양제철유치원은 폐원되고 광양제철남유치원과 통합되었으며, 광양제철남유치원을 광양제철유치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현재 광양제철유치원의 옛 건물은 포스코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 5. 유아중심·놀이중심교육으로 재도약

광양제철유치원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놀이 지원, 유아 관찰 및 기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놀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유아들의 놀이를 해석하고 가정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자연아, 같이 놀래?' '아이 좋아!' 라는 캐즈프레이즈를 걸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살린 놀이중심교육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놀이중심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교사 교육의 일환으로 '전래 놀이 연수' '숲 놀이 연수'와 같은 연수 등을 시작으로 교사들의 다양한 연구와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야외 놀이수업



홀라후프 이용 도구 활용 수업



협동 놀이수업

### III. 주요 교육 활동

#### 1. 자연친화 교육활동

광양제철유치원의 최고의 장점은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꿈꿀 수 있다.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찰력과 탐구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유아들은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 놀 때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한, 친구들과 여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친화 교육을 통해 원아들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교육활동은 유치원 가꾸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캠페인 등의 녹색성장 실천교육과 텃밭 활동, 동식물 가꾸고 돌보기 등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과 매달 한 번씩 '산책하기 좋은 날'을 정해 자연놀이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2. 연령별 도구 활동

광양제철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정도와 운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놀이(만3세), 훌라후프(만4세), 줄넘기(만5세) 등의 도구를 이용한 신체운동 활동을 한다. 연령별 도구 활동은 주제에 맞게 연계하여 진행되며, 도구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과 기본 운동능력 발달을 돕도록 하고 있다. 유아의 신체 및 운동능력과 흥미에 따른 놀이 중심의 적절한 교수 방법을 실시하여 활동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유아 주도의 활동을 통해 유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 3. 안전교육 생활화

365일 안전교육의 생활화를 통해 유아 스스로 위험한 주의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능력을 길러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매월 안전교육의 날을 추진하여 전문가 및 전문단체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피훈련 또한 매월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 퀴즈대회, 교통안전그림전시회, 소방안전 체험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쉽고 친숙하게 안전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놀이 교육활동



텃밭 관찰수업



노인요양시설 방문 동극 공연

#### 4. 창의성교육 활동

광양제철유치원은 창의융합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및 감성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 감성을 계발하고, 정서적 안정감 및 심미감 형성을 돕고 있다. 또한 창의성 발현을 위해 창의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활동 시간 및 환경을 보장하며, 유치원·가정·지역사회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아가 즐거움을 통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몰입의 날 운영' 음악 및 각 연령별 놀이주제에 맞는 명화를 선정하여 감상 및 표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연의 날'을 정해 동극, 인형극, 그림자극 등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공연 문화 기관과 연계하여 그림, 공연관람, 체험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연물, 교구,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탐구활동 등도 실시하고 있다.



설치미술 작업을 하고있는 어린이들

### 5. 인성교육 활동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 배려, 협력, 존중, 나눔, 효 등에 대한 덕목을 다양한 놀이 중심의 통합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기본생활습관 지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향상을 위해 장애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예절교육을 통해 올바른 행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굿네이버스에서 주관하는 '가족 그림 편지쓰기 대회'에 참가하고 '희망의 저금통'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6. 부모교육 활동

유아교육기관과 부모는 유아기의 발달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 및 가치관, 부모의 역할 등 그 기능들이 달라지고 유아교육기관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토대로 한 부모교육의 다양성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제철유치원에서는 가정과 연계·소통하고, 부모가 자녀교육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부모교육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아카데미, 학부모 대상 강연회, 학부모 재능기부 동화 구연, 공개수업,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홈페이지에 각 반별 놀이 교육과 일상을 게시하여 공유하고 학부모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 7. 행복교육 활동

유아들의 행복감을 키우고자 긍정적인 자기인식, 배려, 친구의 장점인식, 소속감, 공동체의식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행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인정받아 제3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에 선정되었다.

행복교육은 원아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교육적 유대감도 높였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호응까지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주요 행복교육 활동으로는 '버디(Buddy)활동'이 있다. 버디 활동은 형, 동생의 친구 같은 만남을 통해 든든한 정신적 동반자인 버디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 5개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주 1회 30분 내외의 시간을 버디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교육, 책과 함께 행복교육, 바른 인성 행복교육, 창의성 추욱 행복교육, 자연과 더불어 행복교육 등이 있다.

## IV. 주요 교육성과

광양제철유치원은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로, 2017년 전남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공모전 우수상, 2017년 교육부에서 주관한 제3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및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제6회 가족그림 편지쓰기 대회에서 우수 단체상 등을 수상하였다.

## V. 기타 현황

원훈	슬기로운 어린이, 예절바른 어린이, 용기 있는 어린이
교표	 <p>하늘색 바탕에 무궁화 꽃이 있고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제철유치원'에서 따온 3개의 '자'를 울타리로 하여 가운데에 '유치원'의 첫 글자인 '유'자가 놓여 있다. '유'의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린이가 두 팔을 높이 들어,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p>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9,238명 (2021년 1월)
주요 연혁	<p>1985. 03. 05. 광양제철유치원 개원                      1987. 01. 31. 일반 교실 4실, 해양과학관 증축 준공                      1988. 01. 31. 제2교사 준공                      1989. 03. 08. 광양제철남유치원 개원                      1998. 10. 18. 전남대학교 협력유치원으로 협정                      2006. 03. 01. 광양제철유치원, 광양제철남유치원 통합 (광양제철유치원으로 유치원 명칭 변경)                      2017. 07. 20. 전남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17. 12. 20. 제6회 굿네이버스 가족그림편지쓰기대회 우수단체상 수상                      2017. 12. 31. 제3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p>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 Pohang Jecheol Elementary School

포항제철초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1968년 포스코는 창립과 더불어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효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직원의 복지후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곡동 주택단지 안에 10개 교실의 교사(校舍)를 지어 포항시 교육청에 기증하고 1974년 공립 지곡초등학교를 유치하였다. 주택단지가 확장되어 1986년에 이르러서는 40학급이 넘고 아동수가 2,500여 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박태준 이사장은 포스코 직원자녀의 초등교육과 포항공대 개교와 발맞추어 유능한 교수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립 지곡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신설 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 2개 학교로 분리하기로 하였다. 재학생의 규모가 1개 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5년 12월 16일 공립 지곡초등학교 부지 3만1,663㎡에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사를 신축하여 1986년 9월 30일 준공하였다. 포항제철서초등학교는 1985년 12월 17일 포항시 효자동 253-1번지, 3만 503㎡의 부지에 교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86년 7월 31일 건물을 완공하고, 8월 31일 학교 전체 시설을 완비하여 준공하였다. 1987년 2월 12일에는 신입생 652명과 폐교되는 공립 지곡초등학교 재학생 1,956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에 배정하였다.

1987년 3월 5일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정에서 박태준 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를 모신 가운데 양교 개교식을 치렀다. 이후 명문 사학으로 거듭난 발전을 이어온 두 학교는 2017년 2월, 30회 졸업생 배출을 끝으로 포항제철서초등학교를 폐교하고, 두 학교를 통폐합하여 포항제철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포철동·서초 개교(1987.3.5)



우주극장(천문관)에서 관찰수업을 하고 있는 포철동초 학생들

## II. 주요 발자취

### 1. 명문학교 도약을 위한 다양한 선진교육 추진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교 시부터 교과 전담제를 도입하였다. 1, 2학년은 학급 담임제를, 3, 4학년은 과학·체육·음악·미술 과목의 동학년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였고, 5, 6학년은 체육·음악·미술·실과 과목의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7년 개교 후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를 정규 교과에 편성하였다. 이는 1991년 10월 교육부의 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침에 따라 영어 과목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기 이전의 초기 영어교육이었다.

그 외에도 개교 초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198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실과 과정에 컴퓨터 관련 단원 신설을 예고하기 전부터이다.

### 2. 국내 유일의 우주탐구 교육장 등 교육환경 선진화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최상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는 개교 때부터 각종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갖추어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개하였다. 우주과학관·해양과학관·음악실·미술실·도서관·영어교육실·전산교육실·방송실 등 최신 교육시설을 구비하여 앞선 교육의 장으로 인정받았으며, 포항제철동초등학교의 우주과학관은 ‘우주전시실’과 돔형의 ‘우주극장’으로 구성되어 학교 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우주탐구 교육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주과학 교육은 정규학습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저학년은 연 3회, 중학년은 연 4회, 고학년은 연 5회 씩 운영해왔다.

### 3.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선정

2002년 포항제철동초등학교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뒷산을 '자연학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2004년까지 추진한 결과, 쾌적한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의 조화를 통해 1991년 한국일보사와 계몽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름다운 학교 뽑기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가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학교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녹색학교(Green School)로 선정되어 학교 내 휴식 공간,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운동장 인공잔디 개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포철동초 아름다운 학교 현판

### 4.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통폐합, 교명 변경

동일 학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한 학교 수용이 가능해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6년 학교 통합을 추진하였다. 공청회를 거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찬성 82.8%를 획득하여 학교 통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곧바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통합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2월 학교



학교 통합으로 폐교된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전경

통폐합이 승인되었다. 이후 기존 두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교명이 필요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학교인 포항제철동초등학교의 교명을 '포항제철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해 4월 재단 이사회를 통해 교명 변경 추진을 의결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 교명 변경 신청을 추진하여, 2017년 2학기부터 '포항제철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교명을 사용하였다.

### 5. 미래교육을 위한 창의융합관 건립



2017년 포항제철초등학교는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의 통폐합 자금 등으로 지상 2층의 '창의융합관'을 건립하고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스팀(STEAM), 소프트웨어(SW), 메이커(Maker)교육을 위한 공간 및 교구를 구비하였다. 실험공방형 메이커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실 2개, 과학실 2개, 미술실, 메이커룸 2개, 미래체험실, 스마트교실, 창의수학실, 실과실, 세미나실, 아이디어룸 등 총 13개의 실을 갖추었다. 그 중 세미나실은 총 150여 석의 계단식 강의실로 한 학년 전체가 모여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III. 주요 특색교육 활동

포항제철초등학교는 교훈을 건학이념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배우며 슬기롭게 생각하는 참된 어린이'로 정했다. 21세기의 주역으로서 나라와 인류를 위해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맞춤형 360° 행복교육으로 배움과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으로 정립하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정립하였다. 이에 즐겁게 배우고 나누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배움(창의인), 나눔(인성인), 꿈(자주인)으로 교육목표를 설정, 경영 중점과 특색교육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1.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포항제철초등학교는 학생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며,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브루타를 기반으로 하는 포항제철초등학교 교육모델 '질문이 있는 EQ(Emotion Question) 토론식 수업'을 들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질문중심 토론으로 다양한 해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하고 질문 만들고, 수업에서는 생각하고 질문하고 말하며 배우고, 교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수업 설계를 하고 있다.

### 2. 소프트웨어(SW) 및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소프트웨어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과학 등의 기초·기반이 되는 중요한 교육이다. 포항제철초등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SW선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코딩, IOT, 정보통신 및 윤리교육 실시하고 있다. 전교생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1~4학년 34차시, 5~6학년은 51차시를 운영한 결과, SW 최우수학교로의 위상을 높였고,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 및 실감형 콘텐츠(AR, VR)와 같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어 더 생동감 있는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3년째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 3. 세상을 바꾸는 생활문제 프로젝트

'세바생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팀 중심 프로젝트다. 3~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연 18시간을 편성하고 총 4개 주제를 선정하여 주변의 생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다른 동료와 소통함으로써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협업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 4. 국제 이해 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익히며 국제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소양을



포항제철초등학교를 방문한 일본 자매학교 학생들의 전통춤 공연 (2009.3.23)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국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국제 이해 협동학교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문화활동(CCAP)을 연 6회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하여 교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일본 도쿄에 있는 와코쓰르가와 소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후 매년 홈스테이 교류를 2010년부터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일본자매학교인 우와지마 스미요시소학교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이해교육 실적을 모아 '국제 이해 교육으로 앞서가는 포철서초등'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2005학년도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오클랜드 한인학교와 2주간 공동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과학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일식현상을 관찰하는 학생들

### 5.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교과 내, 교과 간 주제통합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전 학년 2주제씩 재구성하여 실행하고 있다. 학년별 공동으로 스팀(STEAM) 수업을 연구하고 전 교원에게 수업을 공개하며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문·이과 융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하는 'Kids Maker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구비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창의 IT(융복합)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스마트 메이커 수업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적용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 6. 과학, 수학, 컴퓨터 등 융합교육 영재반 운영

2004년부터 포항교육청 '과학 영재학급'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과학영재반은 20여 명을 선발하여 매주 과학탐구활동과 사이언스 클럽, 사이언스데이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 과학 교육기관 방문, 과학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학년도에는 교육청 단위 정보영재반을 개설하여 컴퓨터 분야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로봇프로그래밍, 컴퓨터 올림피아드 준비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개교 이래 수학 특기반을 개설하여 지도한 결과 국제 수학경시대회 4년 연속 대상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교육청 단위 융합교육 영재반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텍 교수와 함께하는 메이커 페스티벌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포항제철초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나가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교육모델을 개발해 다양한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의경영학교(2012년),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2016년), 전국 인성교육모델 최 우수학교(2016년), 전국 SW교육 최우수학교 및 전국 STEAM 융합인재교육 우수학교(2018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포철서초 학생들

년에 선정 되었으며, 2011년 양성평등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 유치, 미래형 수학교실 운영 시범학교(2013년), 사이버 폭력예방 선도학교(2015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2016년), STEAM교육 선도학교 운영(2016년),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2019년) 등 선도학교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교육활동 수상

포항제철초등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주요 수상으로는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시회 금상(1999년), 제4회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상(2000년), 제24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상(2007년), 제5회 국제수학경시대회 대상(2007년), 제6회 전국초등학교 무용경연대회 대상(2008년), 제21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탐구실험 최우수상(2013년), 제10회 전국 수리과학창의대회 대상(2013년), 중국 국제청소년 수학경시대회 대상(2014년), 제6회 초등학생 창의력경진대회 금상(2014년), 전국 주니어소프트 창작대회 최우수상(2018년), 한국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 대통령상(2018년) 등을 수상했다.

## V. 기타 현황

원훈	스스로 배우며, 슬기롭게 생각하는, 참된 어린이
교표	 설립 모기업인 포스코의 연관성, 명문 사학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교표 도안을 재단 산하 각 교육기관에 공모하였다. 1987년 1월25일, 응모작품 12점 가운데 포스코교육재단의 교육이념과 초등학교의 특징을 잘 나타낸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김소일 교사의 작품을 교표 도안으로 확정하였다
교목, 교화	은행나무, 장미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13,133명 (2021년 1월)
주요 연혁	1987. 03. 05.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포항제철서초등학교 개교 1987. 10. 17. 체조부 창단(포철서초) 1991. 09. 13. 제2회 소년한국일보 주최 '아름다운 학교' 대상 수상(포철동초) 2009. 12. 30. 교육부 주최 영어교육 리더학교 선정 (포철서초) 2011. 12. 31. 교육부 주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포철서초) 2015. 12. 10. 교육부 주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포철동초) 2015. 12. 15. 교육부 주최 인성교육 최우수 모델학교 선정(포철동초) 2015. 12. 28. 교육부 주최 전국 100대 학부모 참여 우수학교 선정(포철서초) 2017. 02. 15.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제30회 졸업(졸업생 총계 6,176명) 2017. 02. 20.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통합 확정 공고, 포항제철서초등학교 폐교 2017. 03. 01. 포항제철동,서초등학교 통합 2017. 09. 01. 포항제철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20. 03. 20. 창의융합관 준공

# Pohang Jecheol Jigok Elementary School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1995년부터 지곡동 자연부락에 신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4,000여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자 이곳에 거주하는 직원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초등학교 설립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토지 구획정리가 이루어지고 학교 부지가 확정되자 1996년 12월 17일 국내 초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스틸스터드(Steel-stud)를 주요 재료로 하는 건식공법으로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1997년 10월 6일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개교를 앞두고 신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대부분 통학거리가 가까운 포항제철지곡 초등학교에 배정되기를 바랐지만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었다. 수차례의 학생 배정 안 협의 및 학부모 설명회 등을 거쳐 학생 수용계획을 확정하고 추첨을 통해 전입생 및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초대교장으로는 이강화 교장이 발령받았다.

1998년 3월 2일 학교 신축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090여명의 학생들을 맞아 3월 3일 강당인 '입지관'에서 235명의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교내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운동장은 물론 등교 통로마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났지만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가 새 학교라는 마음으로 그런 불편쯤은 물어버렸다.



포철지초 개교 및 준공(1998.4.7)

## II. 주요 발자취

### 1. 교육환경의 선진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설립인가를 받고 개교를 준비할 당시부터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개교추진반에서는 좋은 비품 및 교구 구입을 위해 전국의 명문 학교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불편함을 제일 잘 느끼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생각을 반영하여 구조 변경을 추

진하기도 했다. 국내 초등학교 중 최초로 시도된 공법의 건물은 외관이 수려하고 그 내부에는 첨단 교수-학습 기기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각 교실에는 이동식 화이트보드, 대형스크린, 실물화상기, 닥터위콤, 디지털피아노 등의 교육 기자재를 구비하였다. 또한 LAN으로 연결된 컴퓨터와 그에 접속된 대형 모니터 및 VTR 등의 교단 선진화 기기가 완벽되어 수업 및 학교 방송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



포철지초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창의교재개발위원회

## 2. 창의교육의 메카

2000년 초반부터 창의성교육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다. 가장 먼저 현대창의성연구소와 포스코 교육재단의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기본연수와 실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창의성 마인드를 함양하였다.

2002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임선하 박사의 창의성이론인 DESK모형 적용수업을 하고 이후 포스코교육재단에 맞는 창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실정에 맞게 부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왔다. 이후 2010년에는 초등 창의교재 개발을 위해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창의교재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1년 여간 연구개발 끝에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용 교재 6권을 비롯해 교사용 지도서 6권 등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등 창의교재를 개발하였다. 창의교재는 2011년 8월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인정 승인을 취득하고 2011년 9월부터 출판사와 연계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였다. 11월에는 단위학교 최초로 개발한 창의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전국 학교에 공개하였다.

## 3.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교육장관회의 협력학교 선정

2011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우수학교 선정 및 창의성교육 시범학교 선정을 바탕으로



APEC 참가자 포철지초 방문(2012.5.23)

2012년 5월 경주에서 열린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협력학교로 선정되어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의 교육관계자에게 공개하였다. 이날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를 방문한 50여 명의 APEC 관계자들은 창의성 수업, 태권도, 국악수업과 음악줄넘기 공연 등을 참관했다.

## 4. 전국 초등학교 최초로 QSS혁신활동 도입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2013년 3월 전국 초등학교 최초로 포스코 QSS혁신활동을 접목하였다. QSS혁신활동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포스코 지원 QSS 마스터, 컨설턴트와 정기적인 워크숍을 하면서 학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과학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모델장소로 정하고 정리, 정돈의 혁신활동을 적용하였다.

과학실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비로 나누는 등 전반적인 재정리를 실시해 실험기구를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으며, 민원인이 자주 찾는 교무실과 행정실도 정리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고, 각종 문서와 교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했다.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는 성과 공유회를 2013년 12월 개최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소개해 가정에서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 III. 주요 교육 활동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건학이념과 교훈인 '큰 꿈(자주인), 새 생각(창의인), 참된 행동(도덕인)'을 바탕으로 '배움과 삶이 조화로운 즐거운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교육', '따뜻한 희망을 주는 교육실천',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의 경영 중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1. 배움이 즐거운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생각의 힘을 키우는 토의·토론중심의 수업 전개, 학년별 주제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을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 음악줄넘기, SW동아리, 독도동아리 등 20여 개의 학생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생중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학교 전시회와 발표회를 겸한 '푸른솔 한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교사 1전문성 살리기 지원, 동료교사 간 멘토멘티제, 교실수업 개선, 학년 중심의 교과연구회 운영, 선진학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2.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미래교육

매년 탐구중심 프로젝트학습을 위해 포스텍, 막스플랑크연구소 멘토를 초빙하여 논문 계획부터 발표까지 전 과정을 멘토링 지도하는 '사이언스 페어(Science Fair)'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6학년 학급별 논문집을 제작하고 졸업식 때 어린이박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4, 5, 6학년의 경우는 3개의 영재학급을 운영하며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회 및 전시회인 '매스 페어(Math Fair)'도 해마다 개최하여 융합적인 사고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구글 등대프로젝트 학교로 선정되어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SW체험프로그램,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메이커교육과 코딩교육을 겸하고 있다.

#### 3.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위한 교내 영어 연극 및 영어 노래 부르기,



미국 입양인 학교 방문 행사 (2014.6.25)



'매스 페어(Math Fair)' 발표회 모습



학생 자율 동아리인 독도동아리의 교육활동 모습

영어독서인증제, 전 학년 학급별 프로젝트학습 결과를 학기당 1회 발표 및 전시회를 갖고 있으며, 영어 온라인 학습 활성화 및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기호와 레벨에 따른 도서 추천, 읽기 전 활동인 단어학습, 읽기 후 활동인 확인문제풀이 및 단어배열 및 자신의 읽기활동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 도서와 관련된 워크시트 활용과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의 워크시트를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 4.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 교육

감사와 나눔 운동 실천을 위해 '고맙데이' '감사 나눔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선플달기운동, 칭찬통장, 선비문화 체험교육(5학년) 등을 바탕으로 3~6학년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인성 우수학생 시상을 겸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 중심의 학교문화 만들기 위해 교사 중심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시간 사제동행 운동장 맨발걷기, '점심 데이트' 를 통해 사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장애인 이해교육, 포래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학생에 대한 신입관 감소 및 동질감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정다운 학교' 를 운영하였다.

또한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외국인 초청 세계 이해교육, 해외 입양인 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교육을 통해 공동체의를 심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교어린이회의 모금활동으로 성금을 모아 포항시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겨울방학 때 학생·학부모 신청을 받아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기부와 봉사를 함께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5.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2014년 초등학교로는 최초로 포스코 QSS(Quick Six Sigma) 혁신활동을 도입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과학실을 비롯한 교육시설 설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생들도 정리·정돈 습관화 등에 대한 체험적 영상교육을 통해 많은 행동변화가 생겨 생활지도가 쉽게 이루어 졌다.

그 외에도 학년별 7대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과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스쿨존 등하굣길 교사임장지도 및 학부모와 지역인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지도를 하고 있다.

#### 6.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포스텍, 막스플랑크 연구원, 포항방사광가속기 연구소, 각블·(주)클래스워너원, 경북포항토종씨앗도서관, 기초과학연구원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책 읽어주는 학부모', '도서관 봉사', '학습도움실 봉사' 등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프로그램은 2016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고 학교 운동장은 상시 개방하여 맨발 걷기 등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하여 '송년 음악회' 를 개최하고 있다.



감사와 나눔 실천을 위한 '고맙데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시범학교 및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특기적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창의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창의 교과서 개발 보급(2011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교육부장관 인증(2013년), 수학과 창의분야 국제대회 1위, 음악 즐넴기 세계대회 우승(2008년), 학교교육계획 추진 최우수학교 선정(1999년), 기본바로세우기 실천 학교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2002년),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최우수학교 연속 2회 수상(2013년), 전국 제1회 감사나눔페스티벌 우수학교 수상(2013년), 대한민국행복학교 박람회 우수학교 선정(2013년)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시범학교 운영(2014년), 소프트웨어선도학교 선정(2016년), 경북형 혁신학교인 명품학교 선정(경북1호, 2016년) 운영 및 예비 미래학교 선정(2019년), 동아리 운영 우수학교 선정(2017년),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선정(2019년) 등 수많은 교육성과를 통해 명품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 2. 교육활동 수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학생 참여형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수상으로는 제1회 대한민국 수학 올림피아드 최우수 단체 및 대상(2002년), 제10회 전국 어린이통계활용대회 최우수상(2008년), 제5회 국제 청소년수학경시대회 초등부 최우수단체상 및 대상(2009년), 제3회 수리과학창의대회 대상,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어린이발명왕대회 최우수상(2009년), 제20회 전국 영어·수학경시대회 20회 연속 최우수학교상(2010년), 제36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2014년), 제6회 대한민국 창의적체험 활동경진대회 대상(2015년) 등을 수상했다.

## V. 기타 현황

교훈	큰 꿈, 새 생각, 참된 행동
교표	 <p>학구 특성상 교표는 포항제철초등학교와 기본 내용은 동일하게 하되 학교 이름만 구분하였다.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의 교표에서 책은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상을, 태극은 창조의 정신을, '지곡'이라는 글자는 학교 이름을, 마크는 설립 주체인 포스코를 나타내고 있다.</p>
교목, 교화	소나무, 들국화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4,598명 (2021년 1월)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8. 03. 01.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개교</li> <li>2002. 02. 07. 기본 바로 세우기 실천 우수사례 공모대회 대통령상 수상</li> <li>2004. 02. 07. 제12회 아시아즐넴기선수권대회 우승</li> <li>2008. 12. 16. 세계즐넴기선수권대회 단체전 종합 우승</li> <li>2009. 12. 16. 교육부 선정,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li> <li>2010. 11. 23. 제20회 전국영어·수학학력경시대회 20회 연속 최우수학교상 수상</li> <li>2011. 10. 26. 교육부 선정,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최우수학교</li> <li>2012. 12. 31.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li> <li>2014. 09. 01.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소프트웨어 시범학교 운영</li> <li>2016. 03. 18.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정, 소프트웨어 선도학교</li> <li>2018. 09. 10. 구글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학교 선정</li> <li>2019. 03. 15. 경상북도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지정</li> <li>2019. 04. 02. 경상북도 정다운학교(특수학급 프로그램) 선정</li> <li>2020. 03. 02. 경북예비미래학교 선정</li> <li>2020. 04. 10. 바르게 걷기 선도학교 선정(경북교육청)</li> </ul>

# Gwangyang Jecheol Elementary School

광양제철초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1981년 12월 1일 광양제철소 건설과 동시에 사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직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교육재단은 광양지역 학원단지 건립 계획을 1984년 2월 6일 확정하고 광양군 교육청으로부터 1984년 12월 10일, 6학급 규모의 사립초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다. 1985년 1월 31일 38,080㎡의 부지에 일반 교실 1개동(12실)과 특별 교실(6실)을 포함한 현대식 최신 설비를 갖춘 학교 건물을 준공하였다.

1985년 3월 2일 그 동안 금도초등학교에 다니던 29명의 아동들이 광양제철초등학교의 첫 재학생이 되었다. 초대 교장으로는 1985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초등교육을 선도하던 전권 교장이 취임하였다. 3월 5일 박태준 이사장을 비롯한 이용학 광양군 교육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광철유·초·중 개교 후 교정을 둘러보고 있는 박태준 설립이사장 (1985.3.5)

## II. 주요 발자취

### 1. 선진화된 교육환경 구축

개교 초기부터 선진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였다. 일반 교실 36실, 특별 교실 14실(도서실·어학실·전산실·타자실·방송실·시청각실·무용실·과학실·음악실·미술실·실과실습실)을 고루 갖추었으며 야외 공간에는 기상대·암석원·자연학습원·연못·임간학습장 등을 마련하였다. 각 교실에 컬러 TV 모니터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3원 동시 방송이 가능한 교육 체제를 마련하였다. 3원 방송 교육 체제는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 구성, 교육의 전이도를 달리하는 교육 내용을 저·중·고학년별로 구분하여 동시 방송하는 체제이다.

### 2. 우주과학관 건립

1987년 3월 천체과학실과 우주과학실 2실인 우주과학관을 건립하였다. 우주과학관에는 서울의 국립과학관, 각 지역 어린이회관, 각 시도 학생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였다. 천체과학실은 천체 투영기를 이용하여 우주여행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별자리를 탐색하고 태양계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주과학실에는 우주의 형성, 태양계, 우주탐험, 우주개발, 일식과 월식, 로켓의 구조와 원리, 중력, 태양 에너지 등 20여개의 코너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직접 조작하면서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였다. 또한, 우주과학실에서 공부한 것을 비디오와 컴퓨터로 총정리 할 수 있는 학습정리 공간까지 마련하였다.

### 3. 선진 교육과정 운영

광양제철초등학교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설립한 초등학교 중 첫 번째로 세운 학교이다.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개교 초기부터 공립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침으로 교과활동·특별활동 외 한자·전산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특별 시간을 배당하였다. 개교 연도인 1985학년도 2학기부터 영어·체육·음악·미술·전산 등 특기 능력이 요구되는 교과에 우수한 기능과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여 교과 전담제를 운영하였다. 교과 전담제는 영어·체육·음악·미술·전산 부문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의 소질 발굴에 크게 기여하였다.

#### 4. 학교와 가정을 잇는 사이버 통신망 개설

1995년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사이버 학습실을 운영하기 위해 전산실과 교사연구실 등 교내 주요 시설과 가정을 잇는 '이야기 꿈나무 통신망'을 개설하였다. 1998년 멀티미디어실과 전산교육실, 고학년 교실과 교사연구실에 LAN시설을 갖췄으며,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이야기 통신에 접속하였다. 원활한 통신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2,3회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열어 워드프로세서 기능에서부터 컴퓨터 통신 운영과 인터넷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직원들은 학년 초 집중적인 연수와 휴가 중 홈페이지 만들기 등 고급 기능을 익히게 하여 정보화 교육과 사이버 학습실 운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I. 주요 교육활동

광양제철초등학교는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건강인을 기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왔다. 다음과 같이 6가지의 항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배려와 나눔 교육

개교 초기부터 기본생활 목표를 '질서·예절·청결·정돈'으로 정하고 청결, 예절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1997년부터 전인상제의 도덕생활상(질서상, 선행 봉사상, 청결 예절상, 일기쓰기 우수상, 근검절약상, 개근·정근상, 종합상)를 실시하여 이어갔다.

감사, 나눔, 배려 그리고 존중을 심어주고자 6남매 결연 활동, 칭찬제도, 인성조회, 선플달기, 행복나눔1·5·5(1주 1선, 1월 5독서, 1일 5감사), 등교 맞이, Happy lunch time 등의 사제동행 프로그램, 아나바다장터, 재능 나눔 장터를 통한 기부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인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단축마라톤 대회, Health up 중간놀이, 트래킹, 바닥놀이, 전래놀이터, 실내놀이실 등을 운영하였다.



중간놀이시간에 꼬리잡기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



다도수업



과학체험수업



창의성 수업

## 2.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교 초기부터 과학교육에 힘써 왔다. 물리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 등 기초 과학에 대해 실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과학탐구실을 구축하여 과학교실 및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과학영재의 소질 발현을 위한 과학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였다. 2002년부터 POSEF 창의학습모델을 활용하여 수업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4~6학년 대상 프로젝트 탐구활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술연구소의 박사과 멘토-멘티 결연을 한 어린이 박사 인증제(6학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키움·재능 나눔 프로젝트는 숲속교실 프로젝트(1~3학년), 스쿨팜 운영(4~6학년), 연못 생태계 프로젝트(1~6학년), 아름다운 기부 프로젝트(1~6학년), SW교육(4~6학년) 등으로 운영하였다.

## 3. 특기적성교육

### · 관악 합주단

광양제철초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관악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6학년 120명의 학생들이 관악 합주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행사 지원, 국제 관악제 참가, 유럽 순회 연주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교 당시 53인조 브라스밴드로 발족,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관악 합주단은 1991년 팽기원 교사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였다.

대한민국 관악 합주 경연대회 연속 4회 최고상 수상을 비롯하여 30여 회의 전국 규모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관악부는 2002년 독일 로스독에서 열린 세계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최고 연주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광양제철초등학교를 방문해 관악부의 연주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부 포스코 회장, 김일주 국회의원, 박태준 설립이사장,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 이보열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장, 이대공 이사장 (1999.6)



과학캠프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상 수상, 2002년 드레스덴, 바이마르, 라이프치히, 로그톡 등 유럽 5개 도시 순회 연주, 2003년, 2005년, 2007년 제주국제관악제 초등학교 한국대표로 출연, 2006년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관악제 한국대표로 출연, 2009년, 2011년, 2016년, 2018년 독일 드레스덴 경찰악대 초청 유럽연주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광양제철소 5고로 준공식과 1999년 6월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 재단 학교 방문 시에도 내빈을 위하여 연주하였다.

· 수학적영재부 운영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수학적영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1, 2차 선발시험을 거쳐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토론, 하브루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연에서의 수학체험, 재미있고 창의적인 수학활동을 위한 수학캠프 실시와 방학 중에는 외부 초청강사 수업 및 창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수학경시대회는 물론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4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전산부, SW교실 운영

개교 당시부터 컴퓨터 교실을 마련하여 활용하였으며, 2007년부터 민간인 참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학생정보화경시대회, UCC 만들기,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 포토스케이프 등을 지도하여 2008년 제6회 IT꿈나무 올림피아드 학교 대상 및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5,6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SW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 방과후 영어교육 실시

개교 이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반을 운영하였으며, 2007학년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생활영어, 영어동화, 영어동요, 챗트 등을 중심으로 기초 생활 영어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영어강사를 투입 인적자원을 보완하여 운영하였다. 1,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로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 인라인롤러부 운영

2003년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으로 인라인롤러부를 특기적성부로 흡수하여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해안도로에 구역을 표시하여 활동하다가 광양시의 도움으로 인라인롤러 훈련장을 설치하였다. 제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라인롤러부문에서 금메달 1개와 제39회 대회 금메달 3개 획득,

전국 남녀종별 인라인롤러선수권대회 연속 4회 우승 등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선수 모집의 어려움으로 2018년 해체되었다.

4. 질문이 있는 배움중심교육

다양한 토론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총체적 언어능력, 설득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Debating 토론교육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업, 연 2회 토론 대회를 실시하였고,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토론 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 교과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브루타 동아리도 운영하였다.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합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자 독서·토론 교육을 운영하였다. 학년별 수준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전 교과 수업 시수의 10% 내외 수업을 적용하였다.

5. 꿈과 끼, 재능 신장교육

학생들에게 꿈과 끼의 발산, 음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고, 음악에 대한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고자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교생이 1년 동안 음악수업 또는 개인적으



교내 환경사랑 환경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공연하는 학생들

로 연습한 악기를 년 2회 발표하는 1인 1악기 연주, 매월 학생회 주관으로 작은 무대에서 잘하지 못하지만 끼를 발산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가하는 **多재多능 발표회**, 다양한 내용의 발표의 장을 마련한 마로니에 축제,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는 환경동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 6.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전교생을 대상으로 15~16명 소인수 학급으로 주 4시간 특별교육 영어시간을 운영하였다. 영어 동화책(스토리 북) 읽어주는 책 읽어주기 지원단 학부모 회원들이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주 1회씩 활동하였다. 원어민 교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전교생 주 1시간 원어민 수업 전개,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영어캠프 진행, 원어민 Free talking시간 운영, 수준별 영어 수업 진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글로벌 일류 시민, 에티켓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 자매학교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홈스테이 형식의 해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심천실험학교, 중국 푸저우시 우산소학교, 타이완 타이중시 웨이원국민소학 등의 학교와 교류를 하였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광양제철초등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시범학교 및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회 아름다운 학교 대상, 제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아름다운 학교 수상(2004년), 소프트웨어 시범학교 운영(2014년) 및 선도학교 운영(2015년, 2017~2019년), 교육부 선정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보건복지부 지정 인구교육시범학교 운영(2014년) 등을 들 수 있다.

### 2. 교육활동 수상

광양제철초등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주요 수상으로는 우수 과학 어린이대회 과학기술부장관상(1999년), 제10회 해군참모총장배 모험합선대회 금상(2000년), 제20회 국제 청소년 관악경연대회 최우수상(2002년), 제2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험항공기 날리기 전국대회 대상(2002년), 제3회 전국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대상

(2005년), 전국 해법수학경시대회 대상(2007년), 제5회 국제 청소년 수학경시대회 대상, 전국 IT꿈나무올림픽아드 4년 연속 대상(2008년), 제1회 학생토론대회 대상(2010년) 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 V. 기타 현황

원훈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자주), 새롭게 생각하는 어린이(창의), 정성을 다하는 어린이(성실)
교표	 <p>1985년 개교 당시부터 쓰이던 교표는 1995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변경, 제정하였다. 교표를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기존의 책갈피 도안 위에 초록빛 새싹을 초등학교의 심벌로 표현한 박성문(직원)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p>
교목, 교화	대나무, 동백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5,605명(2021년 1월)
주요 연혁	<p>1985. 03. 05. 광양제철초등학교 개교</p> <p>1987. 03. 31. 우주과학관 준공</p> <p>1992. 09. 17. 제3회 아름다운 학교 뽑기 대회 대상(교육부장관) 수상</p> <p>2002. 07. 22. 세계 청소년 관악경연대회 최고 연주상수상</p> <p>2004. 11. 10. 제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아름다운 학교 숲 수상</p> <p>2007. 07. 13. 제5회 전국IT꿈나무올림픽아드 최우수단체상 수상</p> <p>2007. 12. 10. 교육부 100대 교육과정 우수상 수상</p> <p>2009. 01. 14. 제6회 국제수학경시대회 4년 연속 최우수단체상 수상</p> <p>2011. 01. 27. 제2회 전국청소년대립토론대회 대상 수상</p> <p>2014. 03. 20. 보건복지부 지정 인구교육시범학교 운영 (1년)</p> <p>2014. 09. 01.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소프트웨어교육 시범학교 운영</p> <p>2017. 08. 12. 제주국제관악제 U-13 최고상 수상</p> <p>2019. 03. 04.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학교 운영</p>

# Gwangyang Jecheol Nam Elementary School

광양제철남초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1988년 11월 1일 광양에 광양제철소 3기 설비에 이어 1991년 1월 5일 4기 설비 착공으로 서울과 포항에서 직원들이 대거 이주해 옴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금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존의 광양제철초등학교까지 통학하기에 거리가 멀었고, 학교시설도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의 유입이 예상되어 금당지역에 광양제철남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1988

년 6월 1일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624-11번지 학교 부지에서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건립공사를 착공하였다. 총부지 35,956㎡에 교사 4,747㎡, 운동장 10,950㎡, 체육 놀이장 2,492㎡, 건물면적 9,017㎡ 규모로 총공사비 31억 5,261만원을 투입하여 학교를 설립, 이듬해인 1989년 3월 8일 11학급 312명으로 개교하였다.



광양제철남유·초등학교 개교(1989.3)



광양제철남유·초등학교 개교 행사에서 교정을 둘러보는 박태준 설립이사장과 내빈들 (1989.3)

## II. 주요 발자취

### 1.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개교 이후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개교 당시부터 교실마다 대형 모니터와 VTR, OHP, 실물화상기, 녹음기 등 다양한 교육용 시청각 기자재를 구비하였다. 1998년부터는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하였다. 2000년에는 최첨단 멀티 교육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화 교육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총 99㎡ 규모의 동물사육장, 397㎡ 규모의 실습지를 마련하여 학년별로 주요 식물군을 배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한가운데는 학교의 상징인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지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제목 아래 '꿈은 크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

### 2. 열린 교육 적용 방안 개발

1991년부터 열린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린 교육 이론 탐색 및 국내의 선진 연구 학교와 일본의 열린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많은 사례를 수집, 분석, 검토하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1993년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한 POSEF식 열린 교육 적용 방안을 개발하였다.

1994년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한 POSEF식 열린 교육 적용 방안을 개발하였다. 같은 해에 '열린 학습의 날 운영 프로그램', '오픈 타임(Open Time) 프로그램' 등 2개의 열린 교육 영역을 추가, 4개 분과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994년 8월 25일에는 전국적으로 25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를 1994년부터 1996년 1차 적용 단계를 거쳐, 1997년 이후부터 2차 적용 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열린교육 책자 발간

### 3. 활발한 국제 이해 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동학교(ASP) 선정

1999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에티켓을 익히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하여 글로벌 에티켓 및 국제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제 이해교육 자료 개발을 위하여 각종 관련 이론을 탐색하였고, 인구 시범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학년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 이해부'라는 특별활동 부서를 따로 두었다. 1996년 6월 1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동학교(ASP)'로 선정되어 '유니세프 지구 저금통 모금활동', '유니세프 지구촌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4. 토론문화 활성화

원만하고 상호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대화 능력과 합리적인 사리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였다. 학교에서는 토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였으며,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토론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익힌 능력을 학급 어린이회 및 전교 어린이회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토론대회 등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5. 교가 개정

30년 간 교가로 부르던 곡이 친일음악가인 김성태 곡으로 판명되어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교가 개정 TF 전문가인 김현옥 작사, 신동민 작곡으로 교가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학교의 인재상, 비전 등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교가를 만들기 위해 교내 교가개정위원회를 두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III. 주요 교육활동

#### 1. 창의교육

2009년 3월, ‘창의수학 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수학나눔학교, SW교육 선도학교, 디지털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등을 하면서 다양한 창의수업 자료를 활용한 놀이 중심의 수업 등을 전개해왔다. 특히 SW교육은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활동으로 이뤄지며,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 및 앱 활용 능력을 신장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창의수학실과 창의과학실의 완성으로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창의적 수학,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AI, 코딩 수업을 할 수 있는 에듀테크 미래교실을 마련했다.

#### 2. 과짜 선발제

창의는 무한하고 노력하면 어떤 분야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갖도록 6학년을 대상으로 ‘과짜 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서 남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려는 내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더욱 그 분야에 열중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과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외국어, 만화, 역사탐구, 축구, 과학, 독



독서토론 공개 수업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교육활동



과짜 선발제에서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과짜 학생들

서, 줄넘기, 국악,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총 80명이 괴짜로 선발되었다.

### 3. 특기적성교육

특기적성교육은 개교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유휴시설 및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학교 교육력 극대화 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특기적성교육은 방과후교육으로 발전하여 전 학년 희망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였다. 매년 지속적인 특기적성교육에 힘쓴 결과 지역은 물론 전국 단위 각종 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부문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나아가 세계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합창부는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대표하고 있다.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합창부는 2019년 광주MBC에서 주최한 정울성 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해 그해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국제어린이합창제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1993년 3월 3일에 창단된 축구부는 각종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축구 명문으로서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 4. 프로젝트 탐구활동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의 결정판인 프로젝트 탐구활동은 주변 세계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습해 온 관심 있는 사항들을 더욱 깊게 연구하는 활동으로 개인 학습 요구에 따라 학생 주도로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서 작성 및 연구를 하여 활동 결과물로 학급별, 학년별 전시회 및 보고회를 갖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중심프로젝트, SW프로젝트 등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5. 한국의 얼 교육

2002년부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얼을 찾아 심어가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 3월 18일 한국의 얼 교육관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다도 교육용 다구와 전통 생활용품 등 전시물을 설치하고 복도 환경을 전통교육에 알맞은 전시물로 꾸며 놓았다. 한국의 얼 교육은 의상, 음식, 주택, 놀이, 춤, 예절, 생활도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해마다 4학년을 대상으로 다도 예절 및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 익히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악 강사를 지원 받아 실시하고 있는 국악 수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중국 청두에서 열린 국제어린이합창제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광철남초 합창부



한국의 얼 교육활동



방과후교육 시간에 연극을 하고 있는 학생들



환경동요제에서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학생·학부모들



6년 6악기 프로그램 활동



교육은 예술 아버지모임 활동

### 6. 6년 6악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증제 실시

다양한 악기 연주 활동을 통한 음악적 감성을 기르고 전인적인 인성 함양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6년 6악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년별로 학년의 특성에 맞는 악기를 선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음악시간에 협업수업을 하며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연습한 결과를 12월에 인증을 받는다.

1학년 리듬악기, 2학년 실로폰, 3학년 리코더, 4학년 오카리나, 5학년 우쿨렐레, 6학년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졸업기 급수제를 만들어 통과하는 졸업기 급수제, 애향심과 체력증진을 위해 광양지역의 산을 반드시 포함한 3개의 산 오르기 인증제, 영어대화문 인증제 등 글로벌 일류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 7. 칭찬 교육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995년 5월부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학생들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칭찬 캠페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착한 일을 한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이를 전인상 제도에 반영하였다. 이 칭찬 캠페인 활동은 1999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우수 실천사례로 선정되어 일반학교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배려와 나눔의 인성을 배양하고자 1995년부터 유니세프 협력학교로 지정되어 해마다 유니세프 카드를 판매하였고, '지구사랑 저금통'을 전교생에게 배부하여 1년 동안 저금한 돈을 모아 아프리카와 북한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다솜봉사단'을 조직하여 광양시 여러 기관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8.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부모와 교사,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학부모 임원제도를 2000년 2학기부터 P·T·A 제도로 전환하였다. P·T·A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조직되었다. 녹색어머니회, 교육은 예술 아버지모임, 독서도우미회, 책 읽어주는 어머니, 배움터 지킴이모임 등은 상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바른 인성 가꾸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예회, 운동회, 환경동요제 같은 큰 행사 때는 함께 참여하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의 유기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삶과 삶이 일치하는 배움의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가족과 함께 마을 달리기와 걷기, 마을 장터 열기, 마을 소식지 만들기, 지역의 어제와 오늘 알아보기, 포스코 명장 초청 강연- 등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 9.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활발한 해외교류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려 국위를 선양하며, 외국 문화를 체험활동을 통하여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과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3년 3월 1일 호주의 멜번시 소재 템플스트우밸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9년 4월에는 일본 나가사키, 2013년부터는 중국 난징 쓰위엔 외국어소학교와 교류 활동을 했으며, 2019년에는 대만 타이중시 후이라이(惠來)소학교와 방문 초청 교류를 진행 했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광양제철남초등학교는 삼성SDS가 교육부·KAIST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초·중학생 IT 꿈나무 올림피아드'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둬 2007년 '명예의 전당'에 1호로 현역되는 등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2014년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하였으며, 교육과정 우수학교(2011년), 독서토론수업 우수학교 선정(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선진형 수학교실 운영(2012~2015년), 보건복지부 선정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2013년), 소프트웨어(SW)선도학교 운영(2016~2017년), 수학나눔학교 운영(2018~2020년), 인성 키움 나눔 프로그램 적용 학교 운영(2018~2019년),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2018~2020년), 디지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2019~2020년) 등 다양한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로 선정되었다.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아름다운 학교 현판

### 2. 교육활동 수상

광양제철남초등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주요 수상으로는 제7회 동아전국학생음악콩쿠르 최고상(2003년), 제5회 전국 어린이 차예절 경연대회 대상(2004년), 한국과학영재올림피아드 대상(2005년), 제4회 전국 초중학교 IT꿈나무 올림피아드 대상(2006년), 전국지능형로봇경진대회 대상(2007년), 전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 3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2011년), 제9회 국제수학경시대회 대상(2011년)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제인 코리아코리아 대회(2017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2019년엔 중국 성도에서 열린 세계 어린이 합창제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 V. 기타 현황

교훈	스스로 공부하며, 슬기롭게 생각하는, 예절바른 어린이
교표	 교표는 1989년 1월 19일 조경호 개교추진반장이 디자인했다. 펼친 책 중앙에 포스코와 광양제철남초등학교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한국적 정서인 태양 형태의 태극무늬에 두어 창조와 사랑, 진리, 발전을 담았다. 현재는 과거의 포스코 상징 표식을 빼고 펼친 책으로 구성된 교표를 사용한다.
교목, 교화	소나무, 장미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6,434명(2021년 1월)
주요 연혁	1989. 03. 08.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개교 1993. 09. 09. 아름다운학교 대상 수상 2007. 07. 13. IT꿈나무올림피아드 명예의 전당 현액 2011. 12. 16. 2011년도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2011. 12. 19. 독서토론수업 우수학교 선정 2012. 03. 02. 선진형 수학교실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3. 03. 02. 인구교육 시범학교 선정(보건복지부) 2014. 07. 22. 대한민국 행복박람회 참가 2016. 03. 02.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 운영(2016-2017) 2017. 10. 28. 코리아코리아 합창제 대상 수상 2018. 03. 02. 수학나눔학교 선정 2018. 03. 02. 인성 키움 나눔 프로그램 적용 학교 선정 2018. 03. 02. 소프트웨어(SW) 교육 희망학교 선정 2019. 03. 04. 디지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선정

# Pohang Jecheol Middle School

포항제철중학교

自  
主  
創  
業  
正  
道





## I. 설립 및 개교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가 세계적인 규모의 철강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포항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포스코 직원 자녀와 인근 주택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곡동 주택단지 내에 공립 지곡중학교 유치 계획을 세워 1976년 8월 12일 경북도교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였다. 1977년 4월 30일 문교부의 지곡중학교 설립 승인을 받아 6월 15일 지곡동 산 37번지 8,737㎡의 학교 부지에서 공사를 착공하였다.

12월 7일 3학급을 인가받았으며, 12월 29일 교실 4칸과 숙직실을 완공하였다. 이듬해인 1978년 3월 3일 신입생 2학급 122명, 교사 7명으로 개교하였고, 김주현 초대 교장이 취임하였다. 1979년 3월 2일 부지 36,033㎡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12월 27일 3층 4,238㎡의 철근 콘크리트 교사를 준공하였다. 12월 29일 공립 지곡중학교를 폐지하고 사립 지곡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1980년 2월 29일 구교사에서 신축 교사로 교구·비품 등을 이전하고, 3월 1일 교육위원회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포스코교육재단은 3월 6일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곡중학교 인수식을 가졌다. 이후 1981년 3월 1일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학교 이름을 포항제철중학교로 변경하였다. 9월 16일에는 초대 이대호 교장이 취임하였다.



공립 지곡중학교를 인수하는 식장에서 당시 고준식 포스코 부사장(오른쪽)이 지곡중학교 교장으로부터 교기를 넘겨 받고 있다 (1980.3.12)

## II. 주요 발자취

### 1.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校舍) 인수와 1학교 2교사 운영

과대 학급(1학년 14학급, 2학년 11학급, 3학년 11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1993년부터 남녀 혼성 학급 편성체제를 남·여별 분반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5년부터 포스코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외에도 인근 효자·자명·왕신·강동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입학함에 따라 학급 수가 크게 늘어났다.

증가된 학생 수와 학급 수로 인해 중학교 교사 옆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 건물(현 포항제철중학교 2교사)을 1995년 2월 20일 인수하였고 1학교 2교사(복수 교감) 체제로 2020학년도에는 56학급, 특수학급 2학급의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가 되었다.

### 2. 야구부, 체조부, 축구부 창단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세 개의 운동부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1982년 3월 야구부, 1983년 3월 체조부, 1984년 4월 축구부를 창단하였다. 교기로 육성하고 있는 야구·체조·축구 종목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를 배출해 왔다. 특히 2009년 축구 전용 잔디 구장 개축, 야구 전용 구장 개축, 체조 전용 경기장인 '심기관'을 개축하는 등 운동부의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3. 학교 현대화사업 추진

포항제철중학교는 건립 30년 만에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였다. 이는 포스코교육재단의 지원금 96억여 원, 교육청 보조금 2억여 원을 받아 2007년~2010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현대화 사업이었다. 일반 교실 리모델링과 운동장 보수를 통해 1교사는 야구 전용 구장을 겸한 학습장을, 2교사는 축구 전용 구장을 겸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2008년 2월 원인 불명의 심기관 화재 이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를 새롭게 구입하여 심기관은 체조 전용 경기장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특별실과 식사공간인 품위관 현대화를 비롯하여 1982년에 개관한 교서관을 2005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그해 12월 1일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2020년 7월 현재 28,682권의 다양한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2교사 건물과 연계한 1,350㎡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2011년 9월에 준공하였다.

### 4. 교과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2009년 6월 포항제철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달성하게 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되어 2010년 6월까지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때 학생 수강료 지원, 교원 인센티브 지급, 행정 전담 직원 채용, 교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구현하였다.

### 5. 교육과정 자율학교 시범 운동

포항제철중학교는 2010~2012학년도 경상북도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시범 운영되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교육을 유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였다.

### 6.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정책 연구학교,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2014학년도에 자유학기 정책 연구학교로 2년간 지정되어,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자유학기로 시범 운영하였다. 이때 수업 운영 방법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유학기 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2016학년도부터는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으며, 2019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1학년 전 과정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 7. 미래 에너지 체험실 및 소프트웨어(SW) 교육실 구축

미래 에너지 교육을 위해 미래 에너지 교육 체험관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정신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중학



자유학기제 사제동행프로그램 활동



해병대 체험 캠프



전통문화 체험활동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이벤트인 해커톤(Hackathon) SW캠프

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포항제철중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및 인프라, 솔루션 그리고 운영에 대한 표준 교실 모델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 교실에 적합한 수업모형 개발을 통해 SW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 경상북도교육청의 목적 사업인 SW 교육모델학교에 공모하여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2,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 총 9,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 교실의 2.8배 크기 6개의 구역(ZONE)으로 구성된 첨단 SW교실을 구축하였다.

### 8. SW교육 모델학교,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로봇·SW교육을 통해 미래 지식 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진로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포항제철중학교는 SW교육 중점학교(2017~2019년), SW교육 모델학교(2018년), SW교육 선도학교(2015~2019년)로 운영되었다. 2019학년도에는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영어, 사회, 과학 교과 1, 2학년 과정이 중점 운영 교과가 되었다. 중점 운영 교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모델을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 III. 주요 교육활동

### 1. 예습 지침서 활용

포항제철중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지식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예습 위주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예습 지침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그 지침에 따라 철저히 예습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예습 위주로 공부하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예습 위주의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예습 지침서 제작·배부, 학생의 예습 확인, 수업 중 질의응답 활성화, 평가시 주관식 문제 출제, 오답 풀이 노트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예습 지침서 활용 교육은 오늘날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교실 수업 개



교내 작은음악회 공연 모습



교내 한마음축제에서 공연하는 학생들

선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는 거꾸로 수업을 40여 년 전에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 2. 특별활동 활성화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활성화하였다. 학예 발표 부서는 무대 공연을 위한 합창반·연극반·영어 연극반·무용반·민속반·향토 연구반과 전시 출품을 위한 수예반·미술반·문예반·서예반 등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1981년부터 매년 개최한 학예발표회는 1998년부터 '한마음 축제'로 행사 명칭을 바꾸고 지금까지 교내 축제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 3. 기초체력의 단련

모든 학생이 체력을 단련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학교에서 길러 주자는 취지로 걸어서 등교하기, 등교 후 운동장 돌기 및 철봉대 매달리기, 중간체조와 줄넘기 등을 권장하였다. 특히 중간체조는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전교생이 20분간 운동장에서 맨손체조를 하는 것으로, 체조 후에는 줄넘기 등의 개인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교내 체육대회에서 경기에 승리하고 기뻐하는 학생들

1992년부터 교실 의자 체조를 자체 개발하여, 중간체조 시간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의자 체조를 하도록 하였다. 매년 5월 체육 주간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평소에 연습하고 단련해 온 운동 기량과 힘을 겨루는 체육 발표회를 운영하였다. 체육대회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 간, 학급 간 경쟁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4.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개교 초부터 매월 자주 주간을 설정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주의식 함양과 학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매월 넷째 주를 자주 주간으로 설정하고 그 주의 월요일을 자주일로 정하여,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전체 운동장 조화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자주적 학급 및 학교 활동을 위해 학급 및 학생회 임원단을 직접선거로 조직하였고, 학생 회의의 정례화, 회의 진행 방법의 지도,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통한 정신교육, 학생 회의실의 운반제 사용, 학생 자주 주간 설정, 학생 자유 발언함 등을 운영하였다. 자율학습은 아침과 방과 후,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999학년도부터 고입 전형이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한 학생 선발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야간 자율학습은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 5. 5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연계 활동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병폐와 잘못된 자리 잡은 관행들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환경파괴, 안전 불감증, 성비 불균형, 지역감정, 잘못된 장모 문화 등 5개 사회적 과제를 1999년부터 재단 내 각급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 5대 사회문제 선정 당시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였던 성비 불균형 문제는 저출산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포항제철중학교에서도 재단의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계획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역감정 해소 과제를 시범 운영하고, 그 활동 결과를 담은 『우리에게 지역감정은 없다』를 발간(2000년 2월)하였으며, 5대 과제 전체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실천 사례집 『다섯 밑알을 심습니다』을 세 권 분량으로 발간하였다.

## 6. 선진 사학 비전(Vision)21 과제 추진

포스코교육재단에서는 1999년 8월 19일 '선진 사학 비전 21' 선포식을 거행하고 숭고한 교육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포항제철중학교의 과제에는 1학교 1특성화 과제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U-learning 학습 운영, 교육 현장의 개혁 운동, 교원의 전문성 계발, 창의성 계발 교육, 영어·컴퓨터 교육 강화, 독서토론 교육, 민주시민 양성교육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포항제철중학교는 1997년 도 지정 영·수 수준별 이동 수업 시범학교, 1998년 도 지정 수준별 교육과정 선도학교, 2002년 문화관광부 지정 특별활동 연극 시범학교로 운영된 바 있다. 2009년에는 교과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로, 2010년에는 도 지정 교육과정 자율 학교로 선정되었다. 2014년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정책 연구학교, 2015년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정보 윤리 리더학교, 2016년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SW) 교육 실험학교, 2017년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 인터넷 드림단 리더학교, 2018년 소프트웨어(SW) 교육 모델학교, 공모형 두드림 학교, 7560+ 운동 선도학교, 2019년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경상북도 청소년 SW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 2. 교육활동 수상

포항제철중학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주요 수상으로는 제23회 전국 영어, 수학 학력경시대회 15회 연속 최우수학교상 수상(2011년), 제4회 대한민국 창의성체험활동 경진대회 대상(2013년), 학생 생활법률 퀴즈대회 대상(2014년),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부 금메달(2014년), 제31회 한국수학경시대회(KMC) 대상(2015년) 수상 등이 있다.



포철중 수준별 영어수업 장면

## V. 기타 현황

교훈	스스로 공부하며, 슬기롭게 생각하는, 예절 바른 어린이
교표	 도안 속의 책은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상을 나타내며, 기본 형상 중앙엔 중학교를 표시하는 '中'자를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어 원만하고 민주적인 학교상을 형상화하였다.
교목, 교화	소나무, 장미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21,014명 (2021년 1월)
주요 연혁	1978. 03. 03. 공립 지곡중학교 개교 1979. 12. 27. 현 교사 준공 1980. 03. 01. 사립 지곡중학교로 변경 1981. 03. 01. 포항제철중학교로 교명 변경 1995. 02. 20. 2교사 인수 2011. 04. 26. 제23회 전국 영어, 수학 학력경시대회 15회 연속 최우수학교상 수상 2012. 12. 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력 우수학교 선정 2013. 08. 09. 제4회 대한민국 창의성체험활동 경진대회 대상 2014. 05. 27.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부 금메달 2014. 10. 20.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교육부장관표창 2015. 03. 01.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2015. 08. 13. 제31회 한국수학경시대회(KMC) 대상 수상 2015. 12. 29.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우수정보윤리학교 지정 2016. 07. 01. 로봇 활용 SW교육 실험학교 운영 2017. 11. 30. 인터넷윤리 우수학교 선정 2018. 10. 13. 국제로봇콘테스트 지능로봇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2019. 12. 20.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최우수학교 선정

# Gwangyang Jecheol Middle School

광양제철중학교





## I. 설립 및 개교

1984년 12월 14일, 학년당 1학급씩 모두 3학급의 광양제철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198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985년 3월 5일 1명의 신입생 서정호 군과 9명의 교원들이 개교식을 치른 것은 한국 교육사에 이색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 조성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4월에 3학년을, 5월에 2학년을 각각 개설하여 총 3학급을 운영하였다. 광양제철초등학교 건물을 임시 교사로 빌려 수업을 하면서 1985년 4월 12일 광양시 금호동 679번지에 새 교사 착공에 들어가 1986년 1월 3일 준공하였다. 1986년 3월엔 총 재적수 46명, 3학급으로 신축된 새 교사로 옮겨 명문학교의 기틀을 닦기 시작하였다. 개교 첫해인 1985년 12월 2일, 김진 포항제철고등학교 교감이 광양제철중·고등학교 초대 겸임 교장으로 취임하여 명문사학의 기틀을 다졌다.

## II. 주요 발자취

### 1. 교육 환경의 선진화

광양제철중학교는 1985년 개교 때부터 일반 교실보다 최신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갖춘 특별실이 더 많았다. 국어과실, 수학과실, 사회과실, 멀티미디어실, 진로교육실, 시청각실까지 갖추었다. 시청각실의 비디오 시스템은 가장 돋보이는 시설이었다. 자체적으로 제작 작업을 할 수 있는 각종 방송 기자재와 테이프 자료는 작은 방송국 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당시 국내의 교육환경에서 비디오를 통한 교육은 시청각 교육의 핵심으로서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이었다. 1988년에는 전 교실에 선진화 교탁을 설치하고 컴퓨터, 자료제시기, 프로젝션 TV를 두어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한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 2. 광양제철고등학교와 교사(校舍) 교체

개교이후 광양제철중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당시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전문 제철소로 그 생산규모를 확장해나가고 있어 생산 공장 설비의 신축과 더불어 직원 채용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교육재단은 직원 자녀의 향후 증가 추이를 예측하여 중학교 교사(校舍)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광양제철중학교는

부지의 한계에 봉착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중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쪽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광양제철중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의 교사(校舍) 교체로 가닥을 잡아 1994년 1월 18일에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

### 3. 태금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와 통폐합

1980년 광양제철소 입주 이후 태인지역은 공단으로 둘러싸여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일부 지역주민들과 모교 동창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자는 대다수 주민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태금중학교는 2011년 3월 1일에 광양제철중학교와 통폐합되었다.

### 4.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2013년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독서토론 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였다. 층별 교과누리, 교과별 교사연구실, MS, 수업분석실, HB, DID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교과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이 용이해져 학습자 중심의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본교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조직 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광양제철중학교형 교과교실제 모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독서토론 선도학교 운영을 하면서도 호평을 받을 수 있었고, 2010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전라남도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라남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로 선정됨과 동시에 교육부 추천 대상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교내 토론대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

### 5.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열정

2013년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및 독서토론 선도학교 지정, 2014년 자유학기제 도입을 계기로 수업의 패러다임을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이 강조되는 학생 중심수업과 논리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독서·토론수업으로, 생활지도는 인성 중심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코드에 발맞춰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 표출을 방해하는 생활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축제 주간을 계절별로 운영을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수업, 국어수업시간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독서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SW교육 희망학교와 SW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코딩 교육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진로탐색활동

### 6. 앞서는 교육 활동

1998년부터는 위성 교육 방송을 활용하기 위해 위성방송 시청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2000년에는 사이버학습실을 운영하여 전 교과와 교수-학습자료를 탑재하여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2013년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실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실 수업 방식을 혁신하였다.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구축된 이후에는 4년간의 독서토론 선도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2014년 교과교실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학교 안 전문학습공동체를 5개 주제로 운영하여 수업, 생활지도, 상담, 인성, 진로 면에서 동료성을 기반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 구글클래스라는 공통된 플랫폼으로 다양한 콘텐츠 수업 및 과제 중심 수업과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으며, 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III. 주요 교육활동

### 1.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2014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 자유학기제 연계학기 운영, 2020년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자유학기 활동의 각 프로그램은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설되,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 다양한 수업 방법, 과정 중심 평가, 개별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5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학교로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0년에는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마을 등과의 협업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부모 지원단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 2. '읽'에서 '생각', '성찰'로 나아가는 독서교육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급변하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정서, 종합적 사고력, 창의성, 능동성, 자기주도성 등 제반 지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독서교육은 그 중요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교과부로부터 선진형 교과 교실제 예

산을 지원받아 독서토론 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교과외의 특성에 적합한 독서토론·실험·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융합수업 등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가 가능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독서토론 선도학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광양제철중학교는 책을 읽고 '읽'에서 '생각'과 '성찰'로 이어지는 독서교육을 2017년부터 국어시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책을 구입하여 15종의 도서 각 5권씩 총 75권과 다수의 시집을 구입하여 학년별 국어교과교실에 비치해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1학년은 1학기를 광양제철중학교 도서관(그루터기, 2008.11.11.개관)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 12월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3.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커짐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부모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2016년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학부모 진로인성아카데미 등 지속적으로 학부모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내용에 따라 명칭은 바뀌었지만 정기적으로 학부모들과 만나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자녀와 함께 등교하여 수업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내며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는 '1 Day 자녀학교생활 보는 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4. 인성·나눔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을 익히고 실천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인성 핵심 덕목을 선정하여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3년 학교문화개선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행복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먼저 1,2학년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행복교과서로 행복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 주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복 나눔 콘서트, 행복제조UCC 공모전, 행복·감사 나눔 졸업식, 포레 상담반 운영, 우리 학급 통(通)통(統) Day' 등이 있다. 특히, 행복



행복연구센터의 행복교과서 행복수업



야외 국어수업



광철중 유튜브 소통 채널



광철중 미술시간 모래조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가야금반 동아리 활동



재단 비전 연수에서 역할극을 준비하는 교사들

나눔 125운동(1주 1善, 1월 2讀, 1일 5感)은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문화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2020년에는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행교인(행복교과서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자유학기 희망학교를 운영하면서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진로의 날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진로 인성의 날을 연 2회로 운영하다 2017년부터는 진로인성주간으로 확장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 5. 자율과 자치의 학교문화 구현

학생자치회 중심의 특색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커지는 학생의 역할에 부합하여 학급자치, 학생회, 자율동아리, 교내 주요 행사 등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여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자율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9년에는 환경, 체육, 음악, 문예, 봉사, 댄스 등 11개 영역의 17개 자율동아리가 활동하였다. 동아리 개설, 홍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정규수업 시간외에는 자율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각종 경연 대회나 발표회에 참가하여 대외적으로 학교 홍보사절단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 축제인 '광호제'를 매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봄꽃 축제, 2019년 낙엽축제까지 축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6. 배움과 성장의 교사 전문성 함양

배움과 협력으로 인한 공동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에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2008년 '창의적 교육을 사랑하고 모색하는 교사모임'을 필두로 2016년 교사연구동아리인 self study, 6개 교과 군으로 구성된 교과교육연구회 등은 동료교사들과의 팀 연구와 실천으로 수업 개선을 도모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구성되었다.

이런 교사들의 노력이 발전하여 2019년 전문적학습공동체인 광수담(광양제철중학교 수업담화)을 탄생시켰고 2020년에는 학년단위로 구성된 배움과 성장의 나라(1학년), 아·세·속(2학년, 아이들 세상 속으로), 진로 디자인(3학년)과 주제단위로 구성된 행교인(행복교과서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광수담 등 5개의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 7. 지역사회와의 어울림(나눔)과 소통

학교가 통합된 태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초심리검사, 학습집중력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



# Pohang Jecheol High School

## 포항제철고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포스코 설립 후 포스코교육재단은 효자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여 직원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인문계고등학교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교육부는 1980년 11월 26일 각 학년 3학급, 전체 9학급 360명을 정원으로 하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설립을 인가했다.

학급당 40명의 소인수 학급으로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포항제철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진행되었다. 이듬해인 1981년 3월 1일 이대호 초대교장이 부임하였고, 1981년 3월 6일 입학식을 가졌다.



포철고등학교 상량식 (1984.)

## II. 주요 발자취

### 1.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열정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최우선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했다. 학부모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포스코 직원들의 자녀 교육열을 충족시켜야 했고, 자녀를 포항제철고등학교에 보낸 상당수 포항 시민들



포철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학생을 격려하는 박태준 설립이사장 (1981.4.1)

의 기대치 역시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신설 학교를 짧은 기간 내에 명문 고등학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의 비상한 노력과 열정이 요구되었다. ‘짧은이여! 공부하라, 또 공부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교직원 이 전심전력으로 학생 지도에 매달렸다. 또한 “어제의 교사는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당시 교무실 벽에 걸어놓았던 슬로건을 기본으로 사제동행(師弟同行)을 강조하여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앞서가는 학원 건설, 빛나는 학풍 조성, 존경받는 사도 확립, 창조하는 능력 배양을 학교 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의를 다하였다.

## 2. 교육 환경의 선진화

포항제철고등학교는 먼저 교육활동의 기본이 되는 학급 편성,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다른 학교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당시 학급 정원이 60명 정도가 보편적이었던 현실에서 40명의 소인수 학급을 운영한 것부터가 파격적이었다. 66㎡ 규모의 정규 교실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최신형 곡면 칠판을 설치하였고, 복도에는 학생 1인당 1개씩의 사물함을 배치하였다. 또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AV시스템을 통한 시청각 교육을 도입하였다. 이는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깨뜨리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 시스템으로 시청각실·방송실·어학실·음악실 외에 일반 교실까지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별실을 활용해 학습 능력을 크게 제고해 왔다. 1983년에 준공한 생활관(미덕사)은 총면적 750㎡의 2층 건물로 한실, 부모 침실, 아동실, 두개의 방, 거실, 주방, 다용도실, 서재,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되었다. 이곳은 여학생들의 조리 실습과 생활예절 등의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야간에는 우수 학생들의 합숙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1998년 이후에는 포항제철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구교사에서 현재의 신 교사로 이전하고, 한층 더 선진화된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여 질 높은 수업을 진행하였다.

## 3.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운영

정부는 고교 다양성과 사학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를 검토하고 2002년부터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의 6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이에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서 2010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 기숙사를 완공하면서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



기숙사 착공식

교로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다음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2024년까지 5년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 Ⅲ. 주요 교육 활동

## 1. 지성(智性) 교육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개인별 학습 지원체계 강화와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지성 육성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학습플래너 제작 및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통합 상담으로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한 진학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개개인별 학업·진로·학교생활과 관련한 다각적 상담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코칭 캠프, 멘토·멘티 제도 및 전 교사 학습 멘토화, 학부모들을 위해 자기 주도 학습법 코칭 연수를 연간 2회 실시하며 진로 및 학습 멘토링과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목표관리와 그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업역량 강화를 심화토론 수업비율 확대, 참여형 수업 모형개발을 위한 교과별 연구회 활동과 자기 수업 모니터링과 수업 공개를 통한 자체 장학으로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및 진로교육 연계수업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개인별 진로계획에 부합하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2. 적성·진로교육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대학 전공 분야 탐구에 필요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지식과 기능을 함양하고,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통합적 인식력과 체계적 분석력, 학문 연구에 대한 도전의식 함양과 합리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해 진로 선택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 후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 및 포스텍(POSTECH)·서울대 교수의 지도 하에 여러 분야의 학문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며, 실험 실습과 조별 편성을 통한 탐구주제별 탐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이다.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으로 창의성 계발 및 탐구능력 계발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포스텍(POSTECH) 교수 및 전문가 그룹이 과학 교양 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재구성하여 지도하고 평가하는 I.T.P(Integrative Thinking Program), 정규 교육과정과 연결된 사회·경제·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기계공학·전자공학 분야 등의 다양한 심화 실험 탐구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선정하여 실험 및 탐구 활동을 실시 후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A.T.P(Advanced Thinking Program), 관심 분야 선정 후 개인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인증하는 I.R(Individual Research)이 있다. 그 외에도 영재성이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속진 시스템인 PT(Placement Test)나 AP(Advanced Placement)를 수강할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 3. 창의교육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인 창의융합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성·진로 과정과 과목 탐구 활동을 연결시켜,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서 다양한 창의 교육 활동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한 창의 융합 학술제를 8가지의 탐구과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을 위한 '모의유엔(POSMUN)', 사회문제 탐구과정으로 생각의 힘, 표현의 힘, 성장의 힘을 높이고,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타인과 공유하는 '아이디어 공유포럼(POSTED)', 자치법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그에 따른 학생 자치법정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법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 모의재판(POSTICE)', 창의 경영 탐구과정으로 기업을 조직해 자유롭게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여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모의사업 발표(POSCORP)'가 있다. 그



포철고 학생들의 A.T.P(Advanced Thinking Program) 활동



재단 인문고 연합 제1회 아이디어 공유포럼(POSTED) 행사

외에도 반별 학생 토론(POSBATE), 독서 탐구과정으로 학생들이 기획·운영·참여·평가하는 학생중심 교육활동으로 독서가 중심이 되어 여러 분야가 결합된 독서 융합 프로젝트이자 독서축제인 '북적북적 페스티벌', 수학 페스티벌(MATH TIVAL), 정보과학 탐구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사물인터넷과 AI를 구현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한상상 메이커스(REVO) 등을 진행하고 있다.

#### 4. 시민 의식 교육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포스코교육재단의 “글로벌 일류 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의 비전에 근거하여, 성숙한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춘 모범적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인식 및 창의적 의사표현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 참여 및 공동체 의식과 각자의 적성·소질을 토대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리더로서 다양한 자치 활동을 실행하고, 교사의 지도가 아닌 스스로 안내하고 조력하는 학생 활동 및 생활 규정 실천 문화를 조성하며,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봉사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하는 '세레노 리더



교내 체육대회에서 단체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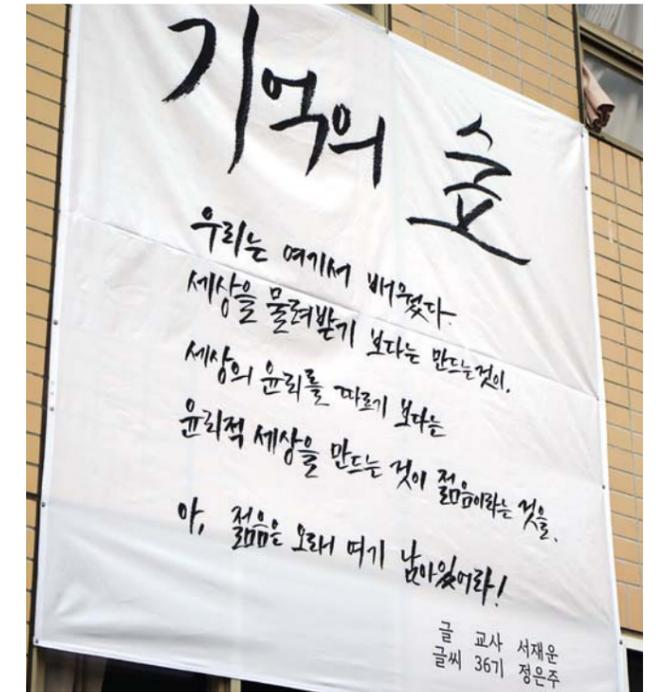
십 함양 프로젝트'가 있으며, 학생들의 자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매월 셋째 주를 자주 주간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두드림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즐거운 자치문화라는 목표로 개인은 물론 팀과 반별 장기자랑 등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는 참여 마당이자 모두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화합의 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구성원이 소통하고 있다.

#### 5. 인성(人性) 교육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포스코교육재단의 2003년 '포스코교육재단 유·초·중·고 연계 인성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함께 인성 영역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인성 우수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고3 수험생 신분에도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준 학생이 인성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고,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3학년 재학생 모두의 타임캡슐을 매설하고 20년 후에 해당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억의 숲' 프로그램이 있으며, 2009년부터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졸업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포철고인' 상을 제정하여 졸업생 선배들과 재학생의 만남을 도모하고 있다.



기억의 숲 행사 현수막



자랑스러운 포철고인상 시상식



포철고와 독일 드레스덴 프라우엔 김나지움 고교생들과의 프로젝트 활동

## 6. 스포츠 및 문화 예술 함양 교육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스포츠 및 문화 예술 함양 교육 활동을 위해,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1999년부터 전국 인문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43인조 오케스트라를 창단 운영하고 있다. 또한 1인 1기 교육을 실행하여 요가, 헬스, 검도, 축구, 농구 등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하고, 2018년부터는 포항시와 MOU를 체결하여 해양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 7. 국제 교류 협력 활동

포항제철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청소년의 사회 참여의식 및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및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포항시가 독일 드레스덴시와 국제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독일 드레스덴 프라우엔 김나지움과 학교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학교를 방문해 프로젝트 수업과 홈스테이 실시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문화교류봉사단을 통해 여러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 IV. 주요 교육성과

### 1. 대학 진학 및 학력 우수 고등학교로의 확고한 자리매김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로서, 개교 이후 대학교 진학과 특기 적성 분야 등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해 왔다. 이렇게 포항제철고등학교가 단기간에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위치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대학 입학 실적에 힘입은 바가 컸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제 1회 졸업생이 총 113명(3학급)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10명이 서울대에 합격함으로써 포항시 전체를 놀라게 하였다.

1983년 11월 14일 실시한 모의 학력고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관)에서도 1, 2학년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포항제철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2011년 34명, 2012년 30명, 2015년 29명, 2016, 2017년 32명 등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쾌거를 일궜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이처럼 대학 진학 명문고이자 학력 우수학교로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교육활동 수상

포항제철고등학교는 1999학년도부터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계획서 및 추진실적 우수학교(1999년), 아름다운 학교 교수 학습부문 우수학교(2002년), 전국 고교생 경제 경시대회 대상(2004년), EBS 장학퀴즈 제왕전 우승(2006년), 전국 논술경시대회 2년 연속 단체 최우수상(2011년), TESAT(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 고교생 경시대회 최우수 단체상(2009년),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 단체 우수상(2010년), 제4회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 선발(2011년),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대회 최우수상(2014년), 정보화 우수학교 인증(2015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축제(MATH VIP) 여성 가족부 장관상 수상, 경북 청소년 페스티벌 5년 연속 대상 수상(2019년), 인공지능(AI) 교육 중점학교 선정(2020년) 되었으며, 2010~2011년, 2014~2016, 2018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였다.

## V. 기타 현황

교훈	자주, 창의, 실천
교표	 교표는 포스코 사표에 담긴 의미와 인문 고교, 남녀공학, 학문예의 정진 등 종합적인 의미를 함께 담아 디자인하였다.
교목, 교화	교목 : 개교 당시 승리와 영예를 상징하는 월계수였으나 희귀종이어서 1995년 소나무로 변경 지정 교화 : 장미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13,806명 (2021년 1월)
주요 연혁	1981. 03. 06. 포항제철고등학교 개교 1981. 06. 01. 구교사 기공 1982. 02. 25. 구교사로 이전 1983. 09. 30. 미덕사(생활관) 준공 1986. 03. 26. 체조부 창단 1995. 02. 28. 신 교사 준공 및 이전 1999. 03. 01. 오케스트라 창단 2001. 10. 20. 자율형 사립고 시범학교 지정 승인 2010. 04. 23. 자율형 사립고 지정 승인 2011. 06. 27. 전국 단위 모집 지정 승인 2012. 01. 31. 청암학사(기숙사) 준공 2013. 02. 22. 축구부, 야구부 창단 2019. 06. 20. 자사고 재지정(5년 간) 승인 2020. 03. 02. 인공지능(AI) 교육과정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문화 교류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포철고 학생들

# Pohang Jecheol Technical High School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1969년 11월 22일 공립 포항공업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공업고등학교 설립인가와 함께 '포항공업고등학교'라는 교명은 받았지만, 학교부지는커녕 교실 한 칸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인근 포항고등학교 교실을 빌려 1970년 3월 12일 금속과 1학년 61명, 기계과 2학년 121명으로 개교하였다.

그해 11월 2일 포항시 득량동 169번지 부지에서 포항공업고등학교 신축교사 기공식을 가졌고, 이듬해 4월, 1차 학교 건물을 완공하였다. 득량동으로 자리를 옮긴 포항공업고등학교는 포스코를 비롯한 연관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1978년 3월 1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동년 9월 1일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인수함으로써 사립화가 되었다.

## II. 주요 발자취

### 1. 특수목적 공업고등학교로의 전환

1977년 10월 25일, 포항공업고등학교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란 교명 변경 승인을 받았다.

포항공업고등학교에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뀐 1978년 문교부로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을 받았다. 당시 실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포항제철공고, 수도전기공고, 금오공고, 대한중석공고 4개교뿐이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된 뒤 신입생 선발을 도 단위 모집에서 전국 단위 모집으로 확대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 설립 당시의 포항공업고등학교 전경 (1974.11)

포철공고 실습장면 (1980.9)

## 2. 사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탄생

1978년 8월 22일 감독관청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9월 1일 인계인수식을 가짐으로써 사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탄생하였다. 학과 개편과 학칙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1979년 1월에는 제7회 졸업생 591명을 배출하여 산업현장으로 보냈고, 사립화 이후 교사 30여명을 전국 각지에서 공개 채용하여 우수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학교의 전통을 수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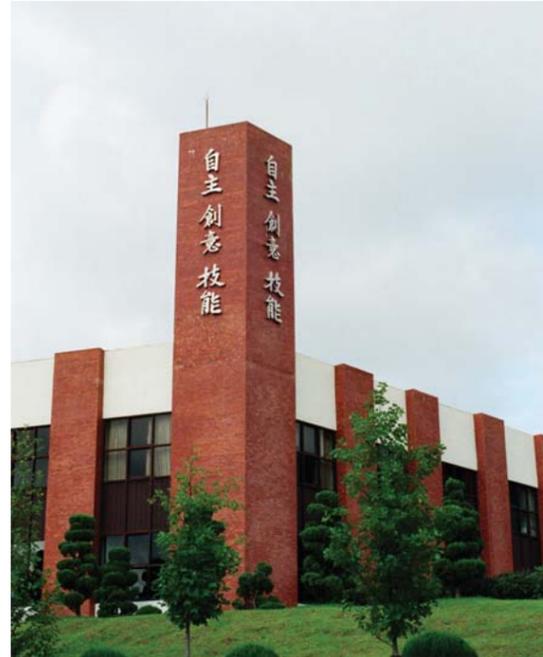
학급당 인원을 소단위 체제의 40명으로 운영하되 실습은 20명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 2월 10일에는 양학동 구교사에서 포항시 지곡동 학교 단지에 시설을 갖추고 이전함으로써 사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 3. 직업기술 교육의 내실화 추구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전산화시스템 추세에 맞추어 1983년 9월 2일 전자통신과를 신설한 이래, 1993년 9월 2일 취업이 어려운 금속과 1학급을 줄이는 대신 자동차과 1학급을 신설하였다. 2002학년도부터 기존 학과의 명칭 및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IT관련 2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취업을 향상과 학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산업체 수요가 높은 분야로 학과를 다시 개편하여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IT학과를 전기제어과, 산업전자과와 통합하여 각각 2학급으로 증설하였다.

또한 포스코와의 연계성을 충족시키는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한편, 철강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역사 의식을 기르는 정신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기초과학교육과 어학교육까지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포철공고 교훈탑



시스템 제어 실습 현장

## 4. 철강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비상

정부는 2009년 고교교육 혁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술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직업계 고등학교의 선진 모형(model)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을 발표하였다.

이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산업체 맞춤형 우수 인재육성, 철강 마이스터고의 비전실행 등을 위한 학교발전방향 T/F를 만들어 재단과 함께 학교발전 운영전략계획 수립하였다. 이후 2012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철강기술과, 철강생산자동화설비과, 철강전자제어시스템과로 개편하였으며, 2013년 3월 4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교하면서 미래지향적 수업환경인 스마트스쿨을 구축하여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마이스터고 지정을 기뻐하는 학생들

## 5.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수업공간으로 재창출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경주지진(규모5.8)이 발생하면서 본관동의 외벽과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기에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규모5.4)으



학생 활동 중심 수업장면

로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관동의 행정동은 안전진단 E등급으로 개축공사를, 교실동은 안전진단 C등급으로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여야만 하였다. 본관동 개축공사(2018.7.5.~2019.6.30)와 더불어 교실동의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개축공사를 통해 본관동은 2019년 8월 13일 '창의관'이라는 이름으로 준공식을 마쳤고, 교실동은 그 해 여름방학부터 교과교실제 도입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2020년 2월에 마친 이 공사를 통해 학생 활동중심 교과교실 27개와 홈페이지, 도서실, 학생자치실, 미디어스페이스 등 다목적 공용 공간과 학생 휴게 공간 등이 만들어져 학생 중심 수업 공간으로 재창출 되었다.

### 6.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정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고교교육 혁신방향(18.8.17)'을 발표하였다. 이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과 아울러 학점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교과선택형 학교 공간혁신 사업으로 교과교실제까지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점제를 통해 '미래 직업세계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각 과별로 인력양성 유형에 따른 코스형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 영, 수 기초과목에 대해 후학습지원을 위한 진로선택과목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다.

## III. 주요 특색교육 활동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2012년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후 철강 영마이스터 인증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소양과 전공분야 기술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색교육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매년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 1. 철강영마이스터 인증 관리

인증영역을 기본소양과 직업기술능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역별 인증평가는 수준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마이스터 인증의 융·복합 자격증 및 봉사활동은 S등급 성취가 필수이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포스코 및 포스코 패밀리사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영마이스 인증을 받도록 하여 인성과 기술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 2. 졸업생 추수지도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을 위한 인성교육 리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 확립하고 직장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정례간담회(총동창회 1회/년, 포스코동문회 3회/년) 및 사제 간 만남의 날(Home coming day) 운영을 통하여 사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함양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사회적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등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다기능 자격증 취득 교육

영마이스터 인증제와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동기를 부여하고 방과후 전공 심화프로그램 및 융합 자격증반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체 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4. 산학협력 강화

2011년 5월 포스코 및 패밀리사, 교육청, 포항시청, 포항고용지원센터 등과 산·학·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연계를 협의 하면서 취업률 제고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해외 우수산업체 현장방문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마련하고 취업 확정 인원에 대한 산학협약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청과 협력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5. 산학 겸임 교사 활용

산업 현장의 신기술 및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산학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 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 수준 도달까지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체에 취업한 졸업생을 멘토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6. 현장 적응 특성화 교육

논리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력 함양을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트리즈(TRIZ)교육을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시그마 교육(2학년) 및 QSS교육(전 학년)을 통하여 조직 이해능력 향상 및 자원 관리능력 등의 직업 기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3학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학년 대상으로 연간 100시간의 철강제조 이터닝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다.

### 7.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직업세계의 변화를 알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및 취업 대비 능력을 배양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꿈·끼 탐색주간을 이용한 취업캠프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소식지와 드림레터를 학기별로 제공하고, MBTI성격유형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치제어밀링 실습 장면



브라더 교육

또한 공기업 공채 대비 NCS기반 입사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다양한 취업 면접 전형에 대비하고 있으며, 직장인 예절 및 리더십 함양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진로아카데미를 매년 실시하여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 8. 방과후 동아리활동 강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신장시키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예술·체육 분야 1인 1특기적성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1개 반 15명 정원으로 운영하며, 수업을 통한 결과물은 학교축제인 응지제를 통해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들은 뽐내고 있다.

1979년 창단한 관악부를 비롯하여 밴드반, 사물놀이반, 통기타반, 축구반, 농구반, 헬스반, 검도반, 드론반, 가죽공예반, 목공반 등 22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각종 대회에도 참여해 자신들의 기량을 널리 펼치고 있다. 또한 전공능력향상 및 다기능 융·복합 능력배양을 위한 전공심화반,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토익스피킹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기술자격반도 운영하고 있다.

### 9. 인성함양교육

입학 당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린봉사단, 또래 도우미, 한마음 봉사단 등의 여러 교내 봉사동아리를 결성하고 일일일선(一日一善)의 실천을 통한 건전한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영마이스터 인증제 영역 안에 봉사활동시간을 넣어 인성교육과 함께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유기적으로 병행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브라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기르는 동시에 선후배간의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 건전한 직업인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988년부터 나주공고와 영호남 동서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로봇 동아리 활동



진로캠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 10.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2018년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진로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2학년에 선택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일괄적 평가를 지양하고 과정형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진로교육 강화 측면에서 학생 개개인이 진로포트폴리오를 3년간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이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로·창업 동아리 활동으로 P-CREFA 프로그램(드론, 3D 프린팅, 코딩, 목공, 창의융합 독서)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형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 IV. 주요 교육성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 전국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다수 수상과 국제 로봇콘테스트 대상(2007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교육부장관상(2010년),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최우수 학교 선정(2011년),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최우수학교 선정(2011년), 정보화 교육 우수학교 선정(2015년)과 다수의 학생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3년 연속 90%가 넘는 취업률(2018년 92%, 2019년 93%, 2020년 96.8%)을 보여주며, 최고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격영상수업

## V. 기타 현황

교훈	자주, 창의, 기능
교표	 '工' 자는 장인정신과 두 팔을 힘차게 하늘을 향해 벌리고 있는 젊은이의 원대한 포부와 기상을 나타내며, '高' 자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와 포스코의 고로를, ⑤는 'steel'의 첫 자로 포스코를 상징한다
교목, 교화	은행나무, 장미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14,818명(2021년 1월)
주요 연혁	1969. 11. 22. 공립 포항공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1. 04. 03. 개교식 및 교사 준공식 거행 1978. 03. 01.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78. 09. 01.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인수 1978. 10. 23.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1981. 02. 10. 양학동 구교사에서 현 신축교사로 이전 2012. 05. 01.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2012. 11. 30. 다목적강당(웅비관) 준공 2013. 03. 04. 마이스터고 개교 2013. 03. 06. 스마트 스쿨 준공 2019. 08. 13. 본관 행정동 (창의관) 준공

# Gwangyang Jecheol High School

광양제철고등학교





## I. 설립 및 개교

광양지역 학원단지 내에 유·초·중학교를 설립 후 단지 내 직원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연계교육을 위해 1985년 광양제철소 주택단지 내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고등학교 건물은 1988년 1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1986학년도부터 1987학년도까지는 중학교의 잉여교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광양제철고등학교는 1986학년도 인문계 1학급 40명(남녀 공학)의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광양지역은 평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철소가 건설 단계에 있었고 학교 건물도 건설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17명에 불과하였다. 추가 모집 7명까지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3월 3일 입학식을 갖고 14일 초대 김진 교장이 부임하여 개교식을 치렀다.

1987년 4월 6일 착공, 1988년 1월 31일 준공된 광양제철고등학교는 대지 3만4,248㎡, 건평 5,412㎡에 15학급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이었다.



광철고 개교 (1986.3.3)

## II. 주요 발자취

### 1.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2002년 자매학교인 포항제철고등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 학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서관 1인 1좌석제 등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0년 4월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문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통해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인재들을 신입생으로 유치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통해 인근 타 고교들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확충 및 활용

광양제철고등학교는 체육관 및 22개 특별 교실을 확충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선택형 수업



박태준 설립이사장 광양지역 학교 방문 (2003.4)

및 교과별 교실 수업, 다양한 수업 모형,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교생이 자신의 좌석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9실 규모의 열람실, 전문 사서가 관리하는 5만권의 장서를 구비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기숙사인 청암학사를 준공하여 명실상부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청암학사 준공식

### 3. 우수인재 확보 주력

전국단위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입학과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두고 있으며, 진로진학부(2020년 신설, 이전에는 입학홍보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입학 및 홍보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광주 전남 및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거점 및 권역을 지정하고 지역 학부모들과 연계한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해마다 진주, 창원, 부산 등 경남지역과 서울 경기지역 등 전국단위에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우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대입 실적 등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4. 전문성을 갖춘 종합 컨설턴트로서의 교사 역량 강화

교사들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위상에 알맞은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와 진로진학에 초점을 맞춘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60시간 이상의 교과 및 진로관련 직무연수 시간 이수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이에 알맞은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업 관련 교과 협의회 활성화, 자율장학 및 수업공개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다.



배움중심 수업 운영을 위한 전 교사 직무연수회

2018년부터는 학기 중 실시하는 연수원학교 연수에 전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공동체 및 배움중심 수업에 대한 다양한 강의 및 실습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향상과 컨설팅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학년도부터는 교사 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수업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III. 주요 교육 활동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어, 영어, 수학의 도구형 과목 편성을 50%이하로 하고, 선택과목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2015 교육과정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



이순신 난중캠프

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로관련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완전 학생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미래대학 프로그램 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개별화된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으로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학력수준 향상으로 전국 상위 수준의 진학성적을 거양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서도 진학과 진로, 인성, 상담교육을 통합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운영하고, 학생의 자기주도능력 함양을 위해 학생 자치회 주관 자율조회, 학생중심의 동아리 활동, 자치 법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의 경우 주 2시간의 정규동아리 활동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주말을 이용한 자율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자율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1. 교육의 자율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정을 제외하고 201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2,3학년 교과이수단위 118단위 중 학교지정 52단위, 학생 선택 66단위를 운영하는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다. 201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는 2,3학년 교과이수단위 118단위 중 학교지정 32단위, 학생 선택 86단위를 운영하여 학교지정을 줄이고 학생 선택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특화 운영 프로그램으로 교양과목에서 논술을 학교 지정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으로 심리학, 실용경제·보건·진로와 직업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진취적인 진로 개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진로탐색의 장, 진로관련 검사 및 상담, 진로의 날 행사, 전공박람회 개최, 창업과 진로캠프를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활동, 학부모 진로교육, 커리어 존 활용 진로교육활동 등 자기주도적 진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교육의 특성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체험활동, 포스코 관련 주제 탐구활동, 순천지청, 여천화학공단, 사천 한국우주항공 연구, 하동화력발전소 활동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2020학년도에는 경남 진주 소재 연암공과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공학 및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TTP(Integrative Thinking Basic Program)'을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인터넷 활용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학술 컨퍼런스 발표대회



독서논술 수업



포스텍교수 초청 특별 강연

언어, 고급수학, 수학사 탐구, 화학사 탐구, 생물학 탐구 인문고전 탐구, 경제학 원론 등을 토론 식으로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탐구 활동에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19학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미래대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진로와 진학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인 학술컨퍼런스, ITP 등은 미래대학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운영하여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인성교육 강화 활동

2003년 '포스코교육재단 유·초·중·고 연계 인성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도 전 학생의 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하고 바른 가치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성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주인, 창의인, 실천인을 목표로 한 광철인 인재상 운영, 학생상별점제를 활용한 바른 생활 습관 유도, 월1회 자율조회, 자치법정을 통한 자율 활동 강화, 교내 인성상 신설 등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성상의 경우 월 1회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에 선행, 봉사, 책임, 준법, 환경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율조회에서 발표하고 학생과 교사의 추천으로 교내 인성우수 교장 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졸업식 최고의 상을 학업상이 아닌 인성상으로 수여하고 있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동기 부여에 기여하고 있다.

### 4. 학생 건강과 체력 증진, 예술 활동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리더십을 키우며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글로벌 일류 시민으로서 학생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순신 구국의 길 걷기 활동을



교내 체육대회(한빛제) 공연 모습



모의유엔 (G-POSMUN)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한 난중캠프, 1인 1운동으로 유도,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요가, 배드민턴, 마라톤 종목을 운영하는 토요일 스포츠클럽활동, 1년 2회 체력왕 선발대회, 연 1회 건강달리기 대회, 체육대회 실시, 1교 1 운동부로 축구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분기별 1회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연주에 참여하고 전교생이 자발적으로 감상 활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2018년 정규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는 모두 47개, 자율동아리는 1학년 46개, 2학년 53개, 3학년 42개로 총 14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동아리 활동을 정리하는 한빛 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치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 있다.

### 5. 지역 사회의 연계 방안 프로그램

지역 내 위치한 POSCO 산하 연구소와 MOU 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2학년 대상으로 POSCO 기업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류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화 탐구활동을 실시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 축구부와 연계하여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 중이며,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사회통합과 체육특기자를 제외한 일반 전형에서 20%를 지역 인재로 할당하여 전남지역의 인재를 입학시키는 등 광양시가 추구하는 젊은 교육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6. POS시리즈 프로그램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실과 문제의식, 국제적인 공조와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의유엔(POSMUN)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 등 산하 조직들을 학생들이 직접 조직하고 운영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문제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교내 아이디어 공유 포럼 및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POSTED를 개최하고 있으며, 과학/공학 분야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레보(POSREVO)를 2019년 신설하였다. 대회를 만들어가는 사무국,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내는 메이커, 메이커를 도와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이스터가 모여 진행되는 공학관련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2009 대교눈높이 전국 고등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광철고 축구부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친구 안고 오래 버티기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주요 진학실적 및 성과

2010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이후 끊임없는 교육혁신과 다양한 수업 방식의 도입,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전국단위 명문 사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입시 결과에서는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서울대 14명, 2016학년도 서울대 15명 등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입시실적을 꾸준히 거두고 있다. 개교 이후 이러한 괄목할만한 입시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 2.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교육활동 수상

학생들의 주요 수상실적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그 분야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는 물론이고 창의성을 겨루는 과학, 정보 경진대회, 글짓기 등과 같은 예체능 등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상, 제30회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 수상(2012년), 고려대 미디어스쿨 동아일보 사장상(2013년), 제17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금상(2016년), 고등학교 과학탐구 전국대회 은상(2018년),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수상 등이 있다.



자원봉사 축제인 한톨나눔축제에서 모둠 협력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 V. 기타 현황

교훈	자주, 창의, 실천
교표	 <p>교표는 포스코교육재단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고 사학재단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동시에 높은 학문 도야의 장임을 나타내었다. 모양은 '높을 고' 자의 도안 가운데에 초기 포스코교육재단의 마크를 넣어 광양제철고등학교의 기상을 드러내었다.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는 교표를 동복 주머니 겉면에 새겨 넣어 애교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세련미를 더하여 시각 효과를 높였다.</p>
교목, 교화	소나무, 장미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10,289명(2021년 1월)
주요 연혁	<p>1986. 03. 14. 개교식                      1988. 01. 30. 신축교사 준공                      1988. 02. 16. 제 1회 졸업식(7명)                      2002. 03. 0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학교 지정                      2010. 04. 13.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2011. 05. 04. 청암학사(기숙사) 개관                      2011. 06. 28. 신입생 전국단위 모집 인가                      2014. 02. 27. 청암학사 증축                      2014. 07. 17.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통과(1차)                      2019. 06. 24.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통과(2차)</p>

# Incheon posco Academy

인천포스코고등학교

學  
達  
理念

教育報國의 精神이래  
自人 進德人 勉人은 龍한다





## I. 설립 및 개교

2011년 11월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패밀리사 임직원 자녀의 교육복지 증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포스코교육재단 측에 학교 운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3년 12월 11일 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4년 9월 인천광역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광역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학년 당 8학급, 240명 입학할 정원으로 인가받았다. 학교는 부지 면적 25,000m<sup>2</sup>, 연면적 15,984 m<sup>2</sup>의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일반 학교에 비해 1.5배 큰 규모로 지어져 2015년 2월 12일 준공식을 가졌다.

개교 추진반장을 맡았던 안종진 교장이 초대 학교장으로 취임하여 2015년 3월 1일 개교 및 입학식을 가졌으며, 첫 입학생은 포스코 임직원 자녀와 인천광역시 단위 학생모집을 통해 243명을 선발했다.



인천포스코고 설립을 위한 실시 협약식 (2012.11.19)

## II. 주요 발자취

### 1. 우수한 교육환경, 2017년 '굿디자인(Good Design)' 수상

인천포스코고등학교는 개교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여 복도 중앙에 홈베이스(1인 1캐비닛)를 보유하고 있다. 각 교실마다 전자칠판 및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여 자기주도 학습 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각 층에는 2개의 아이디어 룸을 설치하여 영어와 수학의 n+1 수준별 이동수업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0명 내외의 학생 수



인천포스코고 교훈비

강이 가능한 2개의 중규모 교실, 10명 내외의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7개의 소규모 교실도 두고 있으며, 각 층별 자기주도학습실(1인 1좌석제)에서는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

창업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해 완비된 시설로 5차산업혁명실과 목공실, 1개 학년이 입장 가능한 소강당, 실내 체육관과 샤워실, 체력단련실, 정보검색대, 노트북 충전대, 미세먼지 측정기 등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회실, 학부모회실, 각 층별 동아리실도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 '굿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하며 학교의 우수한 심미성도 인정받았다.

### 2.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

인천포스코고등학교는 국제도시에 설립된 만큼 글로벌 미래 인재육성과 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중심수업,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선제적 운영,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계열화된 진로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1인 2기(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개교 시부터 30대 중반의 젊은 교사들이 다수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열성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내실 있는 수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역량 및 태도를 고려한 자율적 학교생활지원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 3.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 및 재지정

2014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5년간 운영하고, 2019년 5월 재지정평가를 받았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취지 및 목적 달성도, 학교 운영 실적, 교육과정 운영실적, 재정 및 시설 여건 등과 같은 정량평가와 실사 방문한 심사단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며 2024년까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되었다.

### 4. 금강송 동산 건립

학교 옆 부지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500여 그루의 금강송을 식재하여 금강송 공원을 건립하였다.

20년 후 학생들이 모교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꿈과 함께 성장한 나무를 바라보도록 기획된 행사였으며,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는 숲이 있는 공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자치단체인 연수구청에서는 식재된 나무 및 공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III. 주요 교육 활동

### 1. 중장기 학교 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 ○ STEP1(2015~2016)

1기 학생이 입학하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설계와 구현이 이루어졌다. 또한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거꾸로 교실 및 하브루타 교육' 연수가 있었으며, 글로벌 일류시민 양성을 위한 1학년 해외체험학습(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유네스코 학교 지정, 해외 대학 MOU 체결, 일본 대학 방문, 일본 라크로스 동아리 초청 교류, 미국 TED-ed Weekend 참가 등이 진행되었다.

#### ○ STEP2(2017~2020)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R&E를 진행하였으며, 5차산업혁명실(메이커 스페이스)을 개소하여 실질적인 산출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싱킹, PBL 등의 메이커, 발명교육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학교 인근에 3년간 500여 그루의 금강송을 식재하여 금강송 노벨동산을 완성하였다.



5차산업혁명실(메이커스페이스)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 2. 건학이념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포스코교육재단의 건학이념인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구현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자주인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설립 이사장 박태준에 대한 이해 교육, 타임캡슐 '담송인 혼 탑(塔)'을 제작하여 전교생 '꿈 너머 꿈' 봉인, 진로의식 강화, 멘토-멘티 관계 강화 및 함께 성장하는 교육, 역사 관련 교외 대회의 적극적 참여 및 수상, 학생 자율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선택 등이 있다.

둘째, 도덕인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학기 1회 학년별 인성우수학생 선발,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2017년 입학생까지), 학부모 참여 입학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월 1회 단체 봉사활동, 학생회 및 오케스트라의 외부 봉사활동, STP-R&E와 연계된 청암학술제를 통한 탐구경험의 공유, 사제동행 둘레길 돌기 및 한마음마라톤대회를 통한 협력 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인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 및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 5차산업혁명실을 활용한 창업교육, 학생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등이 있으며, 글로벌 일류 시민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인 연수구 글로벌 에듀업 프로젝트를 통한 영어 능력 향상, 글로벌 마인드 증진 프로그램 운영, 모의UN, English-TED 운영 및 해외교류 프로그램 정착 노력, 2018년 해외교류 프로그램(APYLC: 미국, LIYLS: 인도네시아) 참여 등 국제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3. 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래멘토링 가배지공’이라는 교사-학생 간 사제지간 만남의 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 코칭 연수를 통해 건설링 능력 배양과 학습 및 진로 상담의 상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의 하브루타 교육 이수와 전 교사의 상담 교사화(전교사 상담 이수증 취득)를 통해 체계화된 학습 멘토화를 실시 및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개인적 관심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교사들이 시기에 알맞은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학부모 코칭 캠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래멘토링 '가배지공'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학생

### 4. 진로교육 활동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위해 진로선택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TP-10아카데미(Soaring Talent Program)’는 탐색단계 프로그램으로 지역대학 교수 및 전문가 그룹이 과학 교양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재구성하여 지도하고 평가한다. ‘STP-5아카데미(Soaring Talent Program)’은 도약 단계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연결된 사회·경제·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기계공학·전자공학 분야 등의 다양한 심화 실험 탐구주제를 선정하여 실험 및 탐구 활동을 실시 후 탐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STP-R&E’은 2018학년도까지 운영된 집중 단계 프로그램으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의학, 생명과학, 물리, 건축, 역사, 어학, 사회학, 법학, 공학 등 희망 분야를 전문/일반 과정으로 나누어 전문과정은 지역사회 대학 교수님과 함께 탐구를 진행하고, 일반과정은 선생님들과 함께 탐구를 진행한다. ‘STP-ES / DT / RD’ 프로그램은 2학년 학생을 ES(창업정신), DT(디자인싱킹), RD(독서토론)으로 희망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영역별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분야별 주제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TP-C&C’는 2019학년도부터 실시한 집중단계 프로그램으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섭형 진로프로그램으로, 서로 상이한 분야의 진로희망을 갖는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진로분야의 직업인을 초청하는 ‘직업인의 날’ 행사와 관심 분야가 같은 학생들끼리 테마를 만들어, 직접 장소



진로탐색인 stp-10 아카데미 프로그램 활동



진로체험의 행사

를 섭외하고 시간 계획을 작성하여 3일간 진로체험을 갖는 테마별 진로체험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5. 인성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인성 및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공유포럼(POSTED)'이 있으며, 8개의 운영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자치법정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법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학생 모의재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정치 탐구과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외교 통상 교섭 분야, 국제기구 업무 등에 필요한 실무 능력에 대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의유엔(POSMUN)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청암자치회 및 교통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교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전인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기 1회 학년별로 인성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된 학생을 학생과 교사가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선정하는 '인성 우수상 시상',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을 2017년까지 진행하였으며, 2019학년도부터는 지역사회 약 30여개소에서 1년간 총 6회의 봉사활동을 동아리별로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사제동행 둘레길 걷기와 행사 이후에는 삼겹살 데이를 운영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 6. 스포츠 및 문화 예술 함양 교육 활동

개교부터 1인 2기(S&A, Sports & Art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토요일 오전 4시간(스포츠 2시간, 예술 2시간) 1, 2학년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는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펜싱, 라크로스, 치어리딩 등 12개 프로그램, 예술 분야에서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관현악뿐만 아니라 영상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사물놀이 등 16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라크로스 동아리는 전국 대회에 참여하여 기량을 발휘하며 일본 라크로스 팀과 매년 1회 정기적인 교류전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육상, 레크리에이션, 수요일예술무대를 운영하여 학교 로비인 금강송 홀에서 토요일 S&A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오케스트라, 밴드부, 댄스부, 기타반, 보컬, 피아노 연주 등의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무대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열리고 있다.



드론동아리 교육활동



라크로스 동아리의 경기 모습



사제 동행 체험 학습

### 7. 국제 교류 협력 활동

2018년 APYLC(Asia-Pacific Young Leaders Convention)와 LILYS(Loudon International Youth Leadership Summit)에 가입하여, 2019년에 처음으로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APYLC 주관학교로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POSWORLD 동아리가 광 관광청과 연계하여 교류 활동(물품 기부 운동, 관광청 방문 행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송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학생들이 강화도를 방문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체험을 지속하여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며 외국인과 대화를 통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IV. 주요 교육성과

### 1.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대학 진학 및 학력 향상

첫 입학생부터 학생 중심 수업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과 편성, 계열별 선택과목의 자율적 선택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학력 향상과 괄목할 만한 대학 진학 성과를 내었다. 제1회 졸업생의 진학 결과 서울대 합격자 6명 및 명문 대학에 다수 합격하였으며, 진학 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제3회 졸업생은 서울대학교 10명(의대 1명), 연세대학교 18명, 고려대학교 20명이 합격하였으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진학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통해 진학하였다.

### 2.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교육활동 수상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중등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학교예술교육사업, 과학교육 내실화사업, 주제중심교육 거점학교, 행복성장형 교육과정 선도학교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전국 초·중·고 1개교를 선정하는 ‘법교육 마일리지 우수학교’에 2016년, 201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법무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2명의 교사가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제3회 국립생태원 생태, 환경 탐구 발표대회 최우수상(2016년), 제8회 SKEC 영어글쓰기 대회 최우수학교상(2016년), 제5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대상(2017년), 제17회 미래과학정보창의성대회 대상(2017년), 2018 청소년과학탐구반(YSC) 발표대회 대상(2018년), 국회의장배 고교토론왕대회 국회의장상(2019년) 등을 수상했다.

## V. 기타 현황

교훈	성실, 창의, 도전
교표	 인천포스코고등학교의 교표는 비상과 자유를 상징하는 고래와 비행기를 형상화하여 국제화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교목, 교화	금강송, 담쟁이
졸업생 현황	졸업생 총계 913명(2021년 1월)
주요 연혁	2011. 11. 28.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 운영 요청 2011. 12. 15.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 2012. 11. 19. 학교 설립 실시협약 체결 2013. 06. 26. 학교 설립 계획서 승인 2013. 12. 11. 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2014. 09. 15.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2014. 10. 24. 학교 설립 인가 2015. 02. 12. 교사 준공식 2015. 03. 01. 개교 및 입학식

글로벌 일류시민을  
양성하는  
행복한 학교

## Appendix

1. 법인조직
2. 운동부현황
3. 임원 및 역대 학교장
4. 편집후기

재단법인 | 경영지원그룹

## Management Support Group

경영지원그룹은 재단 산하 12개 학교 및 법인의 예산과 회계결산, 자금운용, 세무업무, 계약, 감사,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기자재 등 재산관리, 토목·건축·전기·소방·IT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 기획인사그룹

## Strategic Planning & Human Resources Group

기획인사그룹은 우수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을 위한 교육기획, 재단 산하 학교 운영,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및 처우 관리,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홍보, 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운동부 현황

포스코교육재단은 재단 산하 각급학교에 체조부, 축구부, 야구부 3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 체조부



1982년 국내 체조 중흥을 위해 단위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규격의 체조 전용경기장을 건립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에 체조부를 창단했다.

1984년부터는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배 전국 초·중학교 체조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 등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6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체조 안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루운동에서 또 다시 금메달을 차지한 김수면 선수, 2000 시드니 올림픽 안마에서 4위를 차지한 이장형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와 우수 선수들을 배출했고, 전국대회에서도 수많은 우승을 일궈 냈다.

2001년 12월 러시아 유·청소년 올림픽 상비군코치인 이바노브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남) 코치를 초빙한 데 이어 2007년 8월에는 세계 체조 최강국인 중국의 귀린시엔(남), 왕웨이잉(여) 부부 코치, 중국 국가대표였던 리아(여) 코치를 초빙해 선

수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교 운동부 차원에서는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사례로서 국내 학원 스포츠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2021년 1월 기준

구분(창단일)		감독	코치	선수현원(명)	
체조부	포철고 ('86.3.26)	남	손주수	김종철	5
		여	서성호	-	5
	포철중 ('83.3.31)	남	문성민	-	6
		여	배은미	윤석호	6
	포철초 ('87.3.5)	남	김성호	김재호, 김동길	12
		여	박지숙	이대호, 서정빈	8
소계		6명	6명	42명	

### 축구부



포항에 포철초 - 포철중 - 포철고, 광양에 광철남초 - 광철중 - 광철고 등 모두 6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은 그동안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포철고 축구부는 포철공고가 2013년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운동부의 운영이 불가능하면서 재단 내 고교인 포철고로 이관됐다.

이동국, 김영광, 오범석, 지동원, 황희찬 등과 같은 국가대표 및 많은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했다.

2021년 1월 기준

구분(창단일)	감독	코치	선수현원(명)
<b>포항 (스틸러스)</b>	<b>3명</b>	<b>8명</b>	<b>108명</b>
포철고 ('85.3.29)	백기태	이규용, 전근우, 홍종기	33
포철중 ('84.3.30)	임경훈	이광훈, 김승민, 한민규	44
포철초 ('88.4.07)	이수환	전건우, 문규현	31
<b>광양 (드래곤즈)</b>	<b>3명</b>	<b>9명</b>	<b>110명</b>
광철고('96.3.3)	김현수	신동근, 김용희, 심정현, 현승협, 양성운	38
광철중('93.3.3)	이제승	임형준, 이해준, 이정우	39
광철남초('93.3.3)	한창호	박승일	33
<b>합계</b>	<b>6명</b>	<b>17명</b>	<b>218명</b>

 야구부



포스코교육재단에 영광스러운 올림픽 금메달을 맨 처음 안겨준 효자 종목이 바로 야구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포철공고 출신 권혁(투수), 강민호(포수)가 고비마다 자신의 소임을 다해내며 한국의 9전 전승 금메달이라는 금자탑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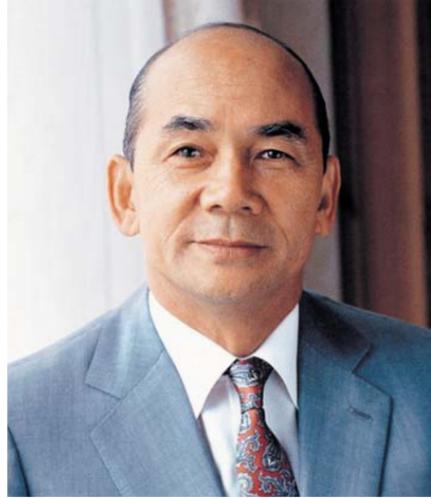
1982년 창단한 포철중 야구부는 2008년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전국 정상을 밟았으며, 포철고 야구부는 2013년 포철공고가 2013년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운동부의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재단 내

고교인 포철고로 이관됐다. 포철공고 야구부는 1981년 창단하여, 30여 년 동안 정상권의 전력을 유지하며 많은 우수 선수를 육성하였다.

2021년 1월 기준

	구분(창단일)	감독	코치	선수현원(명)
야 구 부	포철고 (81.3.9)	김수관	김일엽 서용주	30
	포철중(82.3.11)	이상대	이상달	31
	<b>소계</b>	<b>2명</b>	<b>3명</b>	<b>61명</b>

### 설립 이사장



포스코교육재단 설립이사장 **박 태 준**

### 이사장



**박성호** 이사장  
'19.1.2 ~ 현재

### 부이사장



**서재석** 부이사장  
'20.1.2 ~ 현재  
전무 '19.1.2 ~ 20.1.

### 역대 이사장

1993~ 2018



**정명식** 이사장  
'93.3.12 ~ '94.4.19  
'95.9.21 ~ '95.11.30



**김만제** 이사장  
'94.4.19 ~ '95.9.21  
'95.12.1 ~ '98.4.14



**이대공** 이사장  
'98.4.14~'12.11.30



**박한용** 이사장  
'12.12.01~'14.11.30



**윤동준** 이사장  
'14.12.01~'15.02.11



**이진우** 이사장  
'15.02.12~'15.08.13



**윤세용** 이사장  
'15.08.14~'16.02.15



**우종수** 이사장  
'16.02.01~'18.12.31

**역대 부이사장**



이흥철 부이사장 '81.3.1 ~ '82.1.12  
 최정렬 부이사장 '82.1.21 ~ '84.3.15 상무 '75.2.11 ~ '75.7.1  
 신상은 부이사장 '84.3.15 ~ '86.3.26 전무 '84.2.20 ~ '84.3.14  
 강종섭 부이사장 '86.3.26 ~ '88.10.6  
 최의주 부이사장 '88.10.6 ~ '89.6.22 상무 '84.1.1 ~ '87.2.15



황경로 부이사장 '89.6.22 ~ '93.3.12  
 조용선 부이사장 '93.5.16 ~ '95.2.23  
 이선구 부이사장 '95.2.23 ~ '96.5.27  
 이정부 부이사장 '96.5.27 ~ '98.12.31  
 김병용 부이사장 '99.2.1 ~ '03.11.30 상무 '89.11.1 ~ '90.3.6

**역대 부사장**



이문수 부사장 '12.3.19 ~ '13.3.24

**역대 전무**



김철녕 전무 '84.11.8 ~ '88.10.6  
 조관행 전무 '88.10.6 ~ '93.3.15  
 김광호 전무 '92.12.11 ~ '95.2.23  
 현세강 전무 '95.2.23 ~ '98.4.14 상무 '90.10.22 ~ '95.2.22  
 최상덕 전무 '04.4.16 ~ '06.3.7 상무 '99.4.12 ~ '04.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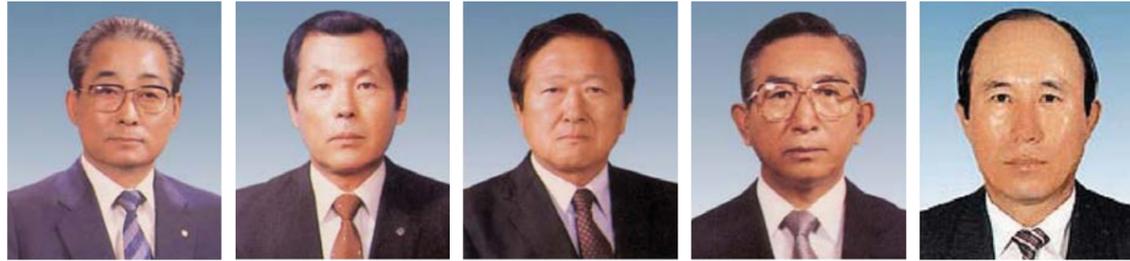


전광석 전무 '06.3.8 ~ '12.3.18  
 정문욱 전무 '09.3.16 ~ '13.3.24 상무 '06.3.8 ~ '09.3.15  
 유종호 전무 '09.3.16 ~ '11.3.3  
 노연길 전무 '12.3.19 ~ '16.1.31  
 홍대승 전무 '16.2.1 ~ '17.2.5 상무 '11.3.4 ~ '16.1.31



조용희 전무 '17.2.6 ~ '19.1.1

## 역대 상무



서병래 상무 '73.1.1 ~ '74.9.12    박영석 상무 '74.9.13 ~ '75.7.1    이관희 상무 '75.7.1 ~ '78.7.12    현영환 상무 '78.7.12 ~ '79.4.20    지영학 상무 '78.7.12 ~ '79.2.20



이대호 상무 '79.4.1 ~ '80.9.5    김덕환 상무 '80.9.6 ~ '82.1.21    김좌기 상무 '84.3.15 ~ '93.6.25    박우찬 상무 '88.3.3 ~ '88.10.6    김명현 상무 '88.3.3 ~ '92.3.9



윤정묵 상무 '95.2.23 ~ '98.3.24    주철근 상무 '95.2.23 ~ '95.12.1    박기성 상무 '98.4.14 ~ '99.5.16    이광수 상무 '99.5.17 ~ '09.3.15    서중치 상무 '16.2.1 ~ '19.1.1



박영수 상무 '19.1.2 ~ '20.1.1

## 현 교장



박석현 교장  
포항제철고등학교



강범식 교장  
광양제철고등학교



이성열 교장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강익수 교장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강순원 교장  
포항제철중학교



김형기 교장  
광양제철중학교



류미경 교장  
포항제철초등학교



김현수 교장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임종현 교장  
광양제철초등학교



김논식 교장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윤수정 원장  
포항제철유치원



유순영 원장  
광양제철유치원

## 역대 교장

### 포항제철고등학교



이대호 교장  
'81.3.1 ~ '88.11.4



김진 교장  
'88.11.12 ~ '99.8.31



서석두 교장  
'99.9.1 ~ '01.2.28



장정중 교장  
'01.3.1 ~ '04.2.29



김기용 교장  
'04.3.1 ~ '06.2.28



김성정 교장  
'12.9.1 ~ '15.2.28



강신복 교장  
'15.3.1 ~ '18.8.31



강석윤 교장  
'06.3.1 ~ '11.2.28



김흥규 교장  
'11.3.1 ~ '15.2.28



김성정 교장  
'15.3.1 ~ '17.8.31



배한우 교장  
'17.9.1 ~ '19.8.31



최창현 교장  
'78.3.1 ~ '83.2.28



김성동 교장  
'83.3.1 ~ '83.7.31  
'85.4.15 ~ '91.10.7



김환중 교장  
'83.8.1 ~ '85.4.14



최상준 교장  
'91.10.8 ~ '02.8.31



오주만 교장  
'02.9.1 ~ '04.2.29

### 광양제철고등학교



김진 교장  
'85.12.1 ~ '88.11.11



조영현 교장  
'88.11.12 ~ '02.8.31



최병욱 교장  
'02.9.1 ~ '08.2.29



송기재 교장  
'08.3.1 ~ '09.8.31



이상진 교장  
'09.9.1 ~ '12.8.31



조성발 교장  
'04.3.1 ~ '10.2.28



박일수 교장  
'10.3.1 ~ '14.2.28



황재호 교장  
'14.3.1 ~ '18.2.28

###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안종진 교장  
'15.3.1 ~ '18.2.28



전인득 교장  
'14.3.1 ~ '17.2.28

### 포항제철중학교



최창현 교장  
'80.3.1 ~ '80.9.15



이대호 교장  
'80.9.16 ~ '88.11.4



김진 교장  
'88.11.12 ~ '93.12.16



유훈 교장  
'93.12.17 ~ '99.8.31



박회진 교장  
'99.9.1 ~ '04.2.29



제갈태일 교장  
'04.3.1 ~ '04.8.31



윤세랑 교장  
'04.9.1 ~ '09.8.31



이종문 교장  
'09.9.1 ~ '10.8.31



우효 교장  
'10.9.1 ~ '12.8.31



정홍열 교장  
'12.9.1 ~ '14.2.28

### 광양제철중학교



김진 교장  
'85.12.1 ~ '88.11.11



조영현 교장  
'88.11.12 ~ '98.8.31



최병욱 교장  
'98.9.1 ~ '02.8.31



이상국 교장  
'02.9.1 ~ '10.8.31



이종문 교장  
'10.9.1 ~ '12.8.31



정원택 교장  
'12.9.1 ~ '15.8.31



권영락 교장  
'15.9.1 ~ '17.2.28



박석현 교장  
'17.3.1 ~ '19.8.31

포항제철초등학교 (舊 포항제철동초등학교)



이기적 교장 '86.12.1 ~ '94.2.28  
 이강희 교장 '94.3.1 ~ '99.8.31  
 김철룡 교장 '09.9.1 ~ '10.8.31  
 이강화 교장 '01.9.1 ~ '07.2.7  
 신윤호 교장 '07.3.1 ~ '11.8.31



권종원 교장  
 '11.9.1 ~ '14.8.31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이기적 교장 '86.12.15 ~ '91.2.28  
 이강희 교장 '91.3.1 ~ '94.2.28  
 김진원 교장 '94.3.1 ~ '01.8.31  
 김철룡 교장 '01.9.1 ~ '05.2.28  
 '08.3.1 ~ '09.8.31  
 김영종 교장 '05.3.1 ~ '08.2.28



이화영 교장 '09.9.1 ~ '12.2.29  
 오성균 교장 '12.3.1 ~ '12.8.31  
 석선애 교장 '12.9.1 ~ '16.8.31  
 정형권 교장 '16.9.1 ~ '17.2.28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강화 교장 '98.2.1 ~ '01.8.31  
 김진원 교장 '01.9.1 ~ '05.2.28  
 김철룡 교장 '05.3.31 ~ '08.2.29  
 김영종 교장 '08.3.1 ~ '10.8.31  
 신동구 교장 '10.9.1 ~ '14.8.31

광양제철초등학교



전 권 교장 '85.2.1 ~ '96.8.31  
 이보열 교장 '96.9.1 ~ '01.2.28  
 조경호 교장 '01.3.1 ~ '03.8.31  
 신기완 교장 '03.9.1 ~ '08.2.29  
 박보영 교장 '08.3.1 ~ '10.2.28



고문언 교장  
'10.3.1 ~ '15.8.31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이강희 교장  
'89.2.1 ~ '91.2.28



조경호 교장  
'91.3.1 ~ '01.2.28



이보열 교장  
'01.3.1 ~ '03.2.28



박보영 교장  
'03.3.1 ~ '08.2.29



신기완 교장  
'08.3.1 ~ '10.8.31



김영중 교장  
'10.9.1 ~ '12.8.31



오성균 교장  
'12.9.1 ~ '16.2.29



김광수 교장  
'16.3.1 ~ '20.8.31

포항제철유치원



김영설 원장  
'78.4.1 ~ '98.3.31



유호순 원장  
'98.4.1 ~ '08.2.29



강선애 원장  
'08.3.1 ~ '19.2.28

광양제철유치원



전 권 원장  
'85.2.1 ~ '96.8.31



이보열 원장  
'96.9.1 ~ '97.2.28



이애자 원장  
'97.3.1 ~ '05.2.28



한미정 원장  
'05.3.1 ~ '06.2.28



강순삼 원장  
'06.3.1 ~ '11.2.28



김영중 원장  
'11.3.1 ~ '12.8.31(겸무)



오성균 원장  
'12.9.1 ~ '16.2.29(겸무)



김광수 원장  
'16.3.1 ~ '19.2.28(겸무)

### 광양제철남유치원



이강희 원장  
'89.2.1 ~ '91.2.28



조경호 원장  
'91.3.1 ~ '97.2.28



이애자 원장  
'97.3.1 ~ '05.2.28

## 편집후기

포스코교육재단이 50년 동안 이룩한 빛나는 발자취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그 척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전통의 참 가치가 빛날 수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는 재단의 역사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지난날을 돌이켜 반성하고 현실을 분석하여 미래를 창조하려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값진 가치로 발견되는 기록집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 편찬위원장 서재석

### 포스코교육재단 50년 편찬위원회

#### 편찬위원장

서재석 부이사장

#### 편찬위원

박석현(포철고 교장)	이성열(포철공고 교장)	강범식(광철고 교장)
강익수(인천포스코고 교장)	강순원(포철중 교장)	김형기(광철중 교장)
류미경(포철초 교장)	김현수(포철지초 교장)	임종현(광철초 교장)
김논쇠(광철남초 교장)	윤수정(포철유 원장)	유순영(광철유 원장)
김철현(기획인사그룹리더)	최재성(경영지원그룹리더)	

#### 집필위원

##### 학교사

김양현(포철고)	안혜숙(포철공고)	성락용(광철고)	박인규(인천포스코고)	박임수(포철중)
김영선(광철중)	정해경(포철초)	성점배(포철지초)	곽창훈(광철초)	정영아(광철남초)
임지혜(포철유)	조희영(광철유)			

##### 재단사

고영민(기획인사그룹)

##### 사진

정한영(광철고)

5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

##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

발행일 2021년 1월 27일

발행처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0

대표전화 054 · 279 · 4666

제작 제일커뮤니티 (054. 282. 6852)